

1971년 5월 26일 인쇄
1971년 5월 31일 발행

공민

〈제 122호〉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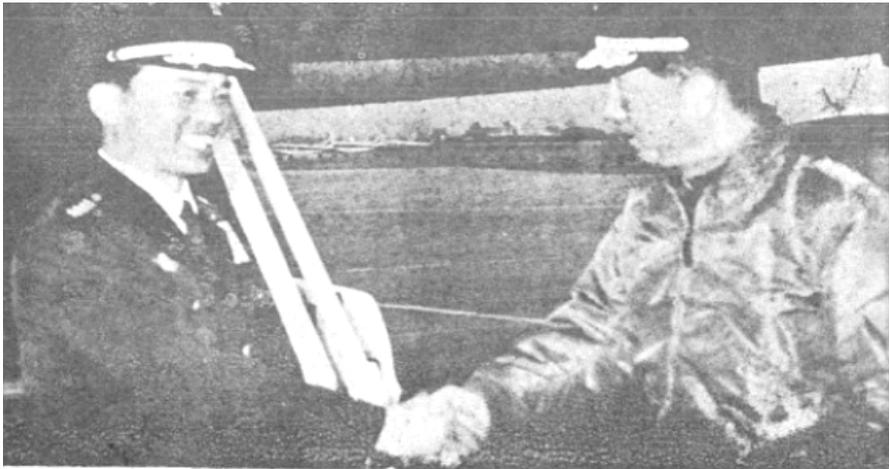
A stylized, graphic illustration of a village scene. The foreground shows several houses with dark outlines and some windows. The middle ground features rolling green hills. The background is a blue sky with white, cloud-like shapes. The overall style is minimalist and uses a limited color palette of green, blue, and white.

김 참모총장 동남아 각국 공군기지 시찰

참모총장은 지난 2월 15일 작전참모부장 김영환 장군을 대동 코 자유중국공군을 비롯한 철월남, 비울빈, 오키나와 등 동남아 각국 공군기지 시찰을 마치고 2월 28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출발에 앞서 참모들의 따뜻한 환송 속의 김 총장



무사 귀환한 김 참모총장을 반겨 맞고 있는 옥만호 차장

국민 교육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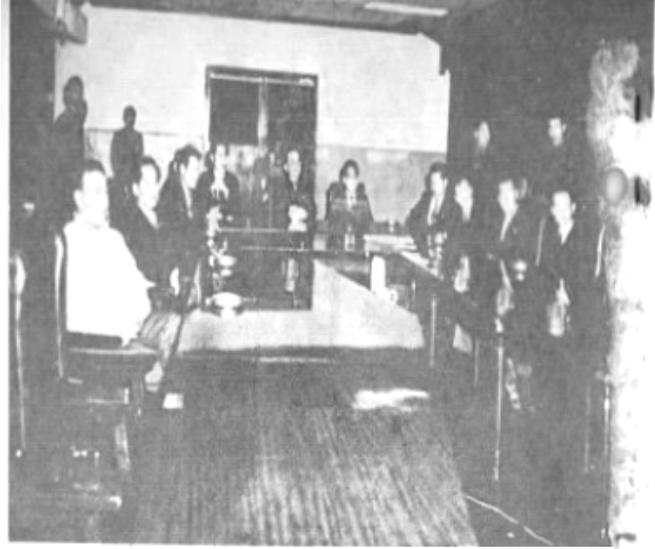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해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본예방

국방부 출입기자단 일행이 3월 25일 공군본부를 예방, 공군의 제반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전군지휘관회의 개최

전공군지휘관회의가 2월 10일 본부 기획상황실에서 김두만참모총장 임석리 전부대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갈흥기 대사 공본예방

갈흥기 주(말레시아) 한국대사가 3월 23일 귀국인사차 공군본부로 김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로보트 G* 하워드 중령에게 감사장

김두만 참모총장은 2월 20일, 우리공군의 초계비행 조종교육에 공로가 많았던 미 해군 로보트 G· 하워드 중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이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공군」122호 차례

〈권두언〉····· 정 훈 감 신 찬(2)
 주체의식과 지구국방 ·····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 중 현(4)
 전우애와 정병 ····· 〈작 가〉 김 팔 봉(10)
 군 조직과 병영생활 ····· 〈전우신문편집실장〉 선 우 진(16)

수 사람이란? ····· 〈문학박사·성대대학원장〉 류 홍 렬(25)
 상 실력제일 ····· 〈소년한국 주간〉 조 풍 연(26)
 자아완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 〈연세대학교수〉 김 형 석(27)
 우 정 ·····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차 범 석(28)
 남성적 본능 ····· 〈한국일보 정치부차장〉 정 광 모(29)
 노병의 일과 ····· 〈대성서예원장〉 김 기 승(31)
 경험적 취미론 ····· 김 중 무(33)
 버릇과 습관과 사회풍토 ····· 이 동 익(36)

특 집 좌 답

병영생활 :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대령 : 현 병 민, 중령 : 최 승 현, 중령 : 송 중 칠
 중위 : 어 수 연, 상사 : 박 원 석, 하사 : 손 화 익 (41)

1970년대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 허 동 명 (50)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 중령 홍 성 표(61)

표지화
 차례화 진 광 선
 사진인화 :표지 2~3면, 차례 뒤

소련의 군사전략⑧ ····· 중령 이 중 학(81)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 홍 준 표 역(94)

시 사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 한국일보 외신부 김 병 무(104)
 중동분쟁 어디까지 왔나 ··· 중앙일보 외신부 정 규 웅(110)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 조선일보 외신부 한 영 탁(116)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 이 건 명(123)
 장병복지와 전투력 ····· 전우신문 취재부장 마 욱(133)

1970년대 한국의 안전보장 ····· 편 집 실(143)
 -민족의 등불에서-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중령 허 왕(150)
 북괴의 최근동향과 우리의 결의 ····· 윤 명 선(160)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 조 성 직(165)
 공산주의 문제연구소장
 한·중 공군의 유대에 굳히고 ····· 대령 박 홍 순(171)
 -자유중국 공군 순방기-

단편 이야기
 군인교회의 오순절 ····· 군목 · 구 자 립(181)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 군목 · 이 준 학(183)
 기쁨과 기도와 감사 ····· 군목 · 이 학 수(186)

단편 타버린 우정 ····· 김 병 로(189)

공군

<제 122호; 1971년 제 2호>

<비매품 : 무 단 전 재 금 >
발 행 처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 행 겸 편 집 인 : 공군대령 신 찬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편집실: TEL. 406-2204,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있지 않으나, 우리와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권두언>



정 예 화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근간 정예화 운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 졌다. 국방을 비롯하여 행정, 산업, 과학, 사회,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정예화를 부르짖으면서 「엘리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 주위에서 최근에 갑자기 일기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평소부터 정예화를 바라왔고, 또 이를 위해 다소간의 노력도 해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예화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모든 일에는 제각기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엘리트」가 생겨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때나 정예화한다고 손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정예화는 그것이 이룩될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이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면 요사이 정예화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정예 화할 수 있는 기반이 어지간히 마련되어 있다는 셈이다.

정예화를 갈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몇 가지의 제약이 닥쳐온 까닭이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 그리고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제약점을 타개하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려면 오직 정예화를 통해서 가는 길 밖에 없다.

우리 공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 공군은 창군기에 이미 모진 시련과 희생을 치렀으며, 휴전 후 갑작스런 장비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최신장비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몸 익혀온 보람으로 이제는 최신예전폭기를 구사하는 현대공군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정예화를 서두를 기반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말한 여러 제약은 우리 공군에게는 시초부터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들이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군이 수적으로 우세한 북괴공군과 겨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부폰 침략야욕은 우리의 허점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공군의 수적 열세란 단숨에 만회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열의 판가름은 오직 수적으로만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군력에 있어서는 질적 우세가 앞선다. 여기에 우리가 전진할 방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군의 정예화이다.

정예화란 전력투구의 결과 없이 닦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행을 바라는 우를 범할 수 없다. 투철한 사명감 아래 장령 하나하나가 발휘하는 전심전력이 한데 묶여야 비로소 정예화의 관문이 열리게 됨을 명심하자.

주체의식과 자주국방



윤 중 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1)

국민학교 5학년인 막내 녀이 영어의 「알파벳」을 다 안다고 요즘 제법 으스스한다. 국민학교생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이 벌써 「무드」화한 모양이다. 또 「버스」에 탔거나 시골 논두렁길을 걷는 중·고교생들이 영어단어장을 외우려고 애쓰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두서너 살 난 천재소년하면 우선 그 영어단어 얼마만큼을 행행 윈다는 재능 측정 기준이 심심찮게 들린다. 며칠 전 휴전선에 가까운 고향엘 다녀올 때 한 버스에 탔던 청년들이 최전방에서 철수하는 미군들의 이동상황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 아주 가나봐.”

“아냐 일부만 간대. 설만들 아주야 다 빠지겠어. 아직 우리가 위태한데”

“탱크가 빠져 나가는 건 뭐지?”

“저회부대 주변으로 갖고 가겠지 뭐. 아주 나가는 부대의 장비는 우리에게 준 다던데. 그보다 기지춘경기가 나빠질 테니 그게 문제 같아.”

“그것도 문제지만 씬이 나면 저 사람들 또 와줄까.”

“글쎄 설만들 우릴 버리기야 할라구. 벌써 몇 십 년 썩 지켜 주었는데 그런 근심하지마세.”

“글쎄 그럴까.....”

차 창밖선 후방으로 이동하는 미군의 차량이 몇 대씩 짝을 짓거나 또는 단독으로 달리고 있다. 민심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지 긴 대열을 만들지 않고 토막토막 빠져 나가는 식인 것 같았다. 그들이 물러선 뒤를 우리 지상군부대가 메워 3월 10일께 부터는 155마일 전전선을 국군이 전담(專擔)하게 된 것이다.

영어에 관심을 가진 어린애로부터 청년들의 차중대화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 언행을

음미해왔다. 학생 애들이 영어에 매력을 느끼거나 영어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체질화한 것 같다. 그것은 학습의 영역문제이자 열

<주체의식과 자주국방>

의에서 오는 것이니 권장해서 무관할 것 같다. 미군철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의 대화 역시 생리화한 어느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반영임이 분명한 것이다. 「싸움이 나면 다시 와줄까」하고 근심하는 젊은이나 「염려 말라」는 친구의 대답은 모두 안보감각(安保感覺)의 의존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청소년들의 생각을 아주 자아상실(自我喪失)이라고 내가 진단한 것은 아니다. 그들보다도 오히려 6·25의 재난을 몸으로 겪은 장년층 노년층이 남에게 의존하려는 심성은 더 강하지 않을까. 정말 자아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봐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또 일부의 그런 경향을 이제야 굳이 나무랄 필요도 없다. 멀리는 우리 조국해방이 남의 힘을 적지 않게 빌었고 6·25 이래 오늘날까지 국방의 상당부분을 우방의 힘에 의지했으며 장차라고 해도 그리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자력(自力) 방위체제를 갖추기는 어려우리라는 조건 전망을 감안하면 오늘날까지의 의식 구조 일부가 남에게 눈을 팔게 된 내력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문제는 내 일로 이를 확대하거나 연장시키지 말아야 할 따름이다. 그래서 여기 의식(意識)의 조작(操作) 과제가 생기는 것이다. 의타심을 탈피하여 자주 의식 즉 주체의식을 찾고 자아상실증을 정리해버려야 할 판이다. 그것은 비단 전선을 우리가 전부 맡은 데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나라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고도로 진행되는 세계 각국의「내셔널리즘」경향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방을 돕는데 직접개입도(直接介入度)를 줄이며 지원형태를 위주로 하려는 「닉슨·독트린」전개의 영향 등에서 우선 생각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문제 상황이다. 이런 동향은 장차 불행히 제2의 6·25를 우리가 또 맞는다 해도 50년대처럼 많은 우방과 그의 지상부대들이 즉각 이전에 투입되리라고 보장된 기대를 걸 수 없게 한다. 그런데도 북괴의 대남침략노선은 작년 11월 괴뢰당 5차 전당대회에서 재천명된 것처럼 시종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근래 자라나는 종합적 국력을 바탕으로 1·21 사태 이후 주창하기 시작한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은 이래서 전국민적「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첫대목이 자기의 의사·의지·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 하였다. 제아무리 우수한 신예장비를 가진 국민이나 군대라 해도 남의 지시에 따라 방위 활동을

<주체의식과 자주국방>

한다면 자주국방이라 할 수는 없다. 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먼저 나서 지키겠다는 주동적 결의와 또 지켜야 된다는 당위의식을 뼈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주체의식이며 이 의식에는 방위능력과 수단이 보태지고 자기의 판단과 방법에 따라 방위력이 행사되면 자주국방은 모범적으로 실현 될 것이다. 우리처럼 오랫동안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고 방위능력과 수단의 상당부분을 자체생산하지 못하는 처지로서는 특히 이 주체의식을 손상당하거나 잃기가 쉽다. 이는 의식면에서 미아화(迷兒化)할 염려가 있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확립(또는 회복)문제와 아울러 주체의식의 올바른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철학적인 영역을 떠나 요즘 일컫는 주체의식을 나는 행동하는 자아(自我)의 능동(能動)과 자발(自發)을 각성하는 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방위부문으로 발산하면 대열에의 자진참여와 방위의지의 성장을 구현하며 객관적 여건을 극복코 방위책임 앞에 최선을 다하려 분발하게 된다. 주체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잊지 않고 온갖 활동의 주격(主格)이 되려 할 것이다. 이런 심행(心行)을 사회로 펼쳐보면 술선수범이 따를 것이고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키면 생산의욕과 능률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웃끼리 어울리면 정렬의 협동 단결이 되고 나라 일에 비추어 보면 애국의 궤도로 행진할 것이다. 국난 앞에 의타심이나 피난의식 이남감각(以南感覺)등을 갖는 일이나 행동과 사고(思考)과정에서 중상모략 시기 질투 부정부패 같은 낭비성을 청산케 되리라고 본다.

(3)

하지만 이런 주체의식만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주국방태세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늘의 국방력이 사람과 더불어 물량(物量)에 근원하며 또한 국제관계에도 심대하게 영향되는 때문이다. 제아무리 우리가 정신적 주체의식을 앞세워 최선을 다한다 해도 물량이 플러스됨으로 말미암아 늘어날 수 있는 「힘의 요소」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과 더불어 「타협」「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점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완전자력으로 모든 방위능력을 갖추고 단독국방이 가장 제나라를 방비하는 최선의 길이며 또한 최대의 실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남과의 관계나 그 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상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체의식 조작과정에서 지적해뉘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즉 능동과 자발에서

유발되기 쉬운 배타성을 경계해야 할 문제를 낭게 하는 것이다. 원래 능동과 자발을 본질로 하는 주제의식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면 이런 탈선을 근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마치 남의 도움이나 협조는 아주 필요 없고 「내가 제일이다」하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쉬운데서다. 작년에 월남 전선에 들렀을 때 15세의 현지소녀 한명이 주둔군 어느 부대의 정문을 무단통과하려다 보초의 제지를 받자 「여기가 누구의 땅인데, 누구의 나라인데—」하며 심한 반발을 보인사건 이야기를 지휘관으로부터 들었다. 철 모르는 애들의 소행이라 치면 그만이지만 이 사건은 월남인의 특유한 「배타성」의 한 본보기처럼 전해지고 있었다. 자기 힘이 충분하더라도 남과의 유대 남과의 협동을 애써 사양할 필요는 없을 터인데 이런 배타성을 원래의 우방군에까지 보이는 것이 마치 주제의식의 발로인양 여기는 큰 손실이라 하겠다.

우리처럼 지금 군대 장비의 대부분을 우방의 원조로 보급 또는 현대화하고 군의 편제와 온갖 교리(敎理)를 남에게 본뵈으며 유엔 안보체제하에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위임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공동방위체제를 국방의 한 주축으로 삼고 있는 현실적 조건하에선 이 「공동협조」를 잇는 주제의식의 착각은 아예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설혹 남의 원조와 협조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의 방위방법이자 이익으로 귀납한다는 합의를 찾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유대를 조화시킨다면 그것은 훌륭한 주제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그와 더불어 주제의식은 항상 모자라는 자기의 힘을 기르는데 또한 발양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지금 얻어 쓰는 팬텀이나 대포 그리고 빌려 쓰는 함정을 어떻게 하면 내 기술과 내 자원으로 보충하며 생산하여 자력(自力)의 면적을 확대할 것이냐는 의욕과 활동의 주체자여야 하는 것이다. 오래 걸려야 할 그 시일을 앞당기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첫째로, 자력을 바탕으로 한 자주의식의 새로운 감동과 더불어 자주국방태세의 기틀로서 매우 뜻 깊은 것이지만 곁들어 우방과의 공동협조관계를 채무감각이나 종속성없이 평형화하여 참다운 상호협력을 영구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한 것이다. 한쪽이 한쪽에 매달리기만 하는 관계는 설혹 부부라 해도 종말에는 하나의 짐이 되며 파경을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또 물량의 신세를 오래지면 제아무리 다정한 친구사이어도 마음에 그늘을 느끼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위축되는 것은 환한 이치에 속한다.

(4)

자주 국방력의 가장 요긴한 에너지원인 주제의식을 우리의 처지와 결부시켜 이처럼 방위 임무·협조관계·자력의 보충을 위한 활동에 있어 능동성과 자발성을 각성하는 심전(心田)으로 정리할 때, 오늘 우리 공군이 그 구심권내에서 처한 위치와 사명은 절로 선명해진다. 현대전 승패에 절대성을 차지하는 제공(制空)의 패자(覇者)로서나 3군 전력의 중핵체이자 전장(戰場)기능의 보호자로서 혹은 선진국 공군처럼 우주를 지향해야 할 과학군의 하이라이 트로서 그 지없는 방위 임무를 솔선수행하며 새 공군시대의 추세를 어떻게든지 추적해야 할 준령앞에 서 있는 것이다.

우방과의 협조관계로 말해도 그렇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으로 미 지상군부대는 줄었지만 그에 따르는 방위력 약화를 커버 하고 지원능력을 올리기 위해 미 제 5공군 일부는 오히려 우리 곁으로 더 전진해 왔다. 북괴 공군세가 우리 보다 더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감안하며 또한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 그를 추월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리라는 전망을 생각하면 미 공군의 보다 진한 협조와 효과적 지원을 확보키 위해 공군으로서는 물론 장병 개개인끼리라 해도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잠시라도 쉬지 말 일이다. 또 그것이 추종적 자세에서가 아니라 우선은 내 일을 내가 먼저 서슴없이 감당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한편 받은 협조의 기능과 성과를 자기 것으로 잘 승화시켜나가는 겸손한 내실성을 추구해 가야 할 것 되새겨 들만한 항목이라 하겠다.

그렇더라도 공군처럼 물량의 자력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군대는 없을 것 같다. 육군은 그대 도 몇 가지 간단한 장비 정도를 그리 머지않은 장래 에 국산화할 수 있겠고 해군 역시 조선공업이 성장 중이어서 소형 함정같은 것은 국내 생산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공군의 기본병기인 항공기의 제작이나 생산문제만은 아직껏 도무지 엄두를 못내는 모양이다. 원래 고도한 과학기술과 조직공학의 산물이자 거대한 경비가 필요하여 항공 산업이 불모상태(不毛狀態)인 탓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물량을 원조 받는데서 오는 심리적 영향이나 상호관계의 하향성(下向性)극복을 차지하고라도 항공 산업과 그 생산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공군의 저력을 과시하는 한편 적의 전의(戰意)를 꺾으며 흡수(吸收)할 수 있는 억제적작용을 헤아리면 헤아려볼수록 그렇다.

<주제의식과 자주국방>

하기는 남들이 항공장비 변혁경쟁에 한창인 이제, 그 자체생산의 필요성을 운위한다는 것이 일면 쑥스럽고 부끄러운 편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날개가 돋기 전에 날수가 없는 것은 진리이다. 남에게 업혀서 날아 봤대야 그것은 공수(空輸)된 상태거나 전세기를 타는 실력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자기 돈으로 남의 신예기를 샀다 해도 그것은 한 때의 저장된 힘 일뿐이며 역량의 생산과 영속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완전한 자주국방의 정점(頂點)이란 공군의 자력화를 지체없이 지표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단 공군은 현존하는 전력(戰力)으로서 위치해야할 뿐 아니라 항공자력(航空自力)의 원심점(圓心點)으로서 상성한 주체의식과 푸른 설계도를 보이며 자기 터전과 활동권을 힘차게 확장해가야 할 또 하나의 당위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험난한 이 나라 공군의 자주화를 위해 그 희망과 실행을 대표하며 추진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공군 이외엔 없다고 단정해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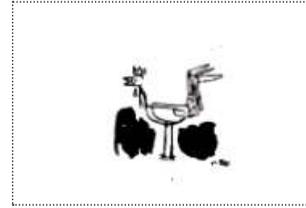
박 대통령 문언록

◇ 민주체제와 공산체제의 대결은 정면적인 무력대결의 차원을 넘어서 번영과 복지를 앞세우는 「개발경쟁」에서 그 승패가 판가름 될 것임을 생각할 때, 승공의 첩경은 바로 경제건설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 우리는 퇴역적인 누습과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개혁을 박력있게 실천하면서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이 화려하게 이룩했던 문예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민족의 자질을 더욱 알차게 개발하여 홍익인간의 이념과 화랑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화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더욱 드높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 혼란이 없는 안정 속에 중단 없는 전진을 거듭하는 것만이 시련 극복의 첩경이며 민족의 활로입니다.

우리의 국력을 생산 그것에 직결시키고, 우리의 생활태도와 관습을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사회기풍을 더욱 진작시켜 중흥과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하겠습니다.



전야애와 오기

군대에서 장교와 사병 간에 틈이 벌어져 가지고 이따금 불미한 일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한숨을 내뿜는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개인의 가정이나 상점을 비롯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화목 단결인데, 만일 가족끼리 서로 화목 단결하지 못하고, 회사 동료들끼리 서로 반목 갈등한다면, 그 가정이나 그 회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로 군대 내부에서도 화목 단결이 기본적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기를—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조직이라 한다. 그렇다고해서 군대라는 조직이 무수하게 많은 부속품을 두들겨 초립한 기계가 아닌 이상, 인간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외면하고,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서는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명령계통이 엄격한 군제 조직일지라도 장군과 사병 사이에는 사랑이 항상 흘러야 한다.

동양에서 유명하게 인용되는 오자(吳子)의 이야기가 있다. 오자의 이름은 오기(吳起)인데, 그는 중국 위(魏)나라의 대장이었다. 오기가 대장이 되어 적국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하 사병 하나가 몸에 종기가 생겨가자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참. 괴롭겠다. 고름을 빼고서

- …우리는조국통일을완수할…○
- …때까지,아니영원히민족… ○
- …의장래를갓기위해서전… ○
- …우애로뭉쳐야한다:……… ○

김 팔 봉
<작 가>

<전우애와 정병>

약을 발라야겠다.”—이렇게 말하고서 그 사병을 가까이 불러 앉히고는, 최고 사령관인 그가 친히 그 사병의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었다. 아마 손끝으로 눌러서 고름을 짜내 그것보다 입으로 빠는 것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이런 소문을 들은 그 사병의 모친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양을 본 이웃 사람들이 “당신 아들의 상처를 장군님이 입으로 빨아주셨다면 영광된 일이요 기뻐해야 할 일인데··· 울기는 왜 우시오?”하고 물으니, 그 모친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이제는 장군 때문에 죽었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울음이 터졌다오”하더라 한다. 그리고 과연 그 후 그 아들은 최전방에 나아가 적과 분투하다가 전사하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위(魏)나라는 승리했다. 오기 장군이 이처럼 사병한테 사랑을 기울였던 까닭으로 그의 군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정병(精兵)이 되었던 것이다.

또 서양에서 있었던 일로 가끔 인용되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은 나폴레옹의 이야기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전선에 있던 나폴레옹이 어느 날 밤 사병들의 막사주변을 혼자서 순찰해보려고 나갔더니, 한 초소를 지키는 보초병이 총을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하겠거늘, 너무도 피곤했던지 총을 옆에 놓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지라, 이 모양을 본 나폴레옹은 그 보초병을 대신하여 총을 자기가 들고서 외투 깃을 치켜 올려 얼굴을 가리고는 초소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그가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 어느 겨를에 눈을 뜬 보초병은 누가 자기를 대신해서 보초병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이 번쩍 들어 얼른 일어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최고사령관이 아닌가.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보초병을 꾸짖지 아니하고 “얼마나 피곤했겠느냐 아무도 모르니까 안심해라”—이렇게 이르고는 자기 숙소로 돌아왔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 보초병이 충성을 다했을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군대의 장군과 사병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릇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가 사랑과 믿음으로써 연결되지 않고서는 상호간의 협력과 단결과 행동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저 사람을 아끼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 사람도 나를 따르고, 나를 떠받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일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우애와 정병>

오른쪽 뺨을 얻어맞고서 왼쪽 뺨을 때려 달라고 하라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려운거나 마찬가지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으로 이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준비행동을 습관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양보—이해—친근의 3단계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니, 저 사람이 무어라 반발하더라도 이를 불쾌히 여기고서 반격하려는 감정이 치솟을 때 그 감정을 인내하고서 한 발자국 양보한다. 그리고서 한번 반성해 본다. 그리고서 조용히 설득해 본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이 어찌서 그렇게 반발하려 했던가를 생각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거든 상대방과 친밀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비 작업을 심리적으로 항상 습관화시키면 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인자하게 발전할 것이다. 마음바탕이 인자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까닭으로 이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 바탕이 이같이 어질고 착하게 되면 남과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없고 약속을 어기는 일도 없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 친구들이 모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아무개만은 믿는다.”고 말하게 된다. 부하사병들도 “우리 중대장님의 말이라면 팔을 가지고 메주를 쏠대도 나는 믿는다.”고—이렇게 굳게 신뢰하게 된다.

동료와 또는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굳은 신뢰를 받아야만 비로소 부하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친구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상대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까닭이다.

부하들이나 동료들에서 이 같이 두터운 신뢰를 받고 더욱 존경받게 되면—이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서는 권위(權威)가 생긴다. 권위라는 것은 그저 책상이나 의자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와 「존경」이 뭉쳐 있는 인물한테서 「권위」를 느끼는 까닭이다. 키가 짧고 덩치는 작게 생겼고 얼굴은 거무테테하건만, 오직 이 사람의 말만은 어김이 없이 진실하고,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반드시 실천하고, 부하거나 동료거나 골고루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항상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소대장 앞에 나가서는 저절로 고개가 깊숙이 숙여지더라는 말을 나는 어느 중사(中士)한테서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다. 과연 진실한 말이다. 사람의 권위는 외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전우애와 정병>

의 인격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길래 옛날 이조(李朝) 때 유명한 오리 이정승(梧里 辛元翼)은 선조(宣祖), 광해(光海), 인조(仁祖)—이렇게 3대의 임금을 모시고서 40년 동안 국가에 공헌한 인물이었고, 이조 5백년을 통해 가장 현명하였다는 다섯 사람의 정승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서 천하 만인이 존경하고 복종하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외양은 키가 작고 몸집도 조그마하고 얼굴도 썩 잘 생기지 못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오리 이정승의 얼굴은 살짝 곰보였다는 말도 있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외양이건만 그의 인품과 학식과 덕망은 만인을 경복시키기에 넉넉했던 모양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바탕이 현명하고, 선량하고, 아는 것이 많고, 의리 있고, 용감하면 부하와 동료는 따르게 마련이다. 따르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학식으로나 인격으로나 신뢰하고 존경하는 까닭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라면 헌신적으로 실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는 일도 사양치 않는다. 이같이 복종과 헌신과 희생을 바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직 신뢰하고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권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함으로써 탄생되고, 그 존경심이란 모두가 그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나의 권위를 세우는 근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만큼 행동하는 일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이 양보할만한 일은 양보하기에 인색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상대방과 친근하게 어울리는 일이라 함은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이같이 노력해서 일단 신뢰를 받게 된 뒤부터는 의리를 꼭 지켜야만 오래도록 그 신뢰를 유지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 얻었던 신뢰를 미구에 잃어버린다. 그러나 의리는 양심(인도와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정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는 정이 앞서더라도 정의가 아니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부하의 행동에 찬동해서 안 된다. 인정으로 끌리는 구석이 있지만, 양심과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나 이런 때는 친구를 설득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만일 친구가 이편에서 진심으로 권고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이거나

<전우애와 정병>

그때엔 그 친구와의 위리관계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부하와 동료들의 신뢰를 장구히 유지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긴 하되 정의와 인도(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해서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골육형제간의 의리도 끊어버려야 할 때 꽤히 끊어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엔 시일이 지나서 잘못된 편이 자연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서 도리어 그전보다 더 굳은 우정을 느끼고 친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쪽의 진정한 사랑을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아끼고, 돕고, 용서하고, 자기를 제공하는 자세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지극한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전쟁마당에서 전우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용사가 6·25동안 이후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1952년 여름에 나의 친구의 아들 K 소위는 38선 어느 고지에서 중공군과 서로 고지를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소대장이었다. 그런데 K 소위는 인정이 많고 성질이 부드러운 청년이기 때문에 사병들을 아끼기를 자기 몸같이 아꼈다. 격전이 잠시 중단되고 휴식할 틈이 생기기만 하면 그는 부하 소대원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나눠주면서도 자기는 안 먹기를 잘 했다. “소대장님은 왜 안 잡수시우?”하고 부하가 물을라치면 “응, 난 조금 전에 너희들보다 먼저 우물우물 먹었다. 내 걱정 말고 어서들 먹어라”하고 싱긋 웃어보였다는 것이다. K 소위의 천연덕스런 대답에 소대원들은 그런 줄 알고서 자기들끼리 부리나케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불과 2백 미터도 안 되는 N 고지를 가운데 놓고서 K 소위가 소속된 부대는 이곳을 탈환하느라고 격전을 거듭하는 동안 N 고지의 주인은 다섯 번이나 바꿈질을 했다. 그러다가 K 소위가 이끄는 소대가 다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탄환이 비같이 쏟아지는 속으로 영금영금 기어 올라가 정상에 육박해 가지고 수류탄으로 오랑캐들을 소탕했을 때 적군 후방에서 쏘는 집중포화로 말미암아 K 소위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버렸다.

K 소위가 쓰러지자 바로 곁에 서 있던 S 하사가 K 소위를 업고서 뒷걸음질로 고지를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때 적군후방에서 쏘아대는 박격포탄 때문에 N고지의 정상을 탈환하고서 생존했던 7명의 소대원은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

K 소위는 후방으로 이송되어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서울에 있는

<전우애와 정병>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리고는 열 달 동안이나 여기 저기 육군병원으로 전전하면서 전신에 박혀있는 포탄의 파편을 빼냈지만 아직도 콩무니뼈에 밀착해 있는 파편을 꺼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만일 N 고지에서 포탄파편을 뒤집어쓰다시피 맞고서 넘어졌을 때 S 하사가 자기를 희생시킬 각오하여 그를 업고 앞드려서 뒷걸음질 쳐 내려오지 아니했더라면 K 소위도 N 고지 위에서 7명의 부하들과 함께 영원히 눈을 감아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S 하사야 말로 K 소위의 은인이라 할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서 K 소위를 구해낸 S 하사의 용감한 행위야 말로 전우애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전우애의 미담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미담의 뒤에는 평소에 전우들끼리 피차에 서로 아끼고 용서하고, 돕고 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사실이 비단보 같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오늘날 한국군이 막강한 군대라고 세계에서 칭찬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두 가지 이유가 있으니 하나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장병들간에 전우애가 비할데 없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완수할 때까지 아니, 영원히 민족의 장래를 복되게 할 막강한 군대를 갖기 위해서 전우애로 뭉쳐야 하겠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국가에 봉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 정신무장이란 우리가 당면한 정세하에서 전국민이 나도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야겠다는 철저한 인식과 의무감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정훈강좌>



군조직과 병영생활

■ 병영생활은 자기완성 · 인격도야의 도장이다 ■

선 우 진
<전우신문 편집실장>

우리 국군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군대이다.

때문에 위로는 장(將官)에서 장교·하사관, 밑으로는 이등병에 이르는 차이, 즉 그러한 계급은 다만 복무상의 지위에만 있는 것이지 그 인간성에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군인이 다른 군인에 대하여 상관이 되고 부하가 된다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그 군인의 역량과 모든 능력에 따라서 국가가 그에게 의무의 차이를 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군 조직의 기본 형태인 것이다.

상관은 한층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국가가 그 지위에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조국과 국민 앞에 중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군에 있어서의 계급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높이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국군은 민주 군대이기 때문에 계급은 있어도 계급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잘못된 것이다.

물론 민주 군대이기 때문에 독재주의 국가의 군대나, 전제주의 국가의 군대처럼 하급자는 상급자로부터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계급 사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임무와 책임이 가볍고 무거운 차이를 구별 짓고 있다는 점에서도 계급의 차이는 엄격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인격적인 존엄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군 조직사회를 한 가정으로 묶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영생활은 자기완성을 위한 인격도야의 도장이요 내일의 조국을 걸머질 청장년의 수련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군대를 청년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사랑 · 신뢰로 뭉쳐 특수계통을 확립

여기서 군인복무령 제24조를 보면,『상관에게는 반드시 경어를 써야 하며 존경심과 공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상관에 대한 존경심이 흐려진다면 그만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심도 흐려지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명령계통이 희미해지므로 끝내는 군대의 명맥인 규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므로 그 군대는 한낱 군중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상관을 공경하지 않는 군인은 그만큼 자기 자신도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므로 상관을 존경한다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군인은 근무 중은 물론 언제 어떠한 장소에 있어서나 상관에 대해서는 태도를 공손히 하고 쓰는 말씨도 경어로 대항함으로써 상하간의 인간적 정분을 두텁게 하는데 명심해야 하겠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것은 군인의 가장 성스러운 정신이며 군인은 생활에서 얻은 강력한 실천력만이 소중한 것이다.

상관이 내린 명령이 하부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도저히 그 맡은 책임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의 막중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영생활을 명랑화 하는데 서로의 전우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우애야말로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복종하는데서 우러나와야 하겠다.

더욱이 군의 임무를 수행 하는데는 반드시 명령에 의하게 마련이다.

군은 원래 명령에 의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은 군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관의 명령은 신성한 것이며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군에 명령이 없다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다.

군대는 거대한 인간의 집단이다. 그 거대한 조직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체계가 바로 명령에 의한 통수계통이다.

그 통수계통이야말로 군 조직의 기간이요, 바탕이다.

그 조직의 바탕은 역시 사랑과 신뢰 없이는 굳건히 다져질 수 없고 체계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바탕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병영생활의 조화를 이루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군기확립만이 병영 명랑 기해

병영 생활의 명랑화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군기를 지킬 줄 아는 군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에서 군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질서를 말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격동하는 내외 정세를 감안해볼 때 우리 군의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또 기대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래혁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훈령 134호를 통해서 군기확립에 따르는 강력사고 방지를 강력히 시달한바 있다.

『각급 지휘관은 존경과 신의로 뭉치어 상관에게는 진정한 존경으로 대하고 부하에게는 생사와 이해를 초월하여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덕성 함양에 진력 할 것은 물론, 특히 초급지휘관 및 하사관과 병의 세대적 차이에서 야기되는 계반 통솔상의 결함을 조절하여 부하 사병들의 복무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각별히 노력하라』

라고 했다.

이는 곧 군대생활, 다시 말해서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위해서 그의 직분에 따라 군대의 규율을 지켜 가면 그 질서는 제대로 잡혀져 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병영도 한 사회라고 생각할 때 사회질서가 문란하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그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명할 수 있고 또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율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도 그렇고 관청도 그렇다. 도로에 교통순경을 배치하여 질서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인 것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혹은 각 개인의 사회 도의심에 호소하는 등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방법으로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의 군기, 다시 말해서 규율을 절대적인 방법으로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계급을 가진 군대 조직이 병영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규율을 파괴하고 준수를 거부할 때는 군대는 군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그 책임을 추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군대에서 규율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군대가 다른 그 어떠한 단체보다도 조직력 과 민첩한 기동성을 필요로 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부분의 군기가 문란해지거나 일부 부대의 군기가 헤이되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온 부대에, 혹은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수행해야 할 작전에 커다란 착오와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확립된 군기 밑에 뭉친 질서 정연한 부대, 즉 조직 체계가 확립되고 입전태세가 확립된 병영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군대가 싸우거나 경비에 임할 때와 그렇지 못한 부대의 행동은 그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군기가 문란한 군대는 오합지중이요 적에 조우하면 패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전쟁의 양상이 입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장병 각 개인의 행동 하나 하나가 곧 전체 부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군기를 지키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책임 관념이 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병영생활의 제일의 신조이기도 하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수행하지 않으면 동료 전우에게 그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공동생활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그 조직을 명량화하고 또 단결의 힘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 초소의 보초 근무자가 보초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로 그 부대 전원이 적의 기습을 받아 전멸의 비운을 당하거나, 또한 한 수색대원이 철저한 수색을 하지 못한 탓으로 말미암아 그 부대 전원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게 하는 예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예라고 할 것이다.

이는 군대의 최종 목적이 이 나라를 침공하는 적을 격퇴하고 승리를 획득하는데

있으므로 군인 각자의 목적도 역시 전투행위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기위해 단련되고 연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투철한 정신자세로 입전무퇴의 전기를 걸러야 하겠다.

그것이 곧 우리 각자, 생명의 위협성을 제거 하고 튼튼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지닌다는 것 이 오늘의 조국이 바라는 정병강군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또 그것이 자주국방의 길이기도 하다.

바른 군인예절은 정병 · 강군을 육성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의해 좌우되며, 사기 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여 기꺼이 그 직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사기는 모름지기 물질보다는 정신력과 직결되는 바 지휘관의 공정한 처사는 사기진작의 기본임을 명심하여 각급 지휘관은 부하 장병에 관한 한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근무를 단행하여 부여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라.」

〈국방부 훈령 134호 제3항〉

곧 군의 사기는 장교, 하사관, 병이란 계급을 가진 조직에서 볼 때 서로가 지켜야 할 예절 없이는 그 단결을 과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병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심이다.

계급으로 뭉친 특수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자연히 불손하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 상관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과대평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능 무능을 막론하고 나의 생명을 빛내 줄 분임엔 부인할 수 없고, 또 자신을 감싸 줄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를 항상 생각하기를 나의 형님이요 또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마음씨를 지녀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씨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내무반에 상사가 들어서면 먼저 본 전우가 『차려』하는 구령 아래 공손한 태도로 상사를 대하는 마음이잖이랴든가, 말 없는 가운데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분위기로써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는 그에 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씨의 가짐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존경심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복종심이다.

복종은 한 마디로 해서 상하간에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군기,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명령만 하고 복종하는 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복종의 원칙은 비단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절대 필요한 것 이다.

언제나 웃어른을 섬기자면 복종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국가에서를 막론하고 복종이 없이는 그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랫사람으로서의 복종하는 것이 미덕인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물론 부당한 명령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복종할 수 없는 중대한 일에 부딪치는 경우에는 끝까지 온건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그때야 말로 예의를 잊지 말고 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상사는 싫으나 좋으나 어디까지나 자기의 상관임을 잊지 말라.

자기에게 한 번 잘 못해 준다고 해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반감보다도 웃어른을 섬긴다는 뜻에서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불편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마음에서나마 도와 줄 생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 등을 제시해 준다면 그 상사는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사람은 언제나 고독감을 없애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없이 든든해진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상사를 대해야만 옳은 병영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즉 전우끼리의 봉사정신이요, 상사에 대한 봉사정신 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상급자는 부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궂은 일이 생겼다 해도 항상 염려해야 한다.

또 상사는 언제나 부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지휘관이 부하를 사랑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군인은 없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하면 사고를 낼 것도 안 내게 되고 동에 자기 자신이 행복감과 감격 속에서 병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이 계급을 지닌 군의 조직사회를 명랑하게 하는 길이요, 나아가서는 정병 강군을 육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병영 생활의 명랑화가 말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백전백승의 기개를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상경하애로 명랑병영을

먼저도 잠깐 말한 바 있지만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장교나 하사관, 밑으로는 이등병에 이르는 차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군 조직상, 다시 말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위에만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상관이 되고, 한 사람은 부하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인간에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국가에서 계급이란 지위를 통해 의무의 차이를 준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군인도 인간인 이상 사사로운 인간관계의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그 배후에는 부모를 비롯하여 처자, 친지 또는 친구들과 연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대는 사회를, 즉 국민을 배경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지닌다는데 귀결되는 문제다.

때문에 군대는 일반 사회와의 접촉이 응당 있는 법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신상에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사람이 몇 해를 지내는 동안 군대와 사회는 별다른 변동이 있다고는 하나 사회, 즉 자기 가정에는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자신의 장래를 큰 기로에 세워 놓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원래 인간의 심리는 자신이 딱한 사정에 부닥치면 자기 혼자만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고 남들은 모두 행복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학이나 자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다.

사실 우리는 군인의 신분으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전우나 상관을 친 아버지나 친 형제처럼 믿고 의존하고 섬김으로써 군대가정, 즉 명랑한 병영생활을 이룩할 수 있다.

군대 가정. 이 새 형태의 가정은 곧 일반사회와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각 개인의 신상에 대한 심각한 문젯거리가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개인에서 상관을 통한 다시 말해서 군대가정에서 의논되고 처리될 수 있으리라.

사회와 연결되는 각 개인의 딱하고 슬픈 일이나 기쁘고 환영할 일을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우로서 함께 슬퍼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영생활의 미풍은 곧 군에서 말하는 상경하애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군 조직을 강화하고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첩경이 상관은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고, 부하는 상관을 친 어머니나 친 형님처럼 믿고 섬기는 데서 정신전력을 굳게 다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우리의 정신력은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에게 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자신의 문제 해결책이나 건설적인 의견을 상관에게 건의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상경의 정분을 두텁게 하는 뜻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문제를 상의하려 할 때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상의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심경이나 환경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의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그 당시 자신의 사적인 문제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닳치고 있는 괴로운 심경을 더욱 무겁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경하에의 병영의 분위기를 좀먹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관은 부하가 어떠한 사적인 문제를 들고 상의에 나섰을 때 상의에 나선 그의 심정을 깊이 인식하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과 성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각자의 인격을 도야하는데도 크게 작용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그 자신의 인격에 좌우되는 알이기도 되기 때문에 군 조직상의 계급에 앞서 한 가정의 형제로서의 위치에서 청취되고 또 처리되는 것이 전우애를 돈독히 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상의하는 문제의 내용이 어떠한 간에 상대방에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인상을 주기 쉬운 그러한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나 하소연하면 해결방책에 대한 훌륭한 방법을 지도받는다는 공손하고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상의에 응하는 상관도 상의하려는 자신보다 더욱 진지하게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한 태도만이 자신의 교양을 저울질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장래를 지목하게 된다.

군대생활이 곧 사회생활과 직결된다.

는 것은 군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때문에 군의 조직 사회에서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게 또는 무관심 상태로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 자신의 마음 바탕을 바로 가지고 윗사람을 위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위할 줄 아는데서 생기는 화에는 그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제 자주국방의 완성을 위해 조국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이룩해 보겠다는 전진하는 민족대열에서 국토방위의 최일선에 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가다듬고 임전태세를 확립하여 그 대열의 낙오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영생활의 명랑화로 상하 일치단결하여 각자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

임전태세의 확립은 각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군기를 지켜 한 덩어리로 뭉쳐 전진하는데 있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오늘날 현대전쟁에 있어서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는 국방,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곧 국방력의 강화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뜻인 것입니다. 국방 그 자체가 경제건설입니다.

◇ 건전한 국민도의와 사회 윤리가 확립되고 그 기반 위에 물질적인 건설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참다운 근대화입니다.

사람이란?

류 홍 렬
 <성대대학원장, 문학박사>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우주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요소라는 뜻에서 삼재(三才)라고도 말하고 있고, 모든 생물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생물이라는 뜻에서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한편 서양에서 발달한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이 그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차례로 만들었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그 모습과 같이 만든 것이 곧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은 그 아들인 사람에게도 말로써 살아가는 재주와 좋고 나쁨을 가리는 양심의 작용을 주심과 아울러 서로 지켜야 할 열 가지의 계명을 내려 줌으로써 형제와 같이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열 가지의 계명이란「①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欽崇)하라 ②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③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④ 부모에게 효도하라 ⑤사람을 죽이지 말라 ⑥간음하지 말라 ⑦도둑질을 하지 말라 ⑧거짓말을 하지 말라 ⑨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⑩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열 가지의 계명은 지구 위의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보아 그 존엄성을 인정 하고 착하고 옳은 일 만을 행함으로써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이룩하라는 만고불변의 가르침 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 만민평등주의의 근대적 민주제도가 생기게 되고 오늘의 인류문화가 이룩되게 되었으나 한편 그러한 가르침을 거슬리어 사람도 물질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보는 공산주의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의 세계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우리 민족도 남북으로 갈려져 서로 만날 길을 잃고 있게 되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쳐 이기고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물리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일으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의 굳센 단결로 먼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실력 제일

조 풍 연
 <소년한국 주간>



실력보다는 운이 좋거나 뒷받침이 좋아 출세하는 시절이 있었다. 학교·직장에서는 돈이 한몫보기도 하였다.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 무슨 제법 우리가 깨우쳐서 현명한 사람이 된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근대화를 부르짖고 나아가 세계 각국과 소통을 하고 본즉 실력이 없었다면 서로 어울릴 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명한 학교를 나오고 직위가 높다고 뽐내어도 실력의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는 상대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에 실력없이 딴 힘으로 올라선 사람은 근대화를 저주할지 모른다.「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차츰 멀썩해 가고 있다.

지금도 그 찌꺼기가 짝 가셔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마디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실력없이 딴 힘으로 출세학자면 전의 몇 배 몇 십 배 힘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적마다 「방맹이질」(커닝)을 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성 냡갑 반만한 종이쪽지에 깨알보다도 작은 글씨로 메모를 해 와 가지고 시험지를 받자 그것을 몰래 꺼내어 베끼었다. 딴 학생들이 비웃기를, 『저럴 지경이면 그 노력으로 공부할 더 하지』

하였다. 이것은 이유 있는 소리다. 그 학생이 예상 문제를 전부 베껴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제로 나올지 모른다.』하고서 몇 대문을 베끼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이다.

앞으로 출세를 「부정 수단」으로 하고자 할 때엔 이 학생처럼 공부하는 것보다도 몇 배 수고를 하고, 그러고도 꼭

들어맞을지 어쩔지 모르는 결과만 하이 기다리고 있게 되리라.

학문이나 기술이 날이 갈수록 세계화하고 있다. 상식도 세계 평준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를테면 우리들의 고유한 예의는 사라지고 세계공통의 예의범이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력만 지니면, 그것은 세계 어디가서나 써먹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 실력의 세계임을 말하는 한 끝이 된다.

자아 완성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김형석
<연세대 교수>



내가 공군 장병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위의 글이다.

옛날 사람들은 자아의 문제를 가버이 여기는 것이 조국을 위하는 듯이 일방적인 생각을 했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생각과 생활을 피하는 것 같다. 실은 내가 50이면 50만큼 조국을 위할 수 있고, 내가 100이면 100만큼 조국을 도울 수 있는데…….

언제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

을 사랑하는 일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일과 일치되어야 한다. 좋은 자식,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많은 것을 배우고, 옳은 것을 지키며, 협력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식, 덕성, 능력,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르게 판단하며 값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자신과 가정의 행복인 동시에 즐거움과 보람도 된다.

그리고는 그 모든 힘과 정성과 뜻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쳐야 한다. 나라를 위하는 동안에 자신은 더욱 자라게 되며 삶의 보람은 날로 높아지는 법이다. 군인이란 애국심과 애국적인 행동에서 행복과 영광과 보람을 느끼며 참된 성공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보다 크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완성과 인생의 빛을 남기게 된다. 조국에의 사랑은 그런 점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우정

차범석
<극작가·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애정과 우정(友情)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다.

애정은 이성간에 싹트는 이른바 사랑이라는 말이요, 우정은 친구 사이에 맺어지는 정의(情誼)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정은 어떤 소극적이며 음폐적인 면을 지니는 세계로 보고, 우정은 양심적이며 순수성이 짙은 세계로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성과의 교제를 하고 있을 경우 제삼자가 그것을 추궁하면 으레 대답은 이런 식의 변명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사람아. 우리 사이는 깨끗해! 우리는 하나의 우정관계로 맺어 있지 결코 애정은 아니야. 그건 순수한 우정이라니까. 정말이야!”

이러한 경우 그 동기나 진전은 어찌되었던 애정보다는 우정이 상위(上位)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애정은 어떤 비밀이나 공리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해 우정은 개방적이며 몰아적(沒我的)인 경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애정이 이성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우정은 동성 간에 이루어진다는 형태상의 변화일 게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라는 애정의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우정은 바로 동성 간에 오고가는 경우와 선의와 협력과 이해의 총화(總和)로 피서 과히 그릇된 생각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에 와서 그 우정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세계인가를 의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애정보다 상위에 놓여 걸 우정 이라는게 가능한 것일까? 순수하고 몰아적(沒我的)이고 희생적인 선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의아심 이 가는 게 있다.

적어도 우정은 남성세계의 특유한 풍속처럼 여기고 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우정이 없란 법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정을 운운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보다 많은 활동무대를 가지고 있고 애정이 남성 대 여성의 사이에 가로놓인

사랑을 뜻하느니만큼 우정은 주로 남성세계에서 더 많이 요구되고 발휘되는 세계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관례인 것 같다.

따라서 우정의 세계에서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하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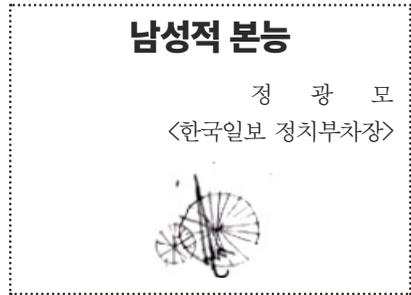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풍조는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학교 동기동창이거나 직장의 동료거나 한 집단의 동지이거나 같은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우정은 점점 희귀해 지고 있는 것이다.

동기 동창이 영달출세를 했으니까 축하회를 열어주자는 축하연에 나가보면 으레 끝장은 싸움질이다. 그 영달을 축하해 주자는 명목을 빌어서 그 누군가가 친구에게 취직 부탁이나 이권 주선을 하자는 사람이 꼭 발기인 속에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축하연에 나타난 사람은 자기열등감이나 시기를 폭발시키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출세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피해망상증(被害妄想症)이다.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서서 가는 한 자기에게는 출세 할 기회가 오기 힘들다는 자기 열등감이다. 그 친구가 잘 됴으로써 자기도 그 덕택을 입는 속도보다는 그 친구를 밀어내야 만이 자신의 출세가 빠르다는 계산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서글픈 일이다. 친구가 위급했을 때는 대개 우정이 제대로 꽃 핀다.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정의로도 같이 걱정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정도 친구가 잘 되는 경우는 하나의 변용(變容)을 가져오는 예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병 든 친구에게 몇 푼의 동정금을 보내는 우정은 쉽다. 그러나 자기보다 앞서가는 친구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낼 줄 아는 우정은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친구의 출세를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우정을 이는 사람이 아닐까?



오래 전 영국영화에 초음속 제트기란

것이 있었다. 어느 비행기회사에서의 이야기. 사장과 기술자들은 제트기로써 음속을 돌파하려고 열중하고 있다. 이 때 비행기는 초음속이 아니었다. 설계사는 급강하를 하여 낙하속도와 제트기의 속도에서 음속 돌파를 시도하려 한다. 헌데 번번이 음속에 가까워지는 순간 별안간 기체가 심한 진동을 일으키고 조종 불가능 상태에 빠진다.

조종사는 그 때마다 수평비행으로 돌아가려하나 위로 올라가는 조정간이 꿈쩍도 안 한다. 기체는 순식간에 지상에 떨어져 풍비박산이 된다. 시험을 거듭할수록 조종사의 희생만이 늘어간다. 그러나 아무도 단념하지 않는다. 새 비행기는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사장의 사위가 테스트 파일럿으로 뽑힌다. 딸은 임신하고 있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위험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듣는다.

딸은 아버지, 설계사, 남편에게 필사적으로 항의를 한다. “왜 그리 무모한 짓을 하느냐. 음속돌파가 시간적으로 급할 이유가 없잖느냐.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해서 공헌하는 것은 뭐냐. 천천히 신중히 확실한 실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항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무도 실험을 중지하려 들지 않는다. 남편도 요지부동이다. 아버지는 딸에게 중얼거린다. “음속은 돌파해야만 해!” 한 가지의 충동이 남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시험은 강행되었다. 영락없이 죽어간다.

그 다음으로 뽑힌 파일럿은 모험성도 많고 조금은 색다른 사나이였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다다르자 순간적으로 거의 체념하듯이 내려가는 조종간을 반대로 힘껏 잡아당겼다. 죽음에 직면한 직전의 착상, 그것이 아이디어였다. 기체는 상승하고 실험은 성공한다. 목숨을 걸고 새로운 진리를 얻은 순간 그 사나이는 절규한다. “잊지 말어. 내리는 조종간이야 그것 잡아다려!” 이 사나이는 자기하는 일을 소상하게 아내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아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시내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이 영화에서 가장 리얼한 남성적 본능을 느낀다. 남성의 보람, 의욕, 모험,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공격성을. 나는 공군의 제트기를 만나면, 마치 남성의 본능을 발견이라도 한 듯, 한참동안 제트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 × ×

노병(老兵)의 일과

김기승
 <대성서에원장,
 서울대, 숙대강사>



저녁식사가 끝나자마자 내 방으로 오면 “딸”이라는 연속방송극이 시작되기 5분 전이다. 사랑하는 두 “딸”과 마누라도 내 방으로 와서 희희재재 딸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나는 침대 위 이불 속에서 “딸”이 끝나기 전에 꿈의 세계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와 동시에 잠을 깨고 보면 시계는 재각재각 설새 없이 소리 내어, 초침을 움직이고,

내 방을 따스하게 해주는 석유난로는 송풍(送風)소리 요란스럽게 석유를 태우고 있다. 태엽을 감아 주었기에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고, 석유를 부어 주었기에 난로가 열을 발하는 것은 물어 볼 여지도 없는 것이다.

“나”라는 초라한 한 인간은 어제 저녁식사의 영양과 여러 시간의 휴식을 취하므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벽 네 시, 기독교 방송은 밤을 지새우고 일하는 이를 위해 고요한 음악을 보내준다. 나는 첫 일과로서 성경의 구약 1장(여호수아 23장), 신약 1장(요한계시록 16장)을 읽는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하는 계시록 16장 15절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색을 한다. 그리고는, 전날 저녁의 네 가지 석간신문 사설과 중요 논문, 네 가지 연재소설을 4·50분간에 독파(讀破)하고 4월에 개최할 14회 서숙전(書塾展)에 출품 할 여러 제자들의 작품 문선(文選)에 종교, 철학, 문학, 동서고금의 시집(詩集)들을 들추어 비망록에 첩해보는 것이다. 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시(詩)중에는 슬픈 것, 하소연, 술(酒), 미녀(美女) 등이 등장하고 있어 그 중에서 인격수양에 귀감이 될 만한 시 또는 문구를 고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티 없는 옥 고르듯이 골라서 쓰며 나는 나름대로 수백 년 근천년 옛 시인 또는 철학자들과의 무언의 대화를 통한 기분을 느낀다.

그 다음으로는 주문 맡은 비문(碑文)의 서체(書體) 배자(配字) 등을 골라서 작은 글씨로 백 여자 쓰는데, 그러노라면 시계는 일곱 시를 가리킨다. 그동안 기독교 방송국과 동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성현의 명언, 세계 여행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친구소설, 연속 방송극 등을 들으며 세 시간의 공부를 끝내는 것이다. 침실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 서실(書室)로 내려오면 벽에 걸린 다섯 가지 서체(書體)로 쓴 글씨와 여러 벼루들이 나를 반겨주는 듯하다. 나는 두 어깨로 몇 번 기지개를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콧등을 스쳐가는 쌀늘한 바람을 느끼며 빠른 걸음으로 사직공원으로 달려가 매일 보는 천신 지신(天神地神)에 게 제사 드리는 넓은 제단과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신사임당 이울곡(申思任堂 李栗谷) 모자(母子)의 동상을 보며 거기서 민족의 얼을 생각한다. 그 언덕으로 올라서면서는 웅자(雄姿)를 나타내고 있는 종로도서관과 아침 일찍 열을 지어 등교를 서두르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보며 이 민족 앞날의 바람직한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다. 도서관 옆 매동국민학교 앞 골목길로 내려오노라면 시립 아동병원에서 들려나오는 어머니아비의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 언덕에 우뚝 선 7·8층 맨손아파트 창에는 여러 남녀의 얼굴이 엿보이고 배화여고 가는 길목 높은 곳엔 여러 그루의 은행나무 높은 가지에 까치(鶻) 두세 동우리가 고색창연한데, 그 사랑의 보급 자리에서는 까치들의 사랑의 합주곡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새들의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연상하면서 체부동 골목으로 들어선다. 거기에서는 빨간빛, 파란빛, 큰 글씨의 작명소(作名所) 간판을 볼 수 있고, 특히 김 XX 작명소 앞에 열을 지어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을 본다. 도시 어찌된 일이나. 정부에서는 한글전용을 부르짖고 미국에서는 아폴로 14호가 세 번째 달을 정복하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러한 미신이 판을 치고 있다. 한심스러운 심사로 중앙청 앞 종합청사 옆길을 돌아오면서 나는 환기장치, 엘리베이터, 승강층계, 화장실이 잘못되었다는 허우대가 멀쑥한 수수깡이 같은 종합청사와 일제 때 독일인의 설계로 지어졌다는 반석 위에 선 견고성 있는 대나무 같은 느낌을 주는 중앙청 청사를 비교해 본다. 나는 피로가 온통 풀리는 것 같은 좋은 기분으로 종합청사 뒤에 자리 잡은 내 집으로 돌아와 석유내음과 떡내음을 풍기는 넓은 서실, 나의 일터를 찾아든다.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 시간.

경험적 취미론

김 중 무



열심히 8·9십 명 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나의 천직인 것이다. 나의 육체는 매우 고달프다. 그러나 나의 서예술은 분초(分秒)로 성장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취미가 무어요?”라는 물음을 당했을 때처럼 난감할 때는 없는가 보다.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사람들 중에

서는 “뭐— 취미라기보다 독서를 좋아하죠.” 잠시 생각하는듯 하다가 이런 투로 취미를 독서에 낙착시킨다.

내가 간혹 취미를 물어보는 30대까지의 양전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독서를 내세우는데 “취미라기보다—” 하고 말하는 품으로 봐서 별다른 취미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없다고 하면 갖출 것을 못 갖춘 것 같은 인식을 받을까 보아 쉽게 생각나는 대로 독서를 끄집어 낸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취미를 끄집어내는 것이지만 “취미요?” 역시 한 동안 생각하다가 “하— 취미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취미 없음을 발견해 내는 사람도 있다.

“뭘, 무취미가 취미지요. 허 허—.” 다소 성격이 덜렁덜렁한 사람들 중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견 듣는 사람을 미소 짓게 해서 다행이고 “그런 거 없어요.”는 군인들 중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귀찮은 질문을 봉쇄하는 효능이 있다.

취미가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행이죠.” 하는 대답에 궁금해서 여행지를 물어보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수학여행 갔던 경험을 털어놓아 맥이 빠지기도 하고 어느 가수 “역시 노래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직업과 취미를 결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질문한 사람의 동의를 구한다.

「사색과 낙서」라고 해서 기발한 취미라고 기대를 갖고 캐보면 “시간 나는 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낙서한다.”는 대답에 더 물어 볼 용기를 잃고 만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임에는 틀림없겠으나 그만큼 취미라는게

언뜻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대답하려면 당황하게 된다.

취미는 개인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기름지게 해주는 영양제이며 뻑뻑한 생활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와도 같은 것이라 하겠다.

취미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경제능력에 따라 그 종류 자체가 원체 다양하다. 연극, 영화, 음악 감상, 운동경기 구경 등 가만히 앉아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편한 취미, 등산·도보여행·낚시 등 중노동(?)으로 즐거움을 얻는 취미, 우표수집, 티·스푼 수집·목걸이 수집·골동품 수집·보석수집 등 이것저것 사들임으로써 쾌감을 얻는 돈 많이 드는 취미, 사색·산책·낙서 등 무자본 취미, 노름·외도·싸움·고자질·사기 등 악질적 취미(?) 등등 취미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기는 우주의 별을 세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취미의 종류가 많다는가 취미의 불가결론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가 과연 자기생활에 윤활유가 되고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를 한 번씩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연극이나 음악회에 애인을 데리고 가면서 고상한 취미를 운운하는 사람도,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섯다」에 재미를 붙여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지면 새롭게 나쁜 취미가 생겼음을 재빨리 자각해야 될 줄 안다.

“한 달에 서너 번 요정 출입을 안 하면 살맛이 안 난다”든가, “한 달에 두서너 번의 외박을 해야 몸이 풀린다.”든가, “남의 말을 이리 저리 옮기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린다.”든가, “술을 먹었다 하면 때려 엎어야 속이 시원하다”든가 이 모든 것이 은연중에 자기 취미가 되었음을 상기해 보시라.

사회규범상, 도덕상, 나쁜 축에 드는 것도 습관화 되다시피 하면 또 다른 의미의 취미라고 할 수 있으니 부지중에 나쁜 취미에 재미 붙이지 않았나 자신을 체크해 보는 것도 건전한 사회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취미는 건전한 것으로 가져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그 건전한 취미에 미쳤다고 할 경우 또 문제가 생긴다.

건전한 취미를 어떻게 조화있게 적당히 살려서 자기의 생활을 기름지게 하느냐에 소홀할 수는 없다.

「일에 미친다는 것」은 즉 자기의 본업에 열중한다는 것이라 괜찮지만 「취미에 미친다는 것」은 잘못하다가 자기의 본업이나 가정생활에 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물론 취미에 미쳤다가 그 길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시에 미친 남편」 때문에, 일요일이면 더 일찍 일어나 부산을 떨어야 되고 온종일 혼자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아내에게는 남편의 취미가 저주스러울 것이며, 농구에 미친 월급쟁이가 회사에 조퇴를 하면서 구경을 갔다가 자칫 근무태만자로 낙인이 찍히기 쉽고, 노래에 미친 여학생이 학교는 안 가고 가요학원을 드나들다가 퇴학당하고 삼류 쇼 단에 낙착되는 안타까운 얘기라든가 미쳐서 좋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우선 미쳐서 나쁘게 되는 결과를 먼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나의 국민학교 때의 취미는 바로 공부였다. 학교가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누가 무어라 하건 우선 책가방부터 열고 그날 배운 것을 열심히 익힌다. 6·25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서 유행하던 병정놀이에도 공부가 끝나야 어울렸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얼음지치기, 만화책 보기 도 공부 뒤로 밀려났다.

6·25가 나고 1·4 후퇴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도 역시 누가 잔소리 안 해도 공부에 취미를 붙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나이에 무슨 다른 재주나 취미도 없었고,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애는 공부에 취미가 붙었어요.”식이었다고 할까. 학생이었으니까 바로 취미가 본업과 일치된 셈이다.

그 취미 덕분에 반장노릇도 하고 부모들이 서로 보내고 싶어하는 중학교에 서도 들어갔다.

중학교 때는 취미가 본업에서 떠나 이상한 데로 흘렀다.

영화를 몰래 보고,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배우사진을 스크랩하는 몹시 바쁜 취미로 변해 버린 것이다.

본업(공부) 아닌 취미에 몰두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으나 학생신분으로서는 내놓고 얘기 할 수 있는 취미가 못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 두 번 보기 시작한 영화가 재미있고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프로그램을 사 모음으로써 (그 때는 영화마다 근사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영화 본 실적을 자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배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덕분(?)에 외국영화배우 이름을 영어로 앓은 자리서 한 30명 줄줄 내려 쓰는 실력(?)을 자랑하게 되고 모은 프로그램도 100장을 돌파했다.

「케이리·쿠퍼」가 맘에 들어 그가 나오는 영화는 최소 한두 번은 연거푸 봐야 직성이 풀리고 권총을 허리에 찬 채 그 큰 키에 꾸부정하게 걷는 품이 어찌나 멋있게 보였던지

그 식으로 크지도 많은 키를 꾸부정하게 하고 길을 걸던 생각도 난다.

현 상업은행 본점 옆 골목에는 당시 미국·일본의 잡지류를 파는 노점이 여럿 있었는데 케이리·쿠퍼의 사진이 실린 영화잡지만 보면 어떻게든지 사서 커다란 스크랩북에 오려 붙였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사진은 스크랩북에 가득 차게 되고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은 나의 이 「비장의 보물」을 구경하면서 케이리·쿠퍼에 대한 나의 해박한 지식과 정열에 놀래 주었다.

이 취미에 미쳐 나는 자연 본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대학 입시에선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신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미쳐버릴 만큼 열중하고 싶은 취미도 없거니와 그 미친다는 것에 대한 결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 내게 마이너스가 될 취미에는 시선을 돌려버리고 만다.

지나치게 타산적이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본업 외에 무엇에든가 미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그래서 지금은 휴일이면 간단한 짐을 꾸려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곤 한다.

꼭 정상을 정복한다는 쾌감을 맛보기 위한 것 보다는 일주일간의 피로를 깨끗이 풀어 버리고 좀 더 밝은 의욕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만들기 위함이라고나 할까. 심신의 영양을 주는 이 가벼운 하이킹을 지금의 나의 취미로 알면서 결코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 취미를 키워 나가고 있다.

버릇과 습관과 사회풍토

중위 이 동 익



◇ 별로 산뜻하지 못한 버릇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버릇이고 보면 「세 살 때 버릇이 여든 까지 간다」는 우리네 속담 또한 어쩔 수 없는 명언(名言)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버릇을 여러모로 뜯어보면 저마다 다 다르다. 가령 눈을 이따금씩 깜짝 거린다든가, 코 위에 제대로 붙어 있는 안경을 가끔 가볍게 치켜 올린

다든가, 아니면 술좌석에서 안주에 유난이 손이 자주 간다든가, 어쨌든 특징적인 냄새를 풍기는 가벼운 버릇들을 한 가지씩은 다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간혹 같은 류(類)의 버릇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버릇을 수행하는 (물론 의식적인건 아니지만) 품의 앵글(행동의 공간성)과 템포 행동의 시간성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는 쾌·불쾌의 기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가령 눈을 깜짝거리는 버릇도 그 깜짝거리는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웬지 뻘지르르하게 복이 없어 보이고, 반면 템포가 느려서 잊어버릴듯하면 한 번씩 찔끔하는 정도라면 그저 구수하게 보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코 위의 안경도 지긋이 올라가는 가운데 손가락의 앵글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알팍하게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매력으로 승화돼 보이기도 한다. 현대,

이 버릇이 버릇다운 강점은 「제 버릇은 개도 못 준다」는데 있는 것 같다. 남에게 구수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버릇들만 몽땅 골라서 일삼을 수도 없는 노릇일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그런 구수하고 매력 있는 버릇들만 골라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또 그 것처럼 밋밋하고 수다스럽고 바쁜 일이 어디 있을까.

◇ 버릇이야 알팍하든 구수하든 심심치 않게 보아 넘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생활 속으로 폭넓게 파고 들어와서 “습관”의 차원으로 돼 버린다면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게 된다.

버리기도 힘들고, 새로 시작해서 얼마간 버티어 나가기도 어려운 것이 습관일 께다.

대학 2학년 때인 듯싶다. 누구나 한번쯤은 시도해 보았음직한 일이지만 별로 야물지 못 한 나로서 그 시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없이 끝나고 말았다. 학기 말 시험이 끝 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다음 학기에도 학교는 공짜로 다녀야될텐데. 이번 방학일랑 은 정말 멋지게 보내자. 우선 골방에서 한 달, 찻집에서 일 주일, 바닷가에서 닷새, 그러다 보면 할건 실컷 해 보겠지. 우선 새 기분으로 담배 한 갑을 사자. 거창한 플랜에 앞서 새 담배를 개봉하는 차분한 스틸과 풍족감·골방을 정리하자·이제부터 시작이다·우선 담배 한 가치·무슨 실마리가 보이는 듯, 성냥을 그어댄다. 날과 씨로 얽혀진 사색 속으로 파묻힌다(한 모금의 흡연이 나를 먼 차원의 나라로 비상시켜 줄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뻘다·폐를 지나 저 발끝까지 스며들도록

깊게 깊게 빨아댄다. 아차! 그 순간 그 거창한 플랜에 대한 그토록 큰 기대가 몽땅 조각이 나는 것 같다. 어지럽다. 현기증, 순간 새 담배 갑은 동강이గా 나 쓰레기통 속으로 쳐 박힌다. 「담배란 게 별로 쓸 데 없다.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기분을 잡쳐 놓다니. 이제 한 모금이라도 피우면 정말 X 아들놈이다. 자 앞으론 정신도 맑아질 게고 무엇도 어떻게 될게고…」 그 순간부터 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책의 글자가 아물거린다. 쓰레기통에 신경이 쓰인다. 그 속의 담배가 아물거린다. 안 되지 다시 피울 수야 없지. 눈을 비벼보자. 몇 줄이 눈에 들어오다가는 다시 오버랩 된다. —쓰레기 통·담배·현기증— 연기 대신 산소를 마셔 보자. 창문을 열자. 말단 세포들도 환영할게다. 다시 아물아물 안 보인다. 담배에 대한 증오를 무엇으로 보상을 할까 찾아보자. 은단—공상스럽다. 사탕—이것도 곤란하다. 그리고 보면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러면 역시 담배로 담배에 대한 증오를 씻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내가 빈혈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시험해서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쓰레기통—담배·아깝다— 에라 피우자. 피워. 부러지지 않은 것들이 한 두 가치라도 남아 있겠지. 꺼내자 「지가 해로우면 얼마나 해로워. 이빨이 까맣게 되면 또 어떠하랴. 피우자 피워.」…….

이렇게 해서 연기와 나와의 싸움은 두 시간 만에 간단히 끝났다.

내가 진 싸움일까?

승패의 기준은 무엇일까? 승패를 구태여 따져봐야 이미 얼질러진 물이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우물우물 얼버무리는 것이 상수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성냥 알맹이이라도 피죄죄하게 뒷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다닌 나요, 또 이빨과 손가락을 까맣고 노랗게 만든 장본인도 나니까」말이다. 역시 습관의 타성은 마리후어나 같은 것인가 보다.

◇ 버릇이야 구수하게 보아 넘길 수 있고 생활의 습관도 개인의 것으로 별 문제가 될 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체의 버릇이요, 습관」일 때 커진다. 즉 사회풍토가 문제다.

작년 일이다.

홍(洪)이라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며칠 전에 2층으로 짓던 옆집이 갑자기 4층이 되고, 5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그 조용한 주택 가 한복판에 5층 건물이 들어서다니. 그날 저녁 건 축과에 다니는 한(韓)이라는 친구와 홍,

그리고 나 셋이서 그 거창한 빌딩의 문을 두드렸다. 오십 줄이 되어 지는듯한 신사가 안방으로 안내한다(일층은 벌써 살림을 시작한 모양이다). 부인과 아들 딸 등 모두 네 식구란다.“진작 찾아뵙고 인사라도 올려야 했을 텐데” 노신사는 점잖게 말을 꺼낸다. “옆집에 사는 홍입니다. 친구들이고…” 맞인사를 하고는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주택가에는 3층 이상 집이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지금 토건업을 하고 있소. 동리 사람들로부 터 양해를 얻고 동회, 구청, 시청에서도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허가까지 난 것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 그렇대두요.” “아무튼 우린 의법 조치 하겠 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시작되어 두 시간동안이나 큰 마찰이 없이 해 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그 노신사는 소위 「옛과 채찍」의 수법을 그럴 듯하게 구사하면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했다. 다음날부터 철거를 위한 우리 들 나름대로의 준비 작업은 시작되었다. 우선 동리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동 리사람들 말인 즉, 그 집은 큰 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하기야 그 집 둘째 에 사는 변호사도 꼼짝 못하고 있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올라가는 건 물론만 보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밖에). 도대체 뺨이 무엇인가. 동회를 찾았다. 구청을 다녀왔다. 시청에도 다녀왔으나 서로 미루고들 있었다. 도무지 어디서 철거명령을 내리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동안 건물은 5 층까지 버젓이 올라섰다. 청차담배를 피우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새파랗게 젊 은 동회(구청, 시청)직원들. 아예 상대도 안해 준다. 그들과 싸우기를 석 달. 할 수 없이 모 국회의 원을 찾아 하소연을 했다. 며칠 후 철거작업이 시작되었 다. 그것도 곧 중단되었다. 하는 수 없다. 시장을 만나자. 홍이라는 친구인 어 머님이 시장을 만나 보았다(만나보기까지 그 비서들로부터 받은 천대는 이루 말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철거가 조금 진전되었다. 그동안 국정감사가 있었 다. 그 집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집은 지금도 5층의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년 봄에 다시 세 울 것이라고 한다). ‘설마 그럴 리가…’ 정말 그렇다.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침해를 해결하기 위 한 법은 그저 고시를 준비하는 학도들의 머릿속에 암기된 지식으로만 살아 있을 뿐 인 것 같다.

◇ 잉어는 담수(淡水)에서만 산다. 맑은 물에서 잉어가 살듯이 건전한 사회풍 토에서만 참다운 민주시민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땅과 숨 쉬고 있는 공기를 살펴보자. 금력과 권력이 판을 치는 사회풍토 (게다가 우리 것이 마멸되어가는 문화적 토양)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요, 정도(正道)를 헤 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공기를 우리가 마 시고 있다면, 근대화니 진진이니 하는 우리의 구호는 한낱 공염불이 아닐까.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진 5층 빌딩을 의법 조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한 소 리가 높다란 벽에 부딪혀 되돌아 왔을 때 그 주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얼마 나 컸겠으며, 거기서 싸트는 ‘나도 큰 벽을 가져야겠다. 는 식의 역작용은 누 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소리 없이 잠식해 온 이 악습을 일소해 버리기는 어렵고도 역겨울 께다.

때문에 우리네 풍속, 우리의 원리를 되살리는 큰 작업이 힘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각계 각층에서 서둘러야겠다. 연극, 음악, 문학계 등 문화계에서는 물 론이요. 학계, 언론계…… 경제계에서도.

온 누리에 누룩처럼 발효되어야겠다.

<명 언>

◇ 우리의 내부에는 늘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다른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양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정욕은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육체의 소리는 쾌락을 찾고 마음의 소리는 의무를 찾는다.

육체의 소리는 물질을 탐하고 마음의 소리는 맑고 깨끗한 것을 원한다 .

육체의 소리는 거칠고 뻑뻑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부드럽고 연하다.

육체의 소리는 악의 뒷골목으로 가자고 하고, 마음의 소리는 밝고 큰길 로 가기를 원한다.

—룻 소—

◇ 잘되고 못되고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는 모두 그대 자신에게 달린 일 이다. 다만 신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못 가고는 오직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뜻이 굳으면 죄악의 좁은 길을 벗어나 넓은 길로 나서게 된다. 뜻이 굳지 못하면 사람은 그 길을 잃는다.

—슈아프—

<좌담회>

병영생활,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참석자>

- 현 병 민 대령 (사병 관리 담당관)
- 최 승 현 중령 (본부대대장)
- 송 종 칠 중령 (군종감실 군종과장)
- 어 수 연 중위 (106헌병대대)
- 박 원 석 상사 (본부대)
- 손 화 익 하사 (본부대)
- 사 회 : 김 원 기 중령 (정훈감실 정훈과장)
- 때 : 1971년 2월 23일
- 곳 : 본부 도서실

사 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병영생활하면 언제나 같은 얘기가 되기 쉽지만, 오늘은 평소의 직무를 통한 실제적인 경험 같은 산 얘기를 해 주시면 합니다.

병영생활하면 주로 그 분위기라든가, 군기 사항으로 경례가 어떠니, 복장이 어떠니 하는 외면적인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만, 보다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정신자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합니다.

한대령: 이제까지 정신무장 강화라든가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무수한 지시와 제도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디만, 먼저 작자의 내실을 기해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생활의 기본태도가 자기충실에 있어야겠고, 자유에 대한 훈련과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최중령: 옛날과 비교해서 현재 사병들의 태도나 정신자세가 정돈되고 발전됐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지켜야 할 일, 책임감 등 자발적인 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병행 실시해야하겠지만 이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특히 사병들은 어떤 명령이 내리면 곧잘 이것에 회의적인 태도로 반발하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되는데 사병들의 정신 교육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있는데 껍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 회: 시대가 진전함에 따라 공군에 입대하는 장·사병들의 자질도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정신무장 면에서 약화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신무장의 해이로 일어나는 군기위반은 대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중위: 106 헌병대대에서 70년도에 일어난 군기위반통계를 사고별로 보면 음주난행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차량위반이 12%, 그리고 복장위반이 10%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병장과 상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병보다는 기간 병의 비교적 잦은 외출, 제대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오기 쉬운 정신적 해이 등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사: 군 기위반의 심리적 요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내면적으로 인간적인 바탕이 덜 되어 있는데다가 외부적인 환경이 거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란 지휘관 혹은 상급자가 부당하게 자기를 억압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동료들이 군기위반을 함다반사로 한다든가 이러한 환경 하에 놓이면 자연히 열등감, 반항심, 자포자기 혹은 동류의식에 휩쓸리기 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에 휩쓸리지 않는 확고한 정신적 바탕을 각자가 지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악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중령: 먼저 장·사병을 막론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군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사회인이 사회도덕에 따라 행동하듯 군기를 지켜 나가면서 이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군인을 양성하면 이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없지 않겠습니까?

손하사: 군대 생활의 긴장이 밖에서는 해이되기 쉽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군기에 관계되는 세칙이 너무 많아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여 범죄를 유발시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 회: 군기에는 두 가지 면, 즉 외형적인 면과 정신적, 내면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한 말씀……

최중령: 군기를 지킨다는 것은 일반 사회인이 사회도덕에 따라 생활하는 것과 같지요.

규정이 다르다 뿐이지 그 정신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점, 이를테면 삼강오륜을 군대에서는 안 지켜도 좋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생활과 군대생활을 동일하게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 회: 그러면 군기 확립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박상사: 군기강조기간을 설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장교들이 평소에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몇 갑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최중령: 술선수범이 절실해요. 스스로 따라 오도록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데 술선수범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현대령: 군기확립을 위해서 양면 작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이 초미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자율적으로 지켜져 나가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 윗사람들의 술선수범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차차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규제, 단속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최중령: 본부대에서 작년도에 군기 위반건수가 주로 음주난행, 복장위반이 주였어요. 그러던 것이 제가 부임한 첫해보다는 그 다음해인 70년도에 현저하게 그 수가 줄었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지휘관과 실제 내무생활을 담당하는 담당관들의 자발적인 행동, 노력 등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송중령: 단적으로 말해서 윗사람이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요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몇 배 언동에 주의해야 해요.

계급이 위일수록 바라보는 눈이 많고 미치는 범위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무엇 무엇을 지키라고 한 것을 먼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하급자일수록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박상사: 특히 상급자는 부하의 개성을 좀 더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출시켜야 할 사람은 외출을 안 시키고 나가는 자는 자주 나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어 중 위: 하급자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는 아량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하급자를 이끌

어 가야 합니다.

군기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 중 령: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대체로 명령의 권위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 주요한 원인은 대체로 상급자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무생활만 하더라도 상급자는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부쳐서 외출하면서 하급자는 무조건 못 나가게 한다 던가 하니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사 회: 군기위반은 영내에서도 일어나지만 영외에서도 역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히 영외에서의 군기위반은 일반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군에 대한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지구에 있는 장병들은 대체적으로 연고지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연고지 배속에 대한 기본정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현 대 령: 몇 개의 특수 분야를 제외해 놓고 대부분이 연고지 배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 회: 연고지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발생한다거나 혹은 사고가 더 적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 대 령: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연고지이기 때문에 자주 외출을 나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보면 사고를 저지르기가 쉽겠지만, 반면에 생활의 안정감에서 사고를 덜 내는 요소가 더 많다고 봐야 하겠죠.

역시 연고지 배속이라는 것이 군기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박 상 사: 제가 본부대 선임하사로 5년간 근무해오면서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 점은 군기위반자에 대한 단속범위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현병대대나 아니면 대대간부 또는 지휘관급에 계시는 몇몇 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군장병이라면 누구나 군복을 입었건 또는 사복을 입었건 간에 다 같이 군풍기 위반자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군풍기 위반에 대한 계몽 선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 중 위: 우리가 노력만하면 군풍기 위반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1969년 4/4분기 군풍기 위반자가 47명이었는데 비해 70년도 4/4분기에는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공본 본부대대의 경우>

사 회: 지휘관이라든가 선임하사관들의 역량, 성의에 의해서 군기 위해 내지 군기위반 행위가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신병교육기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최 중 령: 현재 신병 교육기간이 과거와 비교해서 꽤 짧아졌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 하 사: 막 교육을 마치고 배속돼 오는 신병들의 언어, 동작, 수명상태 등을 볼 때 절도가 없고 패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 중 령: 교육기간의 단축으로 군인의 기본훈련, 기본자세조차도 완전히 익히기 어려울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현 여건 하에서는 이를 보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 회: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사병들에게 투철한 군인정신을 넣어 줄 수 있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군은 기술군이기 때문에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오래 두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 본래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의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 회: 다음은 군기확립 쇄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군종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송 중 령: 누구나 다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먼저 어느 한도를 지날 때 그것이 바로 사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몽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기위반은 곧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군기 밑에서 생활해 나가기란 무척 힘든 것입니다만, 이러한 적응이 어려운 생활 자체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만 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경례군기」부터 철저히 확립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요.

경례는 벌써 기계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아직도 경례한다는 것을 어색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하사: 먼저 현재 내무반에 내려오고 있는 구습, 예를 들자면 까다로운 신



고제도라든가 구타행위, 오락을 빙자한 도박행위 등 일체의 악습이 근절되도록 모두가 힘써야 하겠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환경 개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깊게 하여 수시로 개인면담을 실시해서 소위 문제 사병의 신상과악과 동료 간의 소외감 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대령: 과거 사병과에서 문제 사병을 선도해 주기 위해 보호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대를 만든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 나안」 농군학교에 파견을 시켜 감화를 받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일전에 참모회의 석상에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 방법이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각 부대 자체에서 지휘관 이하 각 참모들이 문제사병과 결연을 맺어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동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사 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카운슬링을 맡고 계신 군종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중령: 문제 사병들이 왜 사고를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랑의 결핍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 주어 감동을 시킴으로써 올바른 군인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 회: 좋은 말씀이십니다.

흔히 부하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부하의 모든 면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기를 확립시킨다는 것에 못지않게 내무생활 명랑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무생활 명랑화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최중령: 역시 군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사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병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충실한 내무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군에는 내무생활에 대한 통일된 규범이나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훈교제도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극히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 회: 자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사기에 관한 문제도 제외될 수 없겠는데요…………….

최중령: 본부 대대장으로서 저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일을 균등히 배분 이행시키고 있습니다.

반응이 썩 좋습니다. 이것이 신병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위에 대화의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범위를 넓혀 사병과 그의 가족을 회식에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여흥을 즐겼습니다.

사 회: 저도 본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맘모스 회식은 최초의 일로 기억하는데요,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최중령: 성과 100%지요.

군대에 대해 무관심했던 부모들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 회: 과거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인데요.

군대와 가정과의 연결성이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군요.

그러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활태도에 안정감을 주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최종령: 사 병 을 직접 다루고 있는 실무자로서 일과 후의 시간 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취침시간이 10시인데 사무실 일과 끝 후에 사병들이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보통 6시입니다.

나머지 4시간을 이용해서 사병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학과장을 설치했지요.

여기서 주로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는데, 다행히 본부대에 미국유학중에 입대한 사병이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야 될 사병들에겐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상사: 내무반 전원이 꽉 짜여진 생활, 절도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활기 있는 명랑한 내무생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령: 본부대대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각 부대에 두루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 회: 이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건전한 생활태도의 확립을 위해서 간단히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손하사: 먼저, 고운 말을 써야 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 제대로 실천 안 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요, 상호간의 대화를 부드럽게 해서 제반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령: 건전한 생활태도확립을 위해 거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집약된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우리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건전한 생활태도의 확립은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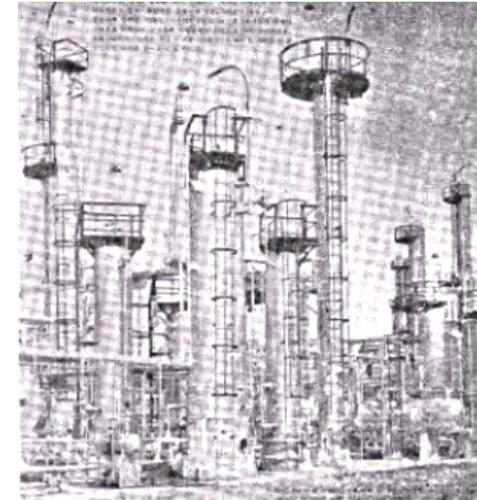
사 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는 중단 없는 전진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확고한 정신무장과 끊임없는 전진으로서 정병강군이 되기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며, 이 좌담회가 군 기본자세확립과 병영생활에 따르는 군기문제 등을 운위하는 마지막 좌담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70년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허 동 명

【1】 중진국 대열에 설 우리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에 제1차 계획을 통하여 공업화에 의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굳히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경제자립의 거보를 내디뎠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추세를 몰아 경제성장을 계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와 학계가 중지를 모아 1972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성안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1976년의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그려보자.

첫째, 국민 총생산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9%로 성장하여 1976년에는 약 2만 4천억 원의 수준에 달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는 중진국형으로 고도화 될 것이다.

한편 일인당 국민소득도 375불 수준에 이르게 된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둘째, 상품수출은 36억불에 달하게 되고 용역을 포함하면 40억불 이상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수출은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함은 물론 농어민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수리 가능한 지역은 완전 수리화되며 경지 정리 작업도 거의 완성되어 농업기계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경영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다.

넷째, 공업부문을 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15%의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이끌고 나갈 것이다. 또 수출 능력은 확대되고 국제경쟁력이 배양되는 한편 각 생산부문 간에 연관도가 높아져 경제성장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기계 및 화학제품 등의 생산에 주력하여 기계류의 국산화가 촉진될 것이고 공업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 간접자본부문에 있어서는 철도시설, 고속도로, 항만시설 및 컨테이너 시스템 등의 균형적인 확대를 통해 화물유통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한편 통신시설의 확충 개량과 다목적댐 건설 및 지하수개발 등의 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여섯째, 대도시 인구집중을 분산하고 지역에 알맞은 개발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며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2] 변모될 우리의 국토

국토는 국민생활의 바탕이며 그릇이 되는 것이며 현재의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생활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러나 이같이 귀중한 우리의 국토는 민족상쟁의 비극적 역사를 치루는 동안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이와 같이 피폐한 국토를 새로이 건설하고 가꾸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속도로는 국토를 가로질러 뻗어가고 있으며 항만은 획기적으로 확충되었고 댐은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국토를 낱알이 변모시켜 가고 있다.

1) 뻗어나갈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우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송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고 수송량이 과중하게 철도에 의존하는 것을 절감시키기 위해 건설되어야 한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이제 고속도로 건설 10개년 계획에 의해 앞으로 새로이 건설될 고속도로를 살펴보자. 1971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태백산지역과 국토의 심장부인 경인지역을 꿰뚫어 연결하는 총연장 250km의 서울 - 강릉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1971년까지 거의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 고속도로는 총연장 269km의 대전과 순천 간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호남지역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1972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더 많은 고속도로가 뻗어나가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할 것이다. 우선 이 기간 중에 동해안을 연결하는 총연장 133km의 삼척 속초 간 고속도로를 완공할 것이고 남해안을 연결하는 부산 여수 간 총연장 238km의 고속도로가 완성 될 것이다. 이밖에 대구와 진해, 포항과 삼척, 광주와 목포, 전주와 군산, 포항과 경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망이 전개될 것이다.

2) 모든 국토는 포장도로로

1970년대에는 수송구조가 지금까지의 철도위주의 수송체계로부터 도로 부문에 보다 중점을 둔 수송체계로 불가피하게 변화할 것이므로 도로의 포장이 시급하다.

따라서 도로포장을 위해 정부는 도로포장 10개년 계획을 성안하여 곧 추진할 예정이다. 동 계획에 의하면 1976년에 전 국토의 약 7할을 모두 포장할 것이며, 1979년에는 전 국토 8,100km를 완전히 포장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약 470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 국토가 포장되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지면 완전히 국토의 도로체계가 완성되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보는 모세관과 같은 역할을 이 포장도로가 담당할 것이다.

3) 대규모 항만의 개설

1970년대에는 대규모 장거리 화물은 철도로 수송하기보다는 해상으로 수송하게 될 것이고 국제무역량이 대폭 확대될 것이므로 현재의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제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인천항은 하역능력이 542만 톤으로 늘어나 5만 톤급 선박을 비롯한 19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부두에 대어 즉시 하역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목호항도 무연탄 해송에 매우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을 대폭 확장하여 1만 톤급 선박 2척을 비롯하여 5척의 대형 선박을 동시에 접안시킬 수 있는 대규모 항만으로 확충될 것이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이밖에 포항항은 종합제철 완공 이전에 금년까지 항만시설이 완성될 것이며 울산항도 하역 능력이 대폭 확장될 것이다. 이밖에 중소항만도 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이 서둘러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항만을 건설,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이 촉진되고 수송이 능률화됨과 동시에 대외무역이 촉진될 것은 사실이다.

4) 공업단지

계획성 있는 공업단지정책을 실현하여 내륙공업단지와 임해공업단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토의 곳곳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공업 단지는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적정규모, 산업교두보구축,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분업, 지역자립성 강화, 공업지구의 계열화와 대단지 화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

5) 한해와 수해를 이겨내는 국토

우리나라의 한·수해의 피해는 연간 10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의 하천을 잘 이용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양강 댐이나 안동댐과 같은 다목적댐의 건설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 나갈 것이다.

이로서 수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홍수피해도 예방이 된다. 이밖에 산림을 적극 개발하여 지하수 개발사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 한발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댐이 곳곳에 건설되고 녹지와 산림이 울창이 덮이는 날 국토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자연의 힘은 우리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3] 40억불의 수출 달성과 경제자립

후진국 경제개발에 있어서 수출의 증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경제의 사활(死活)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근년에 선진제국은 자금자족을 위한 원료혁명을 실현하였고 선진국 자체의 보호정책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개발도상국가의 수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활로(活路)의 개척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경제의 총력을 수출에 둔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제 제3차 경제개발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계획에 의거하여 우리의 수출액이 얼마나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매듭짓는 1971년에 이르면 상품수출은 당초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의 목표 5억 5천만 불의 2배 이상이 되는 13억 불을 수출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최근 확정된 수출목표였던 10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목표인 것이다. 이 때에는 상품수출 13억 불에 용역수출 4억 4천만 불까지 합쳐 총 17억 4천 4백만 불의 외환을 수취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1970년대의 중반기이며, 제3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는 1976년에 이르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출 신장률을 연장시켜 상품수출은 약 36억 불선까지 올릴 것이며 용역 수출도 약 5억 불선을 넘어서게 될 것이므로 총 수출은 40억 불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편 이 때에는 부득이한 개발수요는 수입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나 국내 원료산업을 개발하고 수입 대체를 촉진하여 대외 거래상의 무역적자를 대폭 축소시켜 경제 자립으로의 거보를 내디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기에 이르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을 완전히 충당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적자를 해소하고 대망의 경제자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1970년대를 민족중흥의 연대라 한다면 이러한 경제자립은 민족중흥의 초석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형식적인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제자립은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체성 있는 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또 1970년대 중반기에 우리의 40억불에 가까운 수출량은 우리 국민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무역 국가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구주(歐州)의 선진국 또는 중진국의 수출량과 비교하여도 막대한 무역량인 것이다.

이러한 수출액의 달성은 단순한 목표의 설정이나 기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무역은 피와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경쟁무대이다.

이러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자면 더욱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요청되는 것이다.

[4]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과 농업의 기계화

식량의 자급자족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밭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70년대에는 전 농토를 수리안전답화 할 계획이다. 1971년까지는 1,176천 ha의 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듦으로써 100%의 수리안전율을 달성할 것이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이로서 갈라진 논바닥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수천년래의 우리 농민의 한발로 인한 비극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농업기계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농토이용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1976년까지는 452,550ha의 경지를 정리함으로써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거의 8할의 경지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 농어촌에서 꼬불꼬불한 논두렁을 따라서 지계를 지고 가는 힘겨운 농민의 모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대신 경운기나 트랙터의 힘찬 엔진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작부체계의 개선이나 병충해 방제 등에도 보다 힘을 기울여 식량증산을 도모토록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1971년에는 양곡수요 9,294천 톤의 양곡을 초과하는 양곡증산이 실현될 것이므로 만성적으로 우리를 괴롭혀 온 양곡 부족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식량의 자급자족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로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농촌 근대화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아가서 이를 달성하느냐의 여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에도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과잉인구로 허덕이는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경제개발계획에 실패한 이유는 제한된 외화를 공업화를 위한 기계를 수입하기보다는 식량을 수입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식량의 자급자족은 197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라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농어민 소득의 배증

초가 속의 대를 이어가며 다만 낙을 모르고 의(衣)와 식(食)에 얽매어 온 농어민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 주자는 것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왜냐하면 농어촌은 모든 겨레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이러한 농어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 성 있는 시책을 강력히 펴 나갈 것이다.

첫째, 경제작물을 적기 적작의 원칙에 의하여 주산단지화를 도모할 것이며 집단 생산에 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주산단지 내에 처리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생산과 더불어 처리가공을 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주산단지를 전국 농어촌에 순차적으로 파급시킨다. 1971년까지 국고보조와 투자유자를 주축으로 총 474억원의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자금을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 투입할 것이다. 특히 축산부분에 187억 원, 경제작물에 118억 원, 잠업부분에 99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참가하는 농가호수는 1971년에, 전체농가의 18%인 44만 9천호가 된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의한 총생산액과 총소득은 획기적으로 증가된다.

총생산액은 금년도에 41,446백만 원에 이르게 되며 소득이 25,627백만 원으로 증가, 호당 소득도 22만 5천원이 된다.

나아가서 1970년대에 이룩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여 1970년 중반기에는 더욱 획기적인 소득증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윤택해질 국민생활

1970년대에는 국민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이 375불 수준이 될 것이고 경제성장률과 사회복지를 조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견지에서 지역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므로 국민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여질 것이고 안정될 것이다.

첫째, 인구증가와 더불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있을 것이고 세대가 앞으로 더욱 분화될 것이므로 주택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부족 주택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소득이 점차 향상될 것이고 생활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식생활이 점차 향상될 것이고 미곡만을 위주로 하던 식생활구조도 점차 분식과 육식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셋째, 자동차 보유대수는 제철 및 기계공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동차의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1971년에는 자동차 수가 배증하여 11만 8천 4백대가 될 것이며, 1970년대 중반기에는 완전 한국산 자동차로서 그 수가 22만 9천대에 달하게 될 것이다.

넷째, 1970년대에 이르면 연료 및 에너지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1976년에는 총 에너지 수요가 5천 7백만 톤으로 늘어나 자유로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가 에너지원에 대중을 이룰 것이나 전력과 원자력도 에너지원으로써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1974년에는 617만 kw로 되어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1970년대에는 통신시설이 대폭 확장될 것이다. 특히 전화는 그 보급률을 1971년에는 3.4%까지 올리고 1980년대 초에는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전화 보급률을 10%까지 올림으로서 10세대 당 1대의 전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기술혁신도 병행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의 확장은 물론 기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7] 우리의 과제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모든 밝은 전망도 결코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만난(萬難)을 극복하여 비로소 민족중흥과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했듯이 넘어야 할 수많은 준령과 건너야 할 수많은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으레 한 과제의 해결은 또 새로운 과제를 낳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념과 능력 그리고 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신념과 능력,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올 과제들의 해결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첫째, 국토통일을 위한 국민적 단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는 국토가 양단된 채 해방을 맞은 지 25년이란 세월을 흘러 보냈다.

같은 조상과 피를 가진 같은 겨레가 이렇게 헤어져서 살게 된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뗏뗏한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자유를 구가하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지금 북한에는 자유를 속박당한 채 민주(民主)를, 그리고 자유를 동경하고 있는 우리 동포가 1천 3백만이나 있다. 또한 나날이 황폐해 가고 있는 잊어버린 국토가 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들을 구출해야 하겠다. 그리고 승공을 통한 통일한국을 이룩해야겠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괴뢰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착취와 강제노동의 토대위에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1970년대 초의 무력 적화통일을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간첩의 대량침투, 그리고 휴전선의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바로 이들의 전면전을 위한 전초 전략이요 탐색전인 것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경제건설을 늦추지 않으면서 더욱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그들의 도발행위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거나 약해진다면 우리의 승공통일을 향한 조국근대화 작업은 중단되거나 백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것이다.

이들의 도발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 예상되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할 정부의 방침이나 국민의 마음가짐 그리고 단결이 더욱 확고해 질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룩한 조국근대화와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여 승공통일의 국민적 염원을 달성 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따라서 국민의 단결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때이다.

모래가 알알이 있을 때 그 모래는 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모래가 시멘트와 함께 몽친다면 무서운 힘의 콘크리트가 되어 고층건물도 거대한 교량도 되는 것이다.

단합과 협조! 이 단합된 힘과 협조하는 마음가짐 속에 우리의 민족중흥의 대과업도 승공통일의 민족적 성업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 모두 중상과 모략 대신에 이해와 관용을, 그리고 부정과 아집 대신에 긍정과 양보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꿈에서도 그리는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해 단합하고 협조해야겠다.

둘째, 저축의 증대와 생활의 합리화를 기해야 하겠다.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절약해서 저축함으로써 마련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모여서 공장도 되고 댐도 되고 도로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내 저축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에서 원조를 받거나 차관을 들여와 공장이나 댐, 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총 투자 중 외국의 원조나 차관으로 마련된 자금이 많았으나 이것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에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금리현실화를 단행하여 저축여건을 마련했고 아울러 예산의 소비성 경비를 절약하여 투융자에 보다 많은 부분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정도로서 만족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자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더욱 더 국내저축을 늘여 고도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모두 국내저축으로 마련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절약해서 저축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잘 살고 또 우리 후손들을 잘 살게 해 주자는 것이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정부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6년대에 21.9%의 국내저축률을 계획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성패는 사실상 이 국내저축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소비를 억제해서 저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식량자급과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겠다.

제3 공화국 수립 후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였고 수리관개시설을 만들었고 개간간척을 하여 농경지를 넓히었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하였고 종자를 개량하여 영농의 발전과 농업생산을 늘리는데 온갖 힘을 기우려왔다.

또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로 하여금 특용작물을 재배토록하고 축산을 널리 일으키고 잠업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농정책을 써왔다.

우리나라가 전체 걷어 들이는 세금 중에서 농어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은 약5%에 지나지 않지만 투자는 전체 투자액 중에서 약 26%를 농·어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중농정책에 의하여 그동안 농민의 소득은 크게 증대하였고 식량은 한해를 겪은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그 생산이 증가되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산의 밀바탕이 원체 약하고 기후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고 또 일정한 면적에서 생산되는 소출량도 적은 편이며 더욱이 판매하는 농업이라기보다는 영세소농으로서 자급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식량을 자급자족 못하고 매년 막대한 식량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기필코 자립경제를 달성하여 조국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 취업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 이상 개간 간척으로 농경지를 넓힌다. 또는 단위당 생산량을 높인다 해도 매년 늘여가는 인구에 맞추어 식량을 풍부히 생산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 식량을 적절히 소비한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 쌀 위주의 소비 형태에서 잡곡을 보다 많이 소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 소비구조를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조국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호응으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하겠다. 우리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의 낡은 생활관습과 서로를 기만하고 헐뜯는 습성이다. 이러한 생활관습과 습성을 고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자립은 어려운 것이다.

과거 우리 국민의 생활태도는 굶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옛사람들의 양반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았고 열심히 일하여 부지런히 모아 내일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등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을 속이는 습성이 아직도 일부 국민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돈 버는 것에 눈이 어두워 가짜 약을 만들어 팔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등 온갖 사회악에 의하여 빚어지는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 뉘우쳐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범죄는 가난 속에서 싹트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속적으로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가난을 박차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 때에 남을 시기하고 남의 재산을 탐내기에 앞서 내가 일해서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근면과 절약, 협동과 자립정신, 그리고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는 그러한 생활태도는 곧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이룩하여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경제개발을 촉진하여 하루속히 조국을 근대화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토대위에서 평화적으로 국토통일을 성취하자자는 것은 우리 세대의 지상과제인 동시에 우리들의 뚜렷한 전진목표이다.

◇ 국력이 약하면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일어서려면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은 흥망성쇠의 기복이 무상했던 인류 역사의 산 교훈입니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탄도탄

중 령 · 홍 성 표

1. 현 전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술적인 CAP

과학 발전은 확실히 Jump는 없고 단계적으로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군사 무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여기에 제3세대의 무기라고 말한 적은 바로 문제로 제기된 ICBM이 그만큼 역사가 짧다고 함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가 짧으면 그만큼 많은 발전과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난 무기도 드물 것이다. 이유는 1957년 8월 소련이 최초로 ICBM을 발사 성공시켰을 때부터 오르내렸지만 그의 위력은 핵탄을 적재하므로 문자 그대로 궁극무기이고 가공할만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불과 14년 밖에 흐르지 않은 사이에 제3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은 확실히 빠른 발전을 이룩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기가 미·소 양국이 동서 양진영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ICBM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2차 대전 중 미국 원자폭탄 제조에 관여했던 원자과학자 웨일 박사는 2018년대라는 책 속에서 미국의 원자폭탄의 발전 제조는 평화시 라면 30~50년간이 소요될 것이었으나 전쟁시였기 때문에 불과 3~4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술회하고 있음은 실감케 한다.

현재는 전시는 아니라하더라도 전후의 냉전시대로부터 동서냉전 해빙시대 그리고 최근에는 상호평화공존의 시대로 왔다고 하나,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날 잠재요소는 다분히 남아 있어 열강국은 군축을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군비증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미·소 전략탄도탄에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년간 미국은 소련보다 훨씬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뒤떨어진 공백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조야에 떠들썩했던 Missile·CAP 시대를 돌이켜 보건대 사실과는 상당히 편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1961년 말 미국은 54~63기, 소련은 54~75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고 미국과 영국 정보소식통이 전해 왔으나 64년 초에는 미국이 ICBM가 475기, POLARIS가 192기로 소련의 ICBM기와 잠수함발사용 유도탄 100기씩 보유하는데 비하여 대등할 수 없으리만치 미국이 훨씬 우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외지에 발표되었지만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발행의 Military Balance (70~71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 국		소 련	
	ICBM	SLBM	ICBM	SLBM
1965	854	496	270	120
1966	904	592	300	125
1967	1,054	656	460	130
1968	1,054	656	800	160
1969	1,054	656	1,050	160
1970	1,054	656	1,300	280

이상의 숫자를 보건대, 미국은 ICBM에서 Minuteman이 1,000기이고 TITAN-II가 54기 그리고 SLBM에서는 POLARIS A-2형과 A-3형으로 보고 있다. 소련은 내역에서 SS-11(SAVAGE) 800기이고 소련이 자랑하는 SS-9(SCARP)는 280기, 기타는 SS-13 그리고 SLBM은 SAEK가 150기, SAW-FLY가 80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얼핏 숫자상으로 보고 군사력의 우세를 논하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도그럴것이 기술적인 문제에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같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의 우열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제3세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고 왜 제3세대 전략탄도탄이 출현하게 됐는가를 논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ICBM에서 제1기에 속했던 액체연료로 된 ATLAS, TITAN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TITAN-II 54기만이 남아 있으며 고체연료로 된 ICBM에서도 MINUTEMAN I형은 불과 400기고 잔여 600기가 MINUTEMAN-II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SLBM에서도 656기 중에서 사정이 1,500N/M 인 POLARIS A-2형이 80기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A-3형으로 그의 사정은 2,500N/M이 된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핵탄두 문제에서는 TITAN-II는 5~10 MT(TNT 500만~1,000만톤)이고, 기타 MINUTEMAN, FOLAES는 불과 1MT톤 밖에 되지 않아 총 MT급을 보면 약 1,700MT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소련의 경우는 SS-9(SCARP)는 서방측 Masscom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의 사정은 6,000N/M로 미국과 같으나 액체연료를 적재하고 있어 그의 운반 가능한 핵탄위력은 20~25MT(TNT 2,000~2,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28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MINUTEMAN급과 유사하다고 하는 800기를 보유한 SS-11는 고체연료가 아니라 액체연료이나 소형이고 조작하기가 액체연료 계통에서는 용이한 저장용인 것 같으며, 그래서 대량 생산하여 실전용으로 배치한 것 같은데 그의 사정은 5,000~6,000N/M이나 그의 핵탄 운반능력은 미국의 MINUTEMAN급보다 훨씬 큰 5MT급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소련의 유일한 고체 연료인 SS-13의 핵탄은 1 MT인 것으로 추측된다. 잠수함발사용 탄도탄도 SAEK는 15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정은 1,000N/M 미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150기는 아직까지 미국의 핵잠수함과 같은 것이 아니라 채래식 “디젤”잠수함에 의하여 발사되고 나머지는 핵잠에서 발사되나 SAWFLY만이 한 척의 핵잠수함에 16기를 적재할 뿐 기타는 3~6기 밖에 적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위에도 핵잠이라 하더라도 과연 수중발사가 가능한지는 아직 의문시 되는데 그 이유인 즉 69년 말부터 수중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아직까지 자신 있는 수중발사용 작전용 핵잠이 출현하지 못한 것 같다.

기타 수중통신문제 등이 있으나 모두 제쳐놓고 다만 피상적으로 본 미·소 간의 질적 문제를 다루어 보면 ICBM 분야에서 미국은 MINUTEMAN급을 이미 1962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것을 소련은 70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SS-13은 아직 실험단계를 겨우 지나 작전용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12월 30일 레어드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로는 12월 25일과 29일에 각각 1회씩 소련이 SS-13의 발사실험을 실시한 바 여기에는 복수탄두(MRV)를 적재한 흔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료문제를 두고 고체, 액체를 구태여 꼬집어 논하느냐 하면 액체연료의 장점은 추진력이 강하여 원거리 또는 적재량이 많아 소련의 SS-9과 같이 20~25MT,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미국의 TITAN-I와 같이 5~10MT급을 적재하고 6,000N/M을 능히 비행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액체연료는 발사하기까지는 한 시간 이상이고 저장용(연료만)은 15분간이 소요하여 조기경보 능력으로부터 발사하기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거의 줄 수 없는데다가 발사할 때에는 꼭 지상에 노출시킨 후 이어야만 하므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의 피해가 큰 것이다.

이 말은 지하발사대이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단점이라는 뜻이다. 지하발사대에서 고체연료 ICBM은 2년간 그대로 발사대에 준비했다가 발사신호가 나오면 불과 39초 만에 발사되면 동시에 지하발사대 뚜껑이 열림으로 피해가 적은 것이다. 피해는 미국의 지하발사대의 경우 1MT 급이 1.2km(1,200km) 범위 내에 투하되어야 발사대가 파괴된다. 만일 표면에 노출되었을 경우 24~48km 범위 내의 ICBM은 파괴당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지하발사대의 이점은 바로 파괴도에서 훨씬 범위는 단축시키는 것 뿐 발사시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발사할 때에 소요시간만 제외하면 항상 지하발사대에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역시 보복력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발사대를 미국은 모두 구비했으나 소련은 아직 반수 밖에 하지 못했다. 그 이유인즉 액체연료의 지하시설비는 미국 TITAN의 지하발사대를 9기의 발사대를 건설함에 소요되는 예산은 5,200만 달러로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건설의 기술도 미사일을 제조하는 이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체연료가 갖는 단점은 그의 추진력이 약한데다 목표거리까지는 도달하여야 할 절대거리 5,000~6,000N/M이기 때문에 그의 운반핵탄두가 불과 1 MT급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핵잠수함을 보면 미국은 41척이 모두 POLARIS 16기씩 적재하고 수중발사가 가능하나 소련은 SARK 150기 중 105기를 아직까지 채래식 잠수함에 적재하고 있으며 기타도 3~6기 밖에 적재하지 못하고 SAWFLY도 16기씩 적재하나 그의 능력은 사정이 1,500N/M로 미국이 이미 폐기시킨 POLARIS A-1형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위에도 수중발사가 아직 완벽을 기하지 못 한다고 볼 때 미국의 기술보다 거의 7~8년 뒤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의 격차가 향후 그대로 유지 될 것이냐는 의문이다. 1957년 소련이 ICBM을 최초발사 성공시켰을 때 미국의 MISSILE CAP 논쟁이 심하던 때를 연상해 볼 때 미국은 그 후 ICBM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불과 2~3년 내에 오히려 소련을 능가하게 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잠재역량도 있었으나 집중적인 노력은 그의 발전템포를 훨씬 빠르게 하였고 때문에 소련이 향후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세대의 발전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표면상에 나타난 바로는 아직 이의 기술적 CAP를 상당히 압축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2. 제3세대무기출현의 이유

앞서 본 도표를 통하여 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미국은 1967년도를 정점으로 ICBM분야뿐만 아니라 SLBM 분야에서도까지 수적인면에서 전연 증가가 없었다. 반면 소련은 1967년까지 별로 큰 템포를 보이지 않다가 그 후부터는 적어도 ICBM 분야에서는 30~50% 이상의 빠른 증가를 보였으며, SLBM 분야에서는 67년과 68년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가 1969년부터 역시 23~75%의 빠른 증가를 가져와 SLBM은 아직까지 질적 문제를 제외하면 미국보다 반(半)수도 못아가지 못하나 ICBM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수적으로만 볼 때 미국은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나 소련은 ICBM은 1975년까지 약 2,500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한편 SLBM 분야에서도 현 미국 수준인 656기를 상회할 것이라고 미국의 레이어드 국방장관이 이미 1969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은 제3세대의 전략무기의 출현을 예측한 미국의 방향이 수적으로 더 증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소련은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제3세대의 출현의 계기를 논하기 전에 수적으로 파괴력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면 미국은 1972년도를 예상해서 소련을 공격함에 절대 파괴소요량을 공식은 아니나 학자들이 내놓은 바에 의하면 소련인구는 2억 4700만 명으로 보고 이중 도시인구는 1억 1600만 명으로 추산한 계산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파괴소요량이 산출된 것이다.

IMT급상당	총인구시설		공업능력%
—	100만명	%	—
100	37	15	56
200	52	21	72
400	74	30	76
800	96	39	77
1,200	106	44	77
1,600	116	47	77

이상의 도표에서 볼 때 400개라는 한계를 찾아 볼 수 있다. 1 MT급 상당의 핵탄 400개이면 소련의 1972년 인구 2억 4,700만 명중 30%인 7,400만 명을 사망케 할 수 있고 공업시설은 전체의 76%까지 파괴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만일 1MT급 상당의 핵탄의 투하수가 증가하더라도 인구의 살해 수는 점차로 증가하나 공업시설의 파괴율은 전연 변화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인구는 30%까지 사망한다면 재래식 무기이라면 몰라도 핵탄은 1차 방사능만 아니고 잔류 방사능에 의하여 계속 사망케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 공업시설은 76%까지 파괴되면 도저히 재기불능이므로 이에 추가해서 핵 공격할 만한 이유가 없어 총 핵탄 소요량의 한계는 결국은 미국으로 볼 때는 소련에 대하여 1 MT급 상당의 것 400개이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파괴가능한 양을 보면 가장 알기 쉬운 표현으로 1만 MT(IMT급 10,000개)이면 미국이 무방비 시 60일 이내에 미국 전인구의 80%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2만 MT인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전인구의 95%를 사망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보다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만 MT(TNT 10억 톤)이면 소련인구의 75% 그리고 2만 MT이면 약 90%의 인구를 사망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만MT이면 소련은 80%, 미국은 75%까지 각각 60일내에 모두 사망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인구는 공업능력 파괴와 상이하다. 인구살해에는 소형 핵폭탄보다 대형 핵폭탄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업시설은 단위 단지에 조성되어 있어서 명중률이 좋은 소규모 핵폭탄이 훨씬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미국은 어디까지나 공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파괴위주인 대군사력전략(Counter force strategy)인데 반하여 소련은 20~25MT급의 SS-9 또는 5MT급의 SS-11를 작전용으로 대량 배치한 것을 보면 대도시전략(Counter city strategy)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

전략면에서 보는 견지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 수적으로 그 이상 전략용 탄도탄을 배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거나 느낀다거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탄도탄의 배치를 보고 추리해 볼 때 위에서와 같은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 가본 것뿐이다.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 상호간에 억제력 개념이 도입되어 핵무기 운반수단의 최소 억제력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하느냐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하고 통계를 1965년도이지만 오늘날에도 그의 파괴 소요량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게재하고 싶다. 다만 그 당시의 핵탄 적재 장비에서 소련의 핵잠수함이 1척당 3기씩 적재하였다는 것과 POLARIS형은 미국이나 소련 다 함께 0.8MT(TNT 80만 톤)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이 다를 뿐 오늘날까지 유효하다고 보겠다.

미 국			소 련		
운반수단	수량	위력합계 (MT)	운반수단	수량	위력합계 (MT)
POLARIS 핵잠12척	60	42	핵잠 15척	45	32
ICBM(Minuteman)	75	75	ICBM	8	24
TITAN-II	15	75	IRBM	56	28
계	150	192	계	109	300

수적 증가는 단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라 속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물론 수적인 문제가 도외시될 수 없는 비중을 크게 잡는 요소이기는 하나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해 보면 공격 면에서는 명중률 파괴능력을 들 수 있으나 반면 방어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상대방 국가에 의해서 격추되는 율과 또 지상에서의 파괴율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들추어 보면 명중률에서 이미 지하발사대 하나를 파괴함에 1MT급이면 1.2km범위 내에 투하되어야 한다고 간단히 논했다. 명중률을 볼 때 1969. 4 Newsweek지에 의하면 SS-9는 6,000N/M를 비행하여 그의 투탄오차(CEP)는 3/4~1miles(1,200~1,600N/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969. 6. Spaco Aeronautics지에 의하면 ICBM은 CEP가 6,000N/M 비행하여 915m에 비하여 소련의 부분궤도 폭격체제(FOBS)는 19,000N/M(약3만km) 비행한 후 3~5마일의 명중오차를 가졌다고 게재하였다. 여기에서 볼 때 불과 2개월간의 차이로 1,200m에서 915m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정확 하느냐는 1969. 7. 군사연구지가 발표한 69년 4월의 Midway 부근에 실험 발사한 3개의 탄두가 각각 투탄오차 800m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15m가 근사치인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다탄두(MIEV)는 1969. 7. 9일자 Newsweek지에 의하면 투탄오차는 .03마일(480m)이라고 볼 때 명중오차가 얼마나 근접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중률은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탄오차를 600피트까지 근접시켜야만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아마 600피트의 접근은 그렇게 먼 장래 문제가 아니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 같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다음은 파괴력인데 MINUTEMAN의 지하발사대의 견고성은 300psi이다. 만일 핵탄이 0.5마일 투탄오차인 경우에는 파괴 위력별로 본 파괴력은 20MT는 85%, 5MT는 60%, 1MT는 25%이다. 역으로 폭발범위는 300PSI의 경우 1 MT는 500피트, 5MT는 1,200피트, 20MT는 2,000피트까지 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 파괴력은 이미 핵폭탄위력에 상세히 발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명중율과 파괴력을 합친 도표를 훑어보면 미국의 MINUTEMAN기지 파괴를 예상해서 투탄오차 파괴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탄오차(마일)	0.1	0.2	0.4	0.6	0.8	1.0
파괴율(%)	100	84	41	22	16	14

투탄오차(마일)	0.2	0.4	0.6	0.8	1.0
파괴율(%)	100	79	58	37	23

투탄오차(마일)	0.3	0.4	0.6	0.8	1.0
파괴율(%)	98	96	84	68	50

위의 표에서 본 결과 명중률 100%는 1 MT급이면 0.1마일, 5MT는 0.2마일, 20MT는 0.3마일에 투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1마일 내에 20MT는 50%는 파괴가능하나 5MT는 23%, 20MT는 14%로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1MT와 20MT는 20배의 위력은 파괴율에서는 1/3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50%파괴하면 사용불능이라 하는데 1MT는 0.3마일, 5MT는 0.7마일, 20MT는 1.0마일이니까 오늘날의 명중률에서 SS-9의 915m, SS-9의 MEV는 800m, MINUTEMAN 0.3 miles는 현시점에서는 기대하는바 접근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중율과 파괴율이 미국이나 소련의 전략 탄도탄의 수적인 한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SS-9 280개를 3개의 탄두를 각각 적재했다하더라도 신뢰성 80%를 산정하면 미국은 MINUTEMAN은 500기는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에 논할 것을 참고로 말한다면 소련은 1,000기의 핵탄만 보유하면 미국의 ICBM기지로 95%~98%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상대방 국가의 ABM망에 의해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소련이 1967년까지 67개소의 TALIN 방어계획을 완성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하여 새로운 ABM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에 저고도용 SPRINT와 고고도용 SPARTAN을 실험 발사하고 있는데, 200억불을 투입하여 50개 기지가 완성된다면 소련의 ICBM 500기는 공중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역산해서 1,000기를 가지면 미국의 전략탄도탄기지 95~98%까지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서 계산하면 1,500기는 가져야만 ABM망에 의하여 1,000기가 남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신뢰성으로 발사 시 또는 공중비행 시 사고로 인하여 실패를 20%를 본다면 1,250개가 필요하고 그 뒤에 95%~98%라는 것을 100%까지 파괴시켜 최소 억제력까지 완전히 파괴하려면 결국 2,000기의 ICBM쯤 필요하다. 사실 전쟁에서 무기의 성능은 계산한 바와 같은 성과를 가져오느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미달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감안하여 현재의 1,300기의 수준을 1975까지 2,500기를 생산 배치할 것이라는 예견이 상기한 바와 같은 계산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기에는 그 위에 기술적인 제3세기의 전략무기의 요소가 내포돼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3. 제3 세대의 전략탄도탄의 출현

지금까지 현 전략탄도탄의 전력(戰力)과 그의 기술적인 발전현황, 그리고 제3세대의 전략 탄도탄이 출현해야 할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소극적 및 적극적인 분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할까 한다.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하발사대의 견고화에 있다. 현재 미 공군의 MINUTEMAN발사대는 그의 견고성이 300PSI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논한 바와 같이 1 MT급이면 1.2km이내에 들어오더라도 파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연약한 파괴정도는 명중률의 증가로 사실상 거의 무력화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여기에 새로운 지하발사대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새로운 방안은 공고화의 보다 증강, 고정기지의 취약성으로 인한 이동성, 다시 이동성은 지상발사대의 이동성과 지하발사대의 이동성으로 나눌 수 있다.

견고화의 증강문제는 MINUTEMAN—III형이 배치됨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MINUTEMAN—IV 및 V형에는

실전에 사용할 전망이 대단히 크다. 견고성은 현재의 15배인 3,000~5,000PSI로 하는 것이며, 1972~73년에는 완성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1MT급 핵탄은 사실상 2.4km이내에 투하되지 않으면 전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 Self ejection 개념에 입각하여 마치 POLARIS 탄도탄을 잠수함에서 수면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가스압축 공기로 하는 방법과 같이 이 지하발사대에 서도 압축공기로 50~75피트까지 상승시킨 후 로켓을 점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이라면 현재까지는 로켓 연소 시에 배출되는 고열과 연기를 빼내는 동굴을 증설했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하발사대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외에 발사대부터 로켓을 점화하던 것이 50-75 피트까지 가스로 상승시키므로 최초의 2G로부터 발사 1.5초 후에는 15G까지 이륙된 다음에 로켓을 분사하므로 1단계 추력의 10%를 절약하여 추진력을 강화시켜주어 사정을 길게 한다거나 보다 무거운 중량의 핵탄두를 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의 건조비용이 현재보다 240%나 더 비싸다는 것과 건조시일이 2~3년 소요된다는 점은 국방비 증액과 하시라도 실용화하는데 난점이 없지 않다.

이동성에서는 미국은 일반 철도 레일 위에 발사대를 적재하고 항상 또는 필요시에 이동하므로 고정 발사대로 인한 취약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적이 핵탄두를 무수히 발사하지 않으면 이 쪽의 보복력을 완전히 말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 나왔으나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포기했으나 생각해 볼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소련의 경우는 무궤도 차량의 발달로 현재 소형 탄도까지 무궤도 차량에 적재하는 방법을 살려서 이를 ICBM까지 적재하므로 우랄산맥 깊숙이 배치하였다가 필요시 이동하면 철도 레일보다 값이 싸고 취약성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미국은 Aviation week지(1969.1.20)에 발표된 새로운 지하 ICBM 기지라는 제목 하에 도면까지 게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시간(Michigan) 지역에 암석지대를 지나 수 천 피트 깊이, 마치 우리나라 남산터널과 같이 구축해서 거미줄 모양의 통로를 만들어 발사대를 지하에서 이동시키려는 방법으로 지역은 3,000평방리로 통로의 총 연장길이는 1 만리(약 4만 5천리)나 되는 것으로써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건축하는데 개개 지하발사대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데다가 취약성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 새롭고 재미나는 사실은 지하발사대를 지하에 구축한다 하더라도 지각은 층이 있고 층은 고성능 핵폭탄이 투하되면 자연히 파괴될 우려가 많아져서 밑에 지하발사대를 설치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수심 깊은 곳에 지하발사대를 설치하면 수심을 뚫고 들어와 해저면까지 도달할 능력의 핵탄은 아직 또는 먼 장래까지 불가능하므로 대단히 좋기는 하나, 그의 건설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욱 큰 단점이 있으나 보복력의 안전도는 더 비할 데가 없다.

소극적 방법의 또 하나는 조기경보망의 강화로써 현 체제는 SPADATS조직 내에 Space Tracking체제, SPASUR체제, OTH(Over The Horizon) 레이더 체제 등과 3,000리의 BMEWS레이더 체제로 되어 현 탄도탄 경보능력은 1968년부터 여하한 로켓으로 발사 후 39초이면 무슨 목적으로 발사되어 왜 발사되며 발사 후 어떤 방법으로 귀환하느냐 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소련의 FOBS의 출현은 새로운 우주탐지망의 필요를 느끼게 했다.

FOBS는 고도 160km에서 속도 시속 28,800km로 15분 비행한 후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 체제로 3분 정도의 조기 경보 능력 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또 하나는 수중의 핵 잠수함으로부터의 발사되는 탄도탄의 탐지 그리고 FOBS는 남극을 통하여 미국에 비행해 올 수 있으므로 그의 대비책 등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은 FOBS를 위하여 텍사스, 뉴저지, 플로리다주 등에 새롭고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하는 한편 알래스카, 그린랜드, 터키에 역시 새로운 레이더로 보강하는 한편 정찰 위성을 더욱 많이 발사하여 지속적인 탐지능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발사한 무인 인공위성은 1969년 8월 현재까지 미국이 500개 중 23개 군사위성이고, 소련은 280개 발사한 것 중 대부분이 군사위성으로 그의 회수율은 미국이 거의 100%이고 소련은 80%를 상회할 만큼 발전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SAMCOS위성은 소련의 ABM 건설 및 지상 미사일기지 증설, 중공의 핵 공장 실험탑 건설과 그 이외에 각종 정보를 수집해 오는 것이다.

또 하나 재미나는 사실은 인공위성에 Multiple Spostrum 탐지방법으로서 수중에서 항행하는 핵잠수함과 고래 또는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대형 어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능하게끔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열에 의한 수중의 변화를 측정하여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방법으로는 다탄두(MIRV)개발, 투탄오차의 향상, 보다 장거리 비행의 핵잠수함발사 탄도탄(ULMS-Underwater Long range Missilo System)의 구상 및 ABM체제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첫째 다탄두(多彈頭)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흔히 다탄두하면 유도되지 않은 핵탄두가 산탄과 같이 퍼져서 투하되는 것이며, 이를 영문자로 표시하면 MRV(Multiple Reentry Vehicle)으로 현재 소련에서 실험 발사하고 있으며 71년내에 실전화 할 것이라는 SS-9(SCARP)의 탄두이다.

다음은 MIEV(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로서 MINUTEMAN-I나 POSEIDON(핵잠 발사용)의 탄두에는 5개 또는 10개의 탄두가 정해진 공격목표를 향하여 스스로 장진되어 있는 “자이로”관성방법으로 유도 공격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개념은 초(Super) MIRV으로 MIRV와의 상이점은 다만 핵탄의 위력이 강하여 지상시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미사일 발사기지, 사령시설까지 파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아 다분히 지하발사대의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가지 종류의 다탄두에 대해서 논했지만 어느 것이나 애당초는 50KT(TNT 50만 톤급)으로 장진할 계획이었으나 점차 강화되어 MINUTEMAN-III형은 170~200KT(TNT 17~20만 톤)으로 장착했는데 POSEIDON에도 이 같은 위력의 핵탄을 10개 장착할 예정이라 한다.

소련의 SS-9는 비록 그의 다탄두가 유도되지 않은 MRV이기는 하나 현재 핵탄의 위력을 5MT(TNT 500만 톤)까지 올리는 한편 3개까지 적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1 MT급이면 10~15개까지 적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다탄두에 대해서 미·소 양국 간에 공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듯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50KT급 다핵두의 경우이겠지만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 1) 10개의 50KT 급 (총 0.5MT)는 200만 대도시 1개소에 대하여 20배의 위력을 가진 10MT급 1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2) 10만 도시에 대해서는 50KT급 10개는 1MT급의 3.5배의 효력을 갖는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 3) 비행장에 대해서는 50KT 10개는 1MT급의 10배의 효력을 갖는다.
 - 4) 지하발사대를 제외한 지상 ICBM발사대에 대해서도 50KT급 10개는 1 MT의 10배의 효력을 갖는다. 단 지하발사대는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Super MIRV가 출현한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 5) ABM에 대항하는 50KT 10개의 능력은 1MT급 단일탄두와 10배의 위력임은 상식화 된 것이다.
 - 6) 다탄두의 이점은 MINUTEMAN-III 5개, POSEIDON 10개이라고 하나 이중 핵탄두는 3개 그리고 7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자방해(ECM)장치를 적재해서 다른 탄두와 똑같은 모양을 갖게 하는 것이다.
- 70년 6월 19일 미 공군 발표에 의하면 MINUTEMAN-III형 1개 소대(10기)가 최초로 「노스타다고」주에 배치하여 작전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핵탄의 위력은 200KT급 3개로 한 것을 보아 2개는 전자방해 장치가 적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자방해 장치를 적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로써 만일 적의 목표에 재돌입할 때 전자방해를 하지 않으면 ABM 유도탄에 의해서 거의 명중될 것이므로 현대전에 입각해서 꼭 적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은 MIRV개발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명중률의 불량과 적극적인 전자방해(Active ECM)의 연구에서 다음 전자방해는 두 가지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1) BLINKER계획으로 소련의 GALOSH ABM용 유도탄의 포착센서라고 보여지는 원거리 VHF레이더 등 적의 레이더에 대하여 같은 주파수로 똑같은 간격을 두번보다 강력한 빔을 보내어 미국의 MIRV탄두의 정확한 위치와 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다.
- 2) BLINDER 계획은 일명 경량 자밍 장치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는 「차프」와 같은 수송적인 전자방해 시 항공전에서는 극히 유치하지만 전략탄도탄에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투탄오차는 이미 현황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최소한 600피트 내에 들어야 함을 지적했거니와 실제 상에서는 0.3miles가 가장 접근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0.3miles이라면 20MT급 이라 하더라도 100% 파괴 가능하고 1 MT급이면 50% 파괴하여 재기 불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좋은 투탄오차로 1개 기지의 지하발사대를 파괴함에는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2개의 핵탄두가 필요하므로 만일 1,000개의 지하발사대를 파괴하여 재생 불가능케 하려면 1 MT급 2,000개가 소요한다는 계산이 나오므로 결국 현 미국의 탄두로서는 소련이 모두 지하화한다면 전 핵탄두가 지하발사대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다탄두를/ 내놓았거니와 현재 200KT급의 핵탄두는 1 MT 또는 20MT급과 같은 명중오차라면 지하발사대를 공격함에는 역시 20KT급 이상이면 투탄오차 600피트 내에 들어 가 명중되어야 만이 지하발사대 파괴가 가능한 것이다.

5,000~7,000N/M 떨어진 목표에 600피트 내에 두발 중 한발이 명중한다는 것은 「공중에 나르는 파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한 소련의 전 「후」수상의 말이 적중되어야 할 런지 모른다.

여기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명중률과 파괴력을 중심으로 소련과 미국이 각각 향후 5개년 내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큰 덩어리부터 내세워보면 Timo(70. 7. 20.) 발표한 미·소 양국 간의 핵탄두 수는 1970년 소련이 2,120개, 미국이 4,918개에서 1975년에 가면 소련은 4,170개, 미국은 10,618개로 각각 증가한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내역을 보면 소련은 ICBM에서 SS-9이 현재 280기이나 앞으로 420기까지 증가되되 각각 3개의 탄두를 가질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은 MINUTEMAN-III이 3개의 탄두 그리고 31척의 핵 잠수에 POSEIDON이 16기씩이고 한기의 POSEIDON에는 각각 12개의 핵탄두를 적재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 전략폭격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나 미국은 533대인데 반하여 소련은 150대 밖에 되지 않아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약간 낡은 재료이기는 하나 Aviation Week(69. 5. 19.) 지에 의하면 소련의 위협과 ABM이라는 제목으로 John S.Foster Jr(국방성 연구개발국장:Director of defence reserch & Engineering)은 1974-1976 사이에 SS-9는 600개의 발사대를 보유하게 되며 한기에 각각 3개의 5MT급 핵탄두를 적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는 1,800개의 핵탄두로서 이중 20%는 실패한다고 보아 1,260개의 핵탄두는 미국의 MINUTEMAN 기지 1,000개소에 대하여 약 95% 까지 파괴 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의 MINUTEMAN 기지는 불과 50기 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의 명중률은 투탄 오차 0.25miles로 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여기에 대해서 Jerome B. Wiesner(MIT 교수이며 전 케네디 대통령의 기술 고문)은 약 80%까지 파괴 가능하여 270기의 MINUTEMAN은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나 80~95%의 파괴는 미국의 ICBM의 최소억제력 밖에 되지 않으며, 이로써 소련에 대한 최대파괴는 기대하기 곤란하다. 다만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냐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핵탄두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렇다고 소련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75년까지 ICBM은 2,500기 그리고 핵 잠수함 발사탄도탄은 미국의 수를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MIRV의 작전화를 꾀하여 70년 말까지 100기를 실전화 하였고, FY 73년까지는 520기를 실전용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MINUTEMAN-II 형은 1975년까지 600기 이상은 배치하지 않으며 나머지 400기는 II형 그리고 TITAN-II 54기는 당초 계획은 72년까지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75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SLBM은 현재 POLAES A-2, A-3형 41척에 656기를 적재하고 있으나 70년 8월 3일 MEV를 적재한 POSEIDON의 제1회 수중발사실험을 실시했는데 탄두는 몇 개라고 되어있지 않으나 사정은 5,000km(약 2,500N/M)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아 사정은 A-3형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POSEIDON은 71년부터는 실전화하여 75년까지는 31척에 16기씩, 496기를 당초의 계획은 50KT 10개씩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12개까지 적재할 것 같다. 한편 소련은 ICBM에서 SS-9는 5MT급 MEV 3개가 원칙으로 되어있으나 71년 여름까지는 MIRV의 실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IMT급이면 15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이것이 실전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SLBM은 연간 Y급 핵 잠수함 4척씩 건조하고 있다는 바 Y급만이 16기의 POLAES형 탄도탄을 적재할 수 있다. 이러한 템포는 1971~75년에는 35~50척으로서 실제 SLBM의 탄도탄은 560~800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련의 SS-11(SAVAGE) 탄도탄이 70년 7월 31일 새로운 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에 MRV실험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바 없는 것을 보아 실현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다음은 ABM을 중심으로 논하여 보면, 미국은 이미 1963. 8. 1. NIKEZEUS로, 1964. 5. 29에는 THOR(미 공군의 IRBM)으로 각각 인공위성을 모의 표적을 해서 이미 격추하는데 성공한 바 있었다.

이러한 성공의 연속으로 개량 발전해와 미국은 저고도용 SPRINT와 고고도용 SPARTAN을 개발하여 이미 SPRINT는 작전화에 돌입하였고 SPARTAN은 71년 1월 11일 2발을 발사 실험했는데 이때 1발은 6,7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 주 벤던버어그 기지에서 발사한 ICBM을 요격하였다.

미국의 ABM 계획은 1기는 MINUTEMAN 기지 주변에 건설한 다음 2기는 전략목격기지 및 워싱턴, 3기는 도시주변인데 이는 주로 대중공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미국이 구상은 첫 단계로 1기의 목적으로 12개소의 ABM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바 1개 기지에 50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비용은 약 9억불로서 총 소요비용은 약 103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가리켜 SAFE GUARD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미 육군은 SAFE GUARD가 배치할 경우 기술적 발전으로 시기에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HARD·SITE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비용은 모든 장비가 소형이고 안가(安價)이므로 60~100억불이면 가능하여 2중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SAFE GUARD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에 소련의 1,000개의 핵탄두는 미국의 MINUTEMAN 기지 135~150기 밖에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 그의 명중률은 고고도용 SPAETAN은 35~60%이나 저고도용 SPRINT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다. 12개 기지에 50개씩이라면 SPAETAN 600기, SPEINT 600기씩이므로 1,200기는, 1,000기의 소련 핵탄두를 865~ 850기까지 격추 시킬수 있다고 하니 대단한 것이다.

1975년까지 소련의 SS-9는 420기가 3개씩 1,260기로 보아 거의 완성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 2,500기 중 500기를 제외한 2,000기는 단탄두이므로 역시 그의 발사능력이 어떠한지 모르나 격추율은 같은 비율이 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소련은 1967년까지 TALIN 계획에 의거하여 GALOSH 76기를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주변에 배치하였으나 이미 구형화되어 폐기 단계에 들어섰다. AIR FORCE(70. 7.)지에 의하면 그 보다 새로운

GALOSH를 개량한 신형이 이미 16개 발사대를 가진 4개의 기지가 설치중이라 하고 그 외에 항공기 및 탄도탄 동시 요격용 SA-5(Griffon)가 배치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다.

소련의 ABM 체제 중 흥미있는 사실은 70년 10월에 일련의 우주격파 실험을 실시했는데 코스모스 373호(20일), 374호(23), 375호(30일)에 각각 발사하여 373호가 목표물이 되어 374호와 375호가 미사일로 겨냥했는데 확실히 명중한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우주 Hunter 위성으로서 파괴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의 목적은 소련 자신의 FOBS와 같은 핵탄두 파괴에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미국의 정찰위성격파에 더 큰 목적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은 공격과 방어체제의 상대적인 상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미·소 양국 중 어느 나라가 현시점에서 75년까지의 전망으로써 보아서 우수하다고 단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은 수보다 기술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소련은 가능하면 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 기술적으로 미국에 뒤따를 자신이 없어서 수로 대항하려는 것 같다.

4. 향후의 추세

공격 무기에서 ICBM 분야를 보면 MINUTEMAN IV, V형이 구상 중이나 Project 계획에 의하면 JANUS 계획은 공격용 ICBM에다가 적의 ABM유도탄을 파괴하는 AntiMissile·Missile로 2개의 얼굴을 가진 이태리의 수호신 그대로 2가지의 기능을 가진 유도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핵탄두와 전자방해도 끝났으나 향후는 적 상공에 침투하면 적의 ABM유도탄이 요격될 것을 예상하여 여러 개의 탄두에는 핵 전자방해 탄두에다 ABM유도탄 요격탄두도 적재한다는 것이다.

NEMESIS 계획은 황무지나 수중에 적당한 곳에 배치했다가 작전임무 취역시에 방청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으로서 곧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 계획은 수년전에 수중미사일 저장방법이 개량된 것이다.

VULCAN 계획은 유황광산을 이용하여 깊이 1,000-3,000 깊게 견고한 지하발사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이미 전 난에서 논한 구상과 유사하다.

RANGER 계획은 비교적 견고한 장소에 이동용 미사일 운반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의 공격 경보를 받는 즉시 분산하는 이동용 미사일을 구상하고 있다.

WS-180 계획은 현 ICBM 지상발사대 구상에다 보다 새로운 신형 ICBM을 배치하는 것으로 MINUTEMAN와 시리즈인 것 같다.

다음은 수중발사 ICBM의 계획으로서 현재까지는 SLBM으로 POSEIDON은 핵탄을 10~12 개를 적재하나 사정은 2,500NM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수중핵잠수함으로부터의 발사는 지상보다 이동성이 강하고 수중 침투능력의 약화 등 장점이 많아 이의 이용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방법으로 ULMS(Under water Long-range Missile System)로 사정은 6,000-8,000miles이고 효과는 POLARIS의 10배이고 반면 취약성은 1/10 밖에 되지 않는데 핵탄은 20KT급으로 10개 이상이 될 것이며 그의 투탄오차는 600피트 이하에 들게 하는 것이다.

1975~1980 내에 작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5척에 16기씩 적재한 400기를 실전화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ULMS는 바로 SALT에서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군의 핵주도권을 해군이 잡으려는 속셈에서 나온 야심작품인 것 같다.

ABM체제는 SPRINT와 SPARTAN으로 된 SAFEGUARD 이외에 SCREENING TYPE로 100MT(TNT 1억톤)급의 것을 공중 폭파하여 하나의 방사능대를 형성시켰다가 적의 핵탄두가 통과되면 방사능에 의하여 핵분열이 아닌 핵반응을 일으켜 핵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전자회로를 손상을 주어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BMPBI(Ballistic Missile Booster Phase Interceptor)는 아폴로계획으로 사용되는 SATURN-V형 로켓에 1톤급(SMT)을 100개를 2,300miles 거리에서 발사하여 탄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로켓 탄체(彈體)를 요격해서 파괴함으로써 분산된 MIRV의 파괴보다 MIRV 탄두의 수만큼의 이점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SABMIS (Seaborne Anti-Ballistic Missile Intercept System) 계획으로 현 ABM 체제를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으나 위성국은 방어 불능하다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함정에다 설치하자는 구상이다.

ABMIS(Airborne ABM) 계획은 현 미 공군의 초대형 수송기 C-5A(GALAXY)에 공중대 공중유도탄을 수십 발 적재하고 공중 초계하면서 주로 SLBM의 요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행하고 있어서 그만큼 기동성이 좋아 경보시간이 짧은 SLBM 요격에는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소련의 공격무기를 더듬어 보면 향 후 계획은 계속 SS-9(SCARP)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 및 경량화 될 경우를 예상해서 IMT(TNT 100만톤)급을 15개까지 적재하려는 것이다.

IMT급의 큰 위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지하지지의 견고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파괴하기에는 저급 핵탄두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의 유일한 핵 적재 폭격위성인 FOBS는 현재 투탄오차가 3만 km 비행해서 3~5miles이라고 하나 그의 투탄오차를 접근시키면 향후의 전망은 대단히 밝은 것이다. 혹자는 3만km만 생각하고 ICBM의 10,000km의 투탄오차와를 비교할런지 모르나 꼭 대조해서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ICBM은 탄도 방법이고 FOBS는 궤도비행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FOBS는 궤도를 160km고도에서 시속 28,800km로 비행하므로 경보시간은 ICBM이 BMEWS만으로 15~20분인데 FOBS는 3~5분밖에 되지 않은데 그의 비행거리의 무한 연장시킬 수 있어서 남극으로부터의 미국 공격이 가능하고 그 위에 IMT급 10개 또는 3M급 3개의 MIRV를 적재할 수 있어 그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다만 투탄오차가 멀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하나 기술적으로 개량하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소련은 새로운 액체 연료 ICBM에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있는듯한데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고체연료가 아직 미국만큼 발전하지 못하여 요원한 점과 지하화에서는 미국만큼 견고화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끝으로는 전략이 미국과 같은 제2 격력의 보복방법이 아니고 기습 공격으로써 초격에 큰 위력의 핵탄으로 미국을 초토화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

다만, 액체 연료이기는 하나 지하발사대에 준비했다가 발사할 때만 지상에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기습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큰 지장은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며 이래서 현재 약 10종류의 액체연료 로켓에 집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ABM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으나 SA-5(Griffon) 다음에는 이를 개량한 보다 강력한 PA-7를 개발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GALOSH에 최신 레이더로 보강하고 SA-5로 항공기와 탄도탄의 겸용 요격 ABM을 배치하기 시작하나 저고도용을 배치하여 미국의 저고도 SPRINT, 고고도 SPARTAN의

<제3세대에 들어선 미·소의 전략 탄도탄>

계획과 유사하게 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소의 향 후 발전을 보면 미국은 지하발사대를 중심으로 발사시설이 적어도 소련의 기습공격에 많이 잔존하여 제2공격력으로써 보복 공격력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소련은 무조건 대량공격력의 핵탄을 꿈꾸고 있다. 1975년의 소련은 ICBM만 2,500기에 비하여 미국은 현 수준이라기보다 67년 수준인 1,054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개량만을 꾀하고 있다.

SLBM만 하더라도 소련은 미국보다 수적으로 열세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미국은 ICBM과 같이 수적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POSEIDON과 같은 MIRV로 핵탄두의 능력만 향상시키고 아울러 은폐성, 기동성 등의 장점을 살려서 ULMS라는 ICBM과 대등한 수중발사 탄도탄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이다.

ABM망에서 미국은 고도가 낮은 것부터 해상 공중초계, 방사능대의 형성, 나아가서 적의 로켓의 초기단계의 요격 등 다방면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소련은 새로운 각도에 있어서의 인공위성에서 요격 유도탄을 발사하는 방법의 구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소련의 현재 수준 나아가서는 장래의 수준을 보건대 미국이 주로 기술적인 개발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신형 무기를 출현시킬려고 하는데 반하여, 소련은 기술적인 부족과 기습공격의 전략을 전제로 하는 수의 증대형화 등 극히 초보적인 사고방식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및 수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 묶어서 논해 본다면 제한된 경제능력으로서 국방비의 부담을 무한히 담당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은 경제적 바탕이 결국 기술이나 수(數)이나 하는데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비용 대 효과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여하튼 이미 전략탄도탄에는 제3의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회고하건대, 10여년 전만하더라도 아주 먼 장래의 구상이 이미 실현화 되었다니 과학기술은 무섭게 그리고 착실히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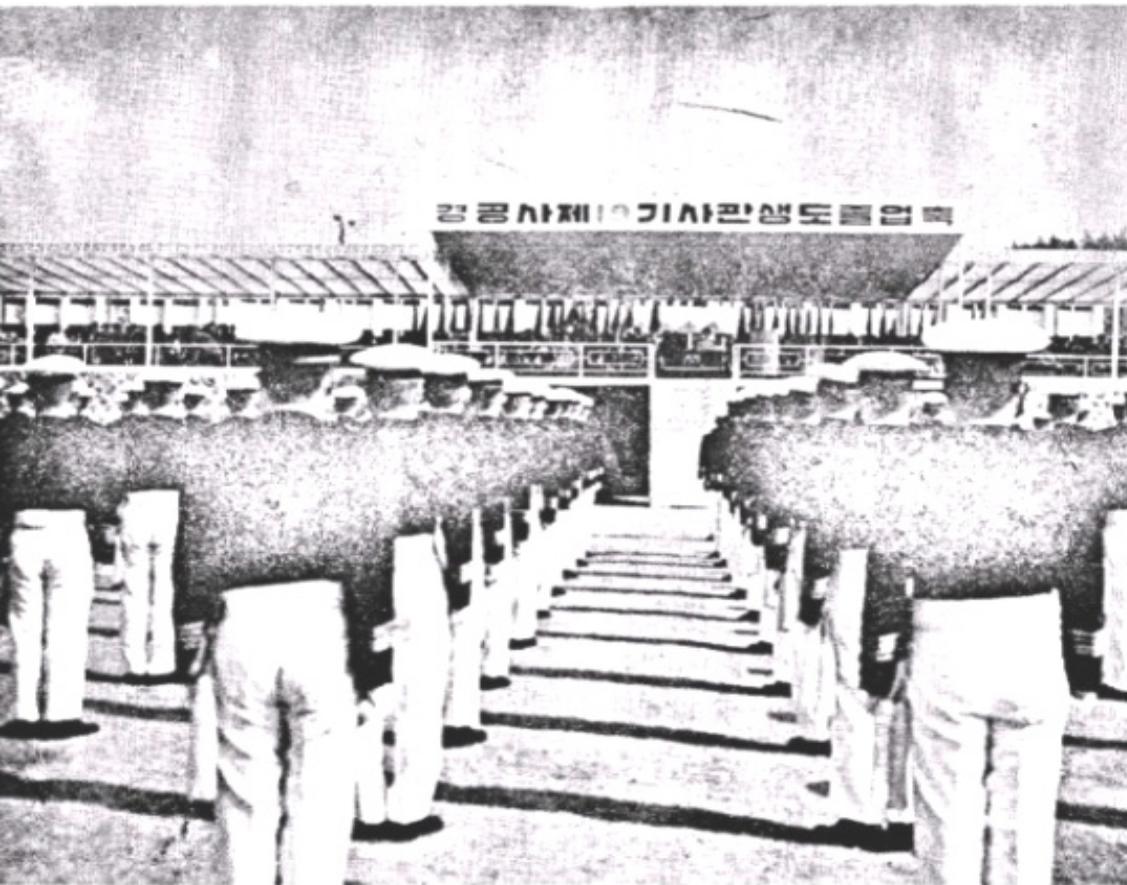
축

공군사관학교 제19기 졸업식

—박 대통령임석리 성무연병장서 성거—

공군사관학교 제19기(71년도) 졸업식이 3월 31일 공군성무(星武)연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삼부요인, 주한외교사절단,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수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영철 소위가, 국무총리상에는 신명남 소위, 국방부장관상 김기승 소위, 참모총장상 이종관 소위, 공사교장상 이계백 소위, 보라매상 조명래 소위, 체육상은 채훈세 소위가 각각 수여받았다.



<유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오늘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은 공군의 위대한 전통의 계승자로서, 그리고 자주국방의 젊은 기수로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가일층의 분발과 노력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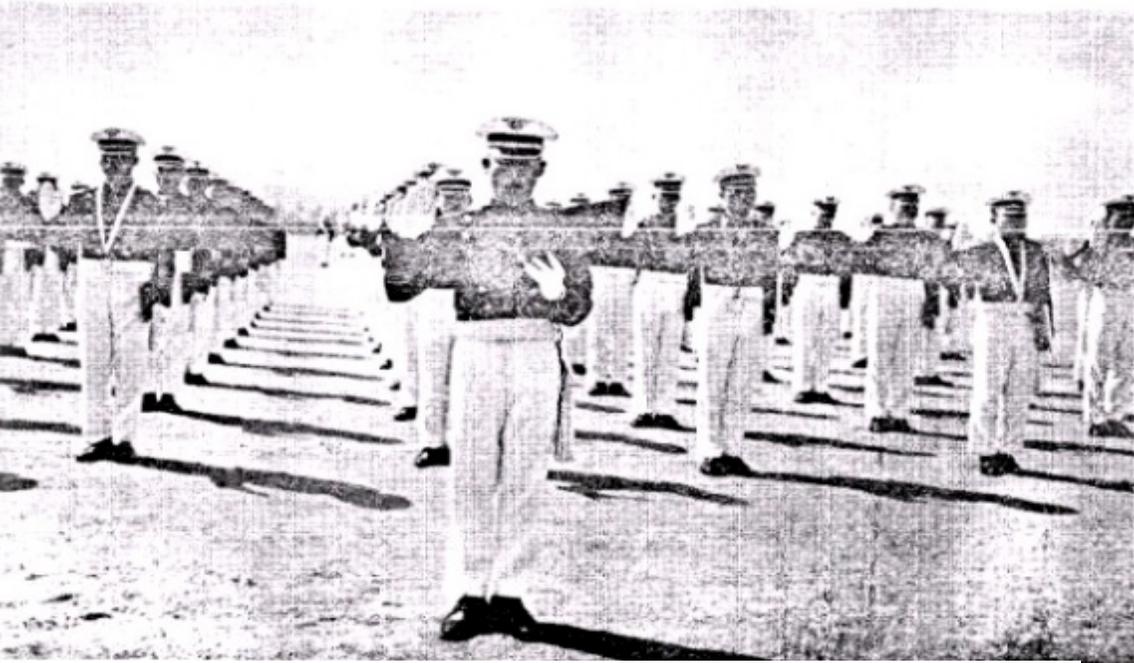
<경사스러운 졸업식 장면>



임관사령장을 받은 젊은 보라매의 전도를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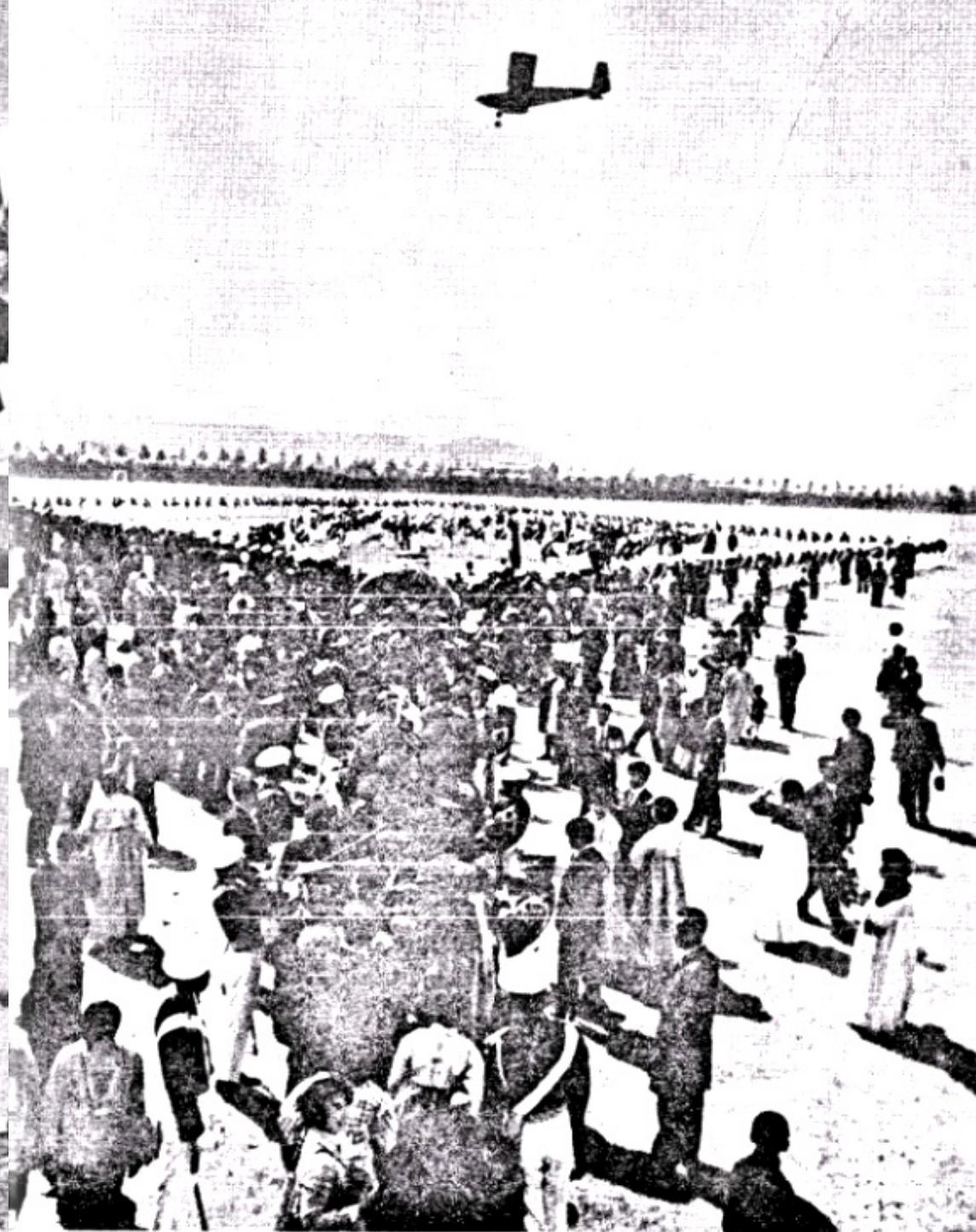
김두만 참모총장이 이종관 소위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앞날을 축복—



조국의 방패를 다짐하는 졸업생들의 임관선서—



영공수호의 참된 역군이 되기 바란다는 윤 사관학교장의 간곡한 식사



오늘의 영광, 공군소위 임관—
후배생도들의 축복을 받고 있는 지환증정식



번역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쉬었으나 앞으로 몇 회 계속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함.

<번역자주>

소련의 군사 전략 .. ⑧

중령 이 중 학 <판권>

(1) 전쟁계획과 새로운 전쟁 개시의 예상되는 방법

군사상의 준비는 적극적으로 실시되었고, 협동계획이 수립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맹국은 전투준비를 갖춘 대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군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경 가까이 배치되었으며, 또 사회주의 국가의 주변에는 많은 군사 기지가 있다. 끊임없는 철저한 군대의 훈련부대와 지휘관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동과 훈련, 지시로 하는 경계 태세의 실시, 소련 방면으로의 정기적인 비행, 사회주의 국가 주변의 해안예의 항공모함과 미사일 장비의 잠수함의 근접 등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정찰이 언제나 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의 준비에 있어서, 제국주의 군사 이론가들은 계획의 기초를 만드는 모든 가능성

<소련의 군사전략>

있는 전략개념을 짜내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 동맹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소위 「칼과 방패」(Sword and shield)의 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미국의 전략 공군과 핵무기는 칼이며, 서구의 북대서양 가맹국의 전술 공군과 지상군은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군사상의 실례에서 판단하면, 제국주의 집단의 군사 지도층은 통일전략을 개발하여, 아마도 사회주의제 국가에의 전면 핵전쟁의 실시를 위한 통일 된 전략계획까지 작성하려는 것 같다.

호르시초프는 소련 최고 회의의 제4회 회의의 보고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누구라도 선제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무분별이 더 필요하다.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들의 잠재 적국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으로 나오는 경향을 가진 국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을 한 적이 잠시동안 기습의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은 국가의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핵무기의 저장과 미사일의 발사 장치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기습공격을 받는 국가가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침략자의 계획을 수포화시킬 적당한 수단을 취하는 기회는 언제나 가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는 광대하다. 우리들은 우리의 미사일 장치를 분산하고 또 잘 위장(偽裝) 할 수도 있다. 우리들은 보복용의 하나의 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중으로 배치한 예비 진지에서 적 목표를 파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

제국주의 진영은 침략계획 속에서 군대의 전략 전개와 전쟁 개시의 준비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전쟁에서 침략 국가들이 사용한 방법, 특히 제2차 대전에서 나치·독일이 사용한 방법을 반복하려고 한다. 제국주의 군사진영의 지도자들은 평화 시에 있어서도 소요되는 군대를 미리 준비완료의 상태에 두어, 유리한 시기에는 언제라도 기습으로써 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태세에 군대를 전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제국주의 군사 이론가들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군대를 동원하고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가능한 한, 전쟁의 주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론을 열심히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육군원수 몽고메리(Montgomery)는 『중래의 동원 형식은…핵전쟁의 정세하에서는 낡았다… 우리들은 레이더에 의한 경보 수 시간 이내에 소요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작을 필요로 한다. 그 조작은 상하기 쉬운 통신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소련의 군사전략>

미국의 킷신저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말했다.『근대 무기에 의한 대전쟁은 개전 당초의 피아의 사용 가능한 군대의 작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우리들은 동원을 수반하는 조금이라도 장기화한 기간을 고려할 수 없다』이 이론은 제국주의자에게 대단히 적합하다. 따라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진영의 이 기초이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전략 항공부대와 미사일, 해군부대, 방공부대와 일부의 지상부대가 설립되어, 높은 입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대는 기습을 예정하고 있으며, 방위라든가 보복 공격을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현존하는 제국주의 군사진영의 군사력 전개 및 상태의 특성은 무엇인가? 과거 전쟁의 실천에서 떠나, 제국주의 국가는 금후의 전쟁준비에 있어서 핵무기, 전략 항공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항모 기동부대(Carrier task forces), 미사일을 장비한 함선을 포함한 전략무기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미래의 세계 핵전쟁에 있어서 주요한 공작 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영·미 진영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무기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및 영국의 전략공군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를 유지하고 있다. 일정수의 승무원이 언제나 임무 수행에 배치되어 있다. 중폭격기의 일부는 핵폭탄이나 핵탄두가 붙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끊임없이 경계비행을 하고 있다. 각 항공기는 소련 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핵공격을 특별한 목표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처럼 전략공군은 전쟁을 위해 특별한 전개와 동원을 필요치 않는다. 본질적으로 오늘날 전략공군은 핵탄의 기습공격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전략폭격기는 대공무기의 발달로 인하여 종래의 전투가치가 저하되었으나, 여전히 위험한 무기이다. 미국의 전략 공군은 소련의 도시, 공업의 중심지, 소련 부대가 기지를 가지고 또 전개하고 있는지 역을 겨누고 있으며, 이 전략 공군의 임무는 사회주의 국가의 군사력을 약 화하고, 소련의 군사 및 공업의 잠재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혀 그들의 항쟁의식을 말살 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의 군대 전략 전개의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종래의 경우와 대단히 다르다. 소련의 군사전략의 임무는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개시했을 때 취할지 모르는 방법을 예견하고, 적시에 절박한 위협에 대하여 국민과 군대에 대하여 경고를 발표하고, 예상치 않았던 사태에 조우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 그 전쟁준비, 군사상의 개념, 이러한 국가의 군사 훈련의 실정. 특히 훈련과 기동의 실시에 대하여 심중히 연구·분석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서방측 국가의 많은 저자들은 기습 핵공격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기술(記述)하고 있다. 상대편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결지에 공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도 않는다.

핵전쟁 개시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연습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개전 직후 3일간 연속하여 핵공격이 미리 예정해 둔 사회주의 국가의 영토에 대하여 실시될 것이다. 최초의 공격은 야간에 실시될 것이다. 이 공격에 참가하는 부대는 전투준비를 갖춘 모든 전략·전술 항공부대, 전략 미사일 부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공격기, 미사일을 장치한 원자 잠수함이 될 것이다. 몇 천대의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가 날아오고, 핵탄두를 장착한 수백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공격은 모두 대도시, 공업의 중심, 판명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기지, 비행장, 해군기지, 지휘본부, 집단화 된 부대, 교통기관 등에 지향될 것이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연습에 의하면, 최초 대량의 핵공격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감소되고 있다. 핵공격을 한 직후에 지상부대가 전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대량의 핵공격에 의하여 개전 초기에 적을 압도할 수 있으며, 지상군은 점령을 실시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잡지·신문에 게재된 많은 집필자의 논문에는, 이러한 핵공격 후의 군사작전은 핵공격의 효과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방측의 신문과 잡지도, 최초 핵공격의 주목표가 핵을 가진 것(미사일 발사기지, 비행장, 핵무기의 저장소 등)에 지향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정치의 중심지나 경제목표라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다. 어떤 필자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평화로운 민중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공업지대, 기타 군사와 경제상의 목표에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목표는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 정찰의 필요가 없으며, 또 이런 목표에 대한 기습공격은 틀림없이 적의 전 국민의 사기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공격법을 주장한다.

<소련의 군사전략>

동시에 서방측의 군사 이론가의 일부는 충분한 이유를 들어, 이러한 전쟁 개시의 방법은 현 상태로서는 실제로 실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리델·하아트스는 오늘날 1941년에 비교하여 기습 공격을 가하여 적에게 괴멸적 타격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서 적의 같은 강력한 보복력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전 초기에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꿈은 더욱 더 난처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 이유는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 어디에서나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국가, 특히 미국의 지배층은 소련이 전략 미사일 분야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핵의 기습공격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 전쟁을 시작하는데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독의 보복가들과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꺾어 최초의 일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전쟁의 불을 질러, 사회주의 국가를 여기에 휩쓸게 하려고 한다.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미국은 적뿐만 아니라, 연합국에 대해서도 지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참전할 것이다.

보복을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는 서독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주요 역할이 주어졌다. 이것 때문에 미·영·불의 제국주의자들은 서독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속에서 최강의 육군을 만들고 핵무기를 가지고 이 군대를 장비하는 계획을 허락하고 서독 군국주의의 보복사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서독의 보복에 불타고 있는 무리들은 세계의 제국주의 세력의 피임을 받아, 어떠한 모험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1944년 말, 프랑스 점령지역의 독일군 사령관 「슈추리프나겔」은 「콘바트」지에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패배는 최종이 아니다. 하나의 패배는 다음의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할 경우에 배워야 하는 하나의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 …금번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패배는 세계정복에의 독일의 승리의 전진 도상에 일어난 하나의 불행에 지나지 않는다.』(미국관 주에 의하면 이 기사는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함).

오늘날 서독에서 「히틀러」의 후계자들은 열사의 교훈을 그들 자신의 생각에서 해석하려고 하며, 또다시 동독, 체코, 폴란드 및 소련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

서독이 단독으로 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다른 가맹국과 협동하여 동독에 기습공격을 가하여 유럽에 국지전을 개시할지 모른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전쟁의 시초에는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러한 경우, 예컨대 군사작전은 동독의 전국, 또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재래형의 탄약을 사용하는 전술항공부대와 미사일 부대를 가지고 일거에 공격해서, 전차의 부대에 의해 침입을 도모할지 모른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다른 방면에서 국지전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계전쟁을 시작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계전쟁은 식민지의 지배를 세속하고, 식민지와 중속 국가에서 국민의 해방운동을 탄압하는 제국주의자의 정책에 의하여 초래할지 모른다.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국지전쟁도 초기에 방지할 수 없다면, 핵무기의 무제한 사용에 의하여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짙다.

이 사실을 미국은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핵전쟁을 먼저 시작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해 불리하고, 또 군사적 견지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계획의 종합적인 초점은 국지전쟁이 확대하고 있을 때, 결정적 시기에 정세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어도 전쟁의 초기에는 핵무기의 사용을 미국의 위성국의 영토 내에 한정하고, 압도적인 핵공격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영토를 방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국지의 전쟁과 충돌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계전쟁을 개시하는 미국의 침략계획의 실체인 것이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층이, 이러한 미국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너무나 중요하는 나머지, 그들은 장래의 전쟁이 자기 나라의 존재도 위태롭게 한다는 것도 생각지 않고, 미국의 지령 하에 새로운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1958년 서독에서 출판된 「독일의 비결」이라는 브라니크의 저서는 슈트라우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탄약 열 핵 전쟁이 시작된다면, 독일의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라도, 독일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독일은 다시 싸워야 한다. …』

<소련의 군사전략>

그러나 이 전쟁은 무슨 뜻을 가질 것인가. 방사능 속에 인류의사멸이라는 것이 모든 승리와 일체의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것을 미리 알 수 없다. 핵전쟁뿐만 아니고, 어떠한 전쟁에서도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것이다.」(미국판 주에 의하면 이 인용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국지전쟁의 방법에 의하여 전 세계를 서서히 새로운 세계전쟁으로 유인할 것을 꾀하고 있다. 그들은 최초의 전쟁 개시의 제1탄을 발사하는 것을, 미국의 대단히 군국주의 적이며 침략주의의 위성국의 하나인, 특히 서독의 보복주의자에게 시키려하고 있다.

무기의 개발이 기습공격을 쉽게 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히틀러는 소련에 기습공격을 가하기 위해 대 지상군과 대 공군을 소련의 서부 국장 가까이 집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전개는 다 알려지게 마련이었다. 오늘날 기습핵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제국주의측의 주 병력과 무기는 이미 전개되었고, 광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자의 도덕관념의 수준으로 봐서, 우리들은 제국주의자의 수중에 있는 새로운 파괴 무기에 의한 평화에의 커다란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보복 타격의 공포만이 제국주의자의 공격을 멈추게 할 것이다. 따라서 소련과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침략에 대해 즉시 보복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

(2) 근대전의 수행 방법

핵무기나 핵의 원거리 전략상의 운반수단 등 군대의 전투에 강력한 새로운 무기의 출현과, 재래무기와 운용장비의 엄청난 개발과,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때의 정치정세의 변화 등 모든 것은 근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근본적으로 틀리는 방법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달한 전투 방식이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근대전에 적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것으로는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의 전투 준비와 국가 전체로서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도 낡았으나 체험을 거친 전투 방식의 지지자가 있다. 많은 나라의 참모본부에는 종래의 전쟁 방식을 가지고 다음의 전쟁을 실시하는 준비를 하려는 불행한 전통이 있다. 프랑스의 군사 지도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심하였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실제에 있어서

<소련의 군사전략>

도 앵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적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는 무기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의 방법과 군사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도 취해야 할 방향을 결정했다. 소련 공산당의 제20회, 21회 및 22회의 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연설은 근대전의 본질적인 정치적 성격을 폭로하고, 특성을 정의하고, 어떻게 근대전을 실시하느냐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는 사회주의 조국의 옹호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근대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먼저 전쟁에 있어서 군의 작전의 주요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쟁에 있어서 공격의 주요 목표는 국경선에 연한 지상의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적의 지상군과 공군 및 해군부대였다.

근대전에 있어서 제2차 대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경 가까이 병력을 배치할 일은 없겠지만, 적도 그 지상군과 공군을 국경 가까운 지상 전장에 집중할 것이다. 또 새로운 무기 — 미사일 부대 — 를 지상 전장에, 항공모함의 공격부대와 잠수함 공격부대를 해전장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기 전에 이러한 적 부대와 싸워서 이를 격파해야만 한다.

그러나 핵전쟁에 있어서, 전술한 적 부대가 군사작전의 유일한 목표도 아니고 주요 목표도 아닐 것이다. 근대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는 전략 핵무기이다.

이 무기를 원거리로 운반하는 것은 전선이나 혹은 국경에서 훨씬 떨어진 후방이며, 군사작전의 전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가 파괴되거나, 또는 무력화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곳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군사작전의 전장에 배치되었던 적군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전쟁 목적의 달성에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 소련군은 강력한 원거리 무기, 즉 전략 핵 로켓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적의 전략 핵무기, 경제 기지(Economic base), 정치 및 군사의 통제 중추에 대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의 국가는 지상부대로서 그 영토를 점령하지 않더라도, 단시간 내에 전쟁에서 탈락시켜 전멸시킬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 작전상의 주요 목표는 적 영토의 깊숙한 전선의 후방에 있게 된다. 전쟁의 초점은 예컨대 격렬한 대규모의 전투가 제1선이나 국경에 가까운 전장에서 실시된다 할지라도 교전국의 내부로 옮겨질 것이다.

<소련의 군사전략>

세계전쟁의 군사상과 정치상의 목적은 적의 전략무기의 파괴, 경제기지와 전장의 군대(지상 및 해군부대)의 격멸, 적 영토의 점령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국지전쟁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종래와 같이 주요한 전투는 제일선에 가까운 전장에서 발전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투의 방법은 과거 전쟁의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것이 되리라. 그 이유는 국지전쟁은 다른 무기에 의해 실시될 것이며, 핵무기의 위협이 끊임없이 교전국의 머리 위에 걸려있으니 말이다.

근대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투의 주요 목표를 명백히 함으로써만이 충분치 않다. 어떠한 종류의 군사작전이, 또 어떠한 형태의 전략작전이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작전이 어떠한 특별한 형태이어야 하느냐도 확립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전략, 군사작전 또는 군사작전의 형태 특히, 전쟁 진행 중에 나타나는 형태와, 이 형태의 변용과 상호 작용은, 사실, 전쟁수행의 방법을 이루는 것이다. 유효한 전투의 근대적 방법을 안출한다는 것은 주로 전략 작전상의 형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차 대전의 모든 전투는 기본적인 전략 작전의 형태—전략공세 (Strategic offense)와 전략수세(Strategic defense)—로 환원할 수 있으며, 지상부대가 그 형태의 전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군대의 다른 부문 즉, 공군, 해군 그리고 부분적으로 방공군은 지원의 기능을 달성하였다. 군의 전투의 주요 목표는 전장에 있어서 적 부대였다. 새로운 전략 작전의 초보의 형태는 제2차 대전에 이미 출현하였다. 즉 적의 후방 깊숙한 도시와 경제기지를 목표로 한 전략공중 공격과 이러한 공격에 대한 방어가 그것이다. 이러한 작전은 전장에서 전략상의 공세와 수세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략적인 공세와 수세는 종전할 때까지 전략작전의 기본적인 형태였고, 전쟁수행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하겠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무기 개발의 수준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달라졌는가? 우리들은 근대전도 두 개의 전략작전의 형태, 즉 전장에서의 전략공세와 전략수세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부의 집필자들은 옛날의 정세는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군사전략>

전략공세와 전략수세가 전략작전의 기본 형태로서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전략공세란 지상, 공중 및 해상에 있어서 각 군이 실시하는 군사작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세의 목적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적의 방어선에 넓은 돌파구를 만들고, 때로는 적의 방어시설과 방어 병력을 분쇄하고 적지 깊숙이 공격한다는 것이다. 원래, 전략공세의 주요 역할은 지상군이 실시하는 제일선부대의 공세작전에 속한다. 전략 로켓군, 해군 및 방공군도 포함하는 작 군종의 모든 작전은 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이러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학파의 필연적인 실재상의 권고는, 전략 미사일부대는 지상군이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적지 깊숙이 핵공격을 가하여, 제일선 집단군이 강력한 핵공격과 힘을 합하여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미사일부대와 연합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개념은 바르지 않다. 그것은 제2차 대전의 경험을 과대평가하여, 그것을 기계적으로 근대의 정세에 적용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제2차 대전 이래, 무기의 개발에 많은 진보가 엿보인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와 열핵무기가 출현하여 무한한 항속거리를 가진 전략 미사일이 핵탄두를 목표로 운반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새로운 군종—전략 로켓군—이 소련군에 생겼다. 만약 침략군이 소련 공산주의의 평화로운 건설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이 전략 로켓군은 근대전의 주 임무가 부여된다. 전쟁의 범위는 대립하는 연합국가의 전 영토를 포함하며, 과거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군사행동의 전장만이 아니다.

근대전의 목표는 적의 전략 핵무기, 경제, 정부기관, 군사통제소 그리고 분명하게 전장에 있는 육·해·공군부대가 될 것이다. 이것 외에 주요한 목표는 전장을 넘어선 적 영토의 깊숙한 곳이 될 것이다. 강력한 전략수단—전략 미사일과 어느 정도의 원거리작전의 항공부대—은 적의 전략무기를 파괴하고 적 국가를 혼란케 하고 지상 전장에서의 적 주력부대를 격멸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것은 최고 통수부의 계획에 의거 핵무장을 한 미사일을 갖고 실시하며, 무력전에 승리하고, 신속하게 적국 전체를 분쇄하여 승리를 획득하는데 있다. 전략 로켓군은 지상군의 활동과 관련시켜 공격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 미사일 부대는 지상부대 지원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지상군은 신속한 진격 달성을 위해 고유의 핵무기(작전 미사일부대, 전술 미사일부대 및 제일선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

지상군은 제일선 항공부대, 연안 수역의 해군부대와 협동하여 전장에서의 목표와 적 부대에 대한 전략 로켓군과 원거리 항공부대의 공격성과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적 부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적 영토를 점령하며, 자국의 영토를 방위한다.

전략 규모에서 지상군의 활동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작전의 성질은 제2차 대전 후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 근대전의 주요무기인 전략 로켓군은 그 작전을 지상군의 작전에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와 반대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상군은 자기의 임무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 공격력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들의 미래의 적은 그의 전략 무기를 주축으로 하여 대도시, 중요한 경제상의 지역과 목표, 미사일을 배치한 지역, 사회주의 국가 전역의 원거리 항공부대·해군부대, 전략예비와 전장부대의 집단에 지향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상 전장의 전투는 공세가 주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투는 제일선의 공군의 협력을 얻은 지상군이 소련군의 다른 군종으로부터 직접 지원 없이 실행될 것이다. 물론 지상군은 적 주력군에 대한 전략 로켓군과 원거리 항공부대의 공격성과를 이용한다. 이러한 경우 지상군의 주요 임무는 적의 방어선 돌파보다는 오히려 적의 방어시설과 방어병력의 분쇄에 있다. 방어선의 돌파라는 것은 과거의 전쟁과는 달리, 이미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개전 초기는 그러하다. 공세의 기간, 지상 전장에 남아있는 적 부대의 파괴는 주로 미사일·핵공격에 의한 적의 핵무기와 사단의 격파와 활발한 전차작전과 적 후방 깊숙이 강하하는 낙하산 부대의 작전에 의해서 달성될 것이다.

근대전에 있어서 전략작전의 기본적 형태로서 전략수세(Strategic defensive)를 채용한다는 것은 전체로서 수세전략(Defensive strategy)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질상 대조국전쟁(2차 대전에서의 독·소 전쟁)의 초기의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 옮긴 것이 된다. 오늘의 상황으로 볼 때, 전략수세를 취하다가 반격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쟁 목적의 완전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세작전이 장래의 전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련군은 모든 군사작전의 형태를 습득하기 위해 수세를 연구하여 숙지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의 군사전략>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작전상과 기술상의 규모에 있어서의 방어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전략수세와 수세 전략에 관하는 한, 이것은 국가를 위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없이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 하에서, 전략상의 작전은 별도의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들이 찾고 있는 전쟁의 새로운 방법은 침략자를 신속하고도 결정적으로 격파해야 하는 것이다. 적 영토 전체의 목표, 특히 핵무기에 대한 미사일의 공격은 소련군의 다른 군종의 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그와 동시에 전략 로켓군과 원거리 항공부대는 전장에서 전략목표를 공격하고 또 예비대 작전상과 기술상의 핵무기의 기지, 병참선, 군사통제의 중추 등을 포함하는 적 부대를 파괴하게 된다. 근대전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전략작전은 적 부대를 완전히 격멸하고, 적 영토를 공략하여 점령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지상 전장에서의 작전이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전략작전은 근대전의 군사와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적의 핵 공격으로 부터 소련 국토를 수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전이며 대공 및 대미사일 방위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작전이 유효하게 실시되지 않는 한, 근대전의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 기능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작전은 적의 공중 공격과 미사일 공격의 격퇴에 지향된다. 이를 위해 비행 중의 적기와 적 미사일을 파괴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후방과 정치의 중추, 경제적 요지와 목표, 미사일부대, 항공부대, 예비 병력의 동원구역 기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한다.

소련의 국토는 적극적인 국토 방공군의 활동에 의해서만이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다. 이 작전은 2차 대전의 전략수세 이상의 것이 된다. 그 이유는 이 작전이 우리의 전 국토에서 적 항공부대에 대하여 실시되며, 또 2차 대전 당시의 전략수세는 적의 공격 정면에 한정된 군사작전의 전장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군사이론으로서, 미래전에 있어서의 전략적 작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 (1) 적의 군사와 경제적 잠재력, 정치와 군사통계의 중추, 전략 핵무기 및 주요한 군대를 격파하기 위한 미사일의 핵공격.
- (2) 적군을 완전히 격파하기 위한 지상전장에서의 군사작전.
- (3) 적의 핵공격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군대의 보호.
- (4) 적 해군부대를 파괴하기 위한 해상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소련의 군사전략>

이러한 전략적 작전은 모두 세계 핵전쟁에 적용될 것이다. 국지전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작전의 어떤 것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고, 또 한정된 규모에서 사용될 것이다. 이 한정이란 먼저 후방의 목표에 대한 군사작전에 적용된다. 이러한 전쟁의 경우, 지상과 해상의 전장에서의 군사작전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리라.

세계전쟁 중 전략적 작전의 어떠한 형태의 사명도 변화하지 않는 일은 없다. 각종의 정세에 응하여, 작전의 각 형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위급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2차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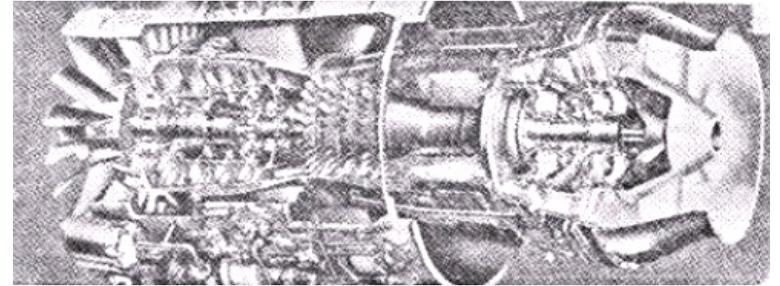
전략적 작전의 형태는 변화하는 것이다. 전쟁의 과정 중, 전략적 작전의 각 형태는 목적, 사용되는 무기, 지역과 시기에 의하여 특정한 형태와 전투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작전이란 소련군의 각 작전부대에 의한 통일된 개념 또는 계획에 의한 특정한 작전 및 전략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조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적 작전의 첫째 형태는 미사일에 의한 핵공격의 경우와, 원거리 항공대의 작전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지상 전장에서의 군사작전은 지상군의 공세와 수세에 의해 종래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실시될 것이다. 국토 방공군(대공과 대미사일)은 적의 핵공격에 대해 국가를 보호한다.

전술에 있어서는, 특정한 전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련군의 각 군종의 통합부대에 의하여 실시되는 구체적인 전투형식을 취하게 된다.

군사이론은 독립적인 통체로서 작전의 조직적인 개념을 개발함에 있어서 수십 년 간의 많은 경험을 이용했다. 어떠한 형태의 전략적 작전도 육·해·공군의 각 군마대의 작전도 독립해서 실시되지는 않는다. 소련군의 부대에 의한 작전도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다. 장래의 전쟁은 모든 전략작전이 통일된 지휘 하에 단일한 전략계획에 의하여 엄밀한 통합 하에 실시되며, 전투의 일반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향될 것이다.

그러나 근대전에는 독립된 군사작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각 군의 전략적 작전과 개개 부대의 기본적 전투의 형태에 대하여 좀 더 세부에 걸쳐 검토해 보려고 한다.



- ◇……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직후에 실용기를 맞이한 이래, 오늘 ……◇
- ◇…… 날까지 약 15년간에 제트엔진은 놀랄만큼 발전을 하였으며……◇
- ◇…… 오늘날에서는 아음속기에서 음속 3으로 초음속기에 이르렀고……◇
- ◇…… 또한 소형기로부터 500여명이 탈 수 있는 초대형 민간 수 ……◇
- ◇…… 송기 등 갖가지의 기종이 탄생하여 거기 적합한 엔진이 ……◇
- ◇…… 개발되어 실용되고 있다. ……◇
- ◇…… 비행기의 용도, 기속(機速), 크기 등의 다양화와 고성능 ……◇
- ◇…… 화에 따라 제트엔진의 형식, 크기, 성능 등이 다양화되어 ……◇
- ◇…… 가고 있다. ……◇

아음속기용의 엔진

저(低) 중아음속기(中亞音速機)의 엔진으로서는 오늘날 피스톤엔진 및 터보프롭엔진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음속 0.6정도 이상의 고아음속기용의 엔진으로서는 제트엔진과 후앙엔진이 병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년의 후앙엔진의 기술 진보는 극히 빠르므로 현재 제트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으로 쓰이는 비행기와 연습기, 공격기 등의 분야도 금후 새로운 계획되는 비행기도 거의 후앙엔진을 채용할 것 같이 보인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아음속기용 제트엔진과 후양엔진의 순항시의 연료소비율의 연대(年代)의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1960년경 대형장거리 수송기용 엔진(15,000~20,000Lbs급)으로서 출현한 바이바스비(比) (바이바스비 0.5~1.5)의 제1세대(世代)의 후양엔진은 그때까지 사용된 제트엔진에 비하여 15%정도 연료소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대형기의 분야뿐 아니라 근년에는 사업용기, 공격기 등 중·소형기의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또한 제1세대의 후양엔진보다도 20~25% 연료소비율이 낮은 제2세대의 대형고(大型局) 바이바스비(바이바스비5~8) 후양엔진(40,000Lbs급)의 개발이 1960년대 후반에서 개시되어, 일부 기종은 이미 실용화 되고 있다.

제1세대의 엔진의 경우도 똑같으며 계속하여 중·소형의 높은 바이바스비 후양엔진의 계획,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실용단계에 달할 것 같다.

그러나 군용연습기, 공격기 등 연료소비율보다도 운동성을 중요시 하는 기종에는 같은 추력의 경우 엔진 직경이 적어지는 저(低)바이바스비(比) 후양엔진은 장래에도 역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형 장거리기용 엔진으로서의 제2세대의 후양엔진보다도 더욱 연료 소비율이 우수한 제3세대의 엔진이 1970년대 말~1980년대에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종류의 엔진은 제2세대의 엔진보다 한층 대형(80,000~150,000Lbs)의 바이바스비(比) 10~16정도의 엔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2세대까지의 후양엔진의 후양은 후양과 직결된(동일회전으로 돌아감) 터빈에 의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바이바스비(比)가 10 이상이 되면, 후양에 비하여 가동터빈의 직경이 심히 적어지므로 후양과 직결하였을 경우 주속(周速)이 알아지며 일단(一段) 당의 일의 능률이 적어진다.

거기서 제3세대의 높은 바이바스비 후양엔진에서는 후양과 가동 터빈의 축(軸)을 직결하지 않고, 축 간에 치차열(齒車列)을 조합하여 후양과 터빈이 각각 적절한 조속(周速)이 되게끔 하는 회전수로서 돌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을 기어와 후양엔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새로운 엔진만큼 압력비 및 터빈 입구 온도의 치(值)가 높아지고 있다. 즉 후양엔진의 성능향상은 압력비와

터빈 온도가 각기 기술 진보에 의하여 비싼 값을 받게 된 결과 이를 실현에 옮기고 있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여기서 엔진의 비출력(比出力—단위공기류량 당의 출력)과, 열효율의 향상(따라서 연료소비율의 저감)과 사이클 압력비와 최고 온도(터빈 입구온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압력비 7, 터빈 입구온도 1,000° K로 설계한 엔진 A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출력의 엔진 B, C, D를 비교해 보면 우선 압력비만을 7에서 12로 올려도(엔진B) 열효율이 약간 올라갈 뿐으로 공기류량이 18%나 늘어난다.

다음에 압력비를 12로 올림과 동시에 터빈 입구온도를 1,600° K로 올렸을 경우(엔진 C) 열효율이 엔진 A 보다도 8%가 높아지며, A의 경우 36%의 공기류량으로 동일 출력이 얻어진다.

또한 터빈 입구온도는 1,600° K만으로 압력비를 40으로 올리면(엔진 C) 열효율은 A보다도 16% 높아지며, 공기류량은 42%로서 동일 출력이 얻어진다.

엔진 C와 D 사이에 어느 것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열효율(연료소비율) 외의 중량과 복잡성, 즉 개발의 어려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이 엔진의 설계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압력비와 터빈 입구온도는 균형이 잡힌 치(值)이어야 하며, 종래 압력비와 터빈 입구온도의 기술 진보는 상호간 바람직한 엔진 사이클이 되게끔 진행되고 있다.

현금의 신형엔진은 20~30의 범위에 있으며, 기계적으로는 독립한 두축(2軸) 또는 삼축(3 軸) 어느 것이나 일부의 날개 취부각(取付角)이 회전수에 응하여 변화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

형식에 의하여 이와 같이 높은 치(值)를 실현하고 있다.

1980년대에 예측되는 압력비 30~40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식에 의하여 개개의 축(軸) 당의 압력비를 높임에 따라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터빈 입구온도의 향상은 고온재료의 진보와 터빈 익(翼) 냉각법 채용 및 그 개선에 의하여 실현해 오고 있다.

즉 1960년경까지는 터빈 동익(動翼)의 공냉은 실용화되고 있지 않으며, 터빈 입구온도의 향상은 마야흐로 고온재료, 특히 터빈 동익의 재료의 진보에 의하여 실현되어 왔다.

이에 의한 터빈 입구온도의 향상은 당시도, 또한 현금에도 1년당 10° C 정도이나 1960년경 터빈 동익의 내부를 압축기 출구 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공냉식 동익이 실용화되므로부터 급격히 터빈 입구온도는 향상돼 오고 있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대류식(對流式) 냉각법, 인핀지먼트 냉각법, 필름냉각법, 침출(浸出)냉각법이 있으며 현급의 1,150~1,250° C의 온도는 대류식, 인핀지먼트식 또는 다시 필름식을 병용함에 있어 실현하고 있다.

1980년에 예측되는 터빈 입구온도1,300~1,500° C의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입자분산화합금(복합재료), 일방향응고(一方向凝固)식, 정밀주조법(날개의 주조방법의 개량)의 채용 등에 의한 재료의 사용온도의 향상과 대류(對流), 인핀지먼트 및 필름냉각방식의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침출냉각법(浸出冷却法)―(날개의 표피(表皮)를 다공질(多孔質)의 재료로 형성하여, 날개 내부를 흘러 들어온 냉각공기가 표피(表皮)에 침출(浸出)됨으로써 냉각하는 방식)의 채용에 의하여 실현하는 방식이 있다. 더욱 미국에서는 장기 계획으로서 공기와 연료를 이론혼합비(理論混合比)로서 연소시켰을 때의 온도, 즉 약 2,200° C 까지 터빈 입구온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초음속기용 엔진

초음속기용 엔진으로서는 종래의 재연식 제트엔진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후양엔진 기술의 진보에 따라 1960년대 중간에서 아음속비행시의 연료소비율이 제트엔진보다 우수하며, 또한 재연시(再燃時)의 추력증대율이 크게 취해진다(단 연료소비율이 제트엔진이 낮음). 재연식 후양엔진이 초음속기용 엔진으로서 주목되며, 구미 각국에서 이형식의 엔진의 개발이 착수되었다.

오늘날에서는 그 중의 2,3개의 엔진은 실용단계에 달하고 있으나 급선회 때와 같이 입구공기 압력에 분포가 되었을 때의 재연(에프터버너 또는 후양버너)의 안정성, 엔진본체(本體)와 재연부(再燃部)에 문제가 있으며, 먼저 말한 이 점을 충분히 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각국이 그 해결을 위해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안정한 엔진형식으로 성장하여 장래는 초음속기용 엔진의 주류가 될 것이다.

재연식 제트엔진은 현재도 세계의 초음속 군용기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용으로서도 현재 개발 중의 영·불 공동의 초음속수송기 콩코드(COCONORD)의 엔진 올림퍼스 593, 보잉사의 초음속 수송기 B-2707의 엔진 GE 4도 이 형식의 엔진이므로 당분간은 초음속기용 엔진의 태반을 점할 것이지만, 금후 개발되는 신형군용기로서 이 형식의 엔진을 탑재하는 것은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싼 가격의 전술전투기 또는 극히 특수한(재연식 제트엔진에 적합한)예를 들면 행동반경이 적은 요격기)용도의 것에 한 할 것이다.

금후의 초음속군용기에는 복수의 이질적인 밋손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제1의 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편 제2의 적 입구에 있어서도 전 비행시간이 아음속 또는 그 이하이므로 비교적 바이바스비가 높은 후양엔진이 적합하다.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임무를 부여받은 비행기의 엔진으로서는 오늘날의 기술로 생각하면 중간적인 성능, 즉 재연식의 얇은 바이바스비 후양엔진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래는 초음속 비행 시에는 바이바스비를 낮게 하여 재연식 제트엔진에 가까운 특성을 갖고, 아음속 비행시에는 바이바스비를 높이 하여 연료 소비율을 낮게 하는 바이바스비 가변형의 엔진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속기용 엔진의 성능향상에 관하여는 아음속기용 엔진의 경우와 달라, 개개의 엔진의 순항 또는 고속진출고도, 기속(機速)이 다르며, 또한 거의가 군용기의 엔진이므로 성능이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하기가 곤란하지만 아음속기용 엔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터빈 입구온도의 향상에 따라 압력비도 증대하며, 연료소비율은 저감하는 경향에 있다.

초음속기용의 경우, 초음속 비행 시에는 흡입하는 공기의 기속(機速)의 영향으로 공력적(空力的)으로 가열되어, 마하 2.7로 비행 중의 B-2707의 경우, 엔진 입구에서 약 300° C에 달하므로 터빈 입구온도를 가능한 한 높이 취하지 않으면 압축기의 활동과 또한 연소에 의한 온도 상승도가 적어지므로 아음속기용 후양엔진으로서는 9-13정도로 극히 높은치(值)를 보지하지 않는다.

더욱 초음속기용 후양엔진의 바이바스비는 0.7-1 정도이다.

또한 바이바스비 가변형(可變型) 후양엔진과 이론혼합비 터빈 입구온도의 연구를 종합하여, 현재에서는 재연에 의하여 얻어지고 있는 추력증대를 터빈 입구온도를 올림으로써 얻어진다(추력 증대 시에는 터빈의 회전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터빈 입구온도가 이론혼합비 때의 온도―약 2,200° C―정도까지 올라가게끔 후양압력비, 바이바스비 등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미국에서는 연구되고 있으며, 이 방식에 의하면 마하 2.5 정도로서 비행하고 있을 때의 연료 소비율은 오늘날의 엔진의 연료소비율의 2분의 3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미국에서는 마하 3~5를 목표로 하여 타브·람·제트, 타브람·로켓, 터빈·람·제트·로켓 등의 연구도 종래에서 계속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1985년경 실용 단계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같다.

V/STOL 엔진

VTOL기로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종류의 실험기가 제작되어 시험하였으나 영국의 헬리어를 빼놓고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헬리어는 추력편향형(推力偏向型)의 후양엔진 피가서스를 탑재한 아음속 전술전투기이다. 이 비행기는 후양 및 터빈 배기를 전회가능(轉回可能)한 노즐로서 하향 또는 후향(後向)으로 편향(偏向)함에 의하여 기체를 올리거나 전진추력을 얻는 것이지만 똑같은 엔진으로 기체를 올리기 위한 추력과 순항추력을 얻고 있으므로 순항시에 추력이 대폭 남아, 연료소비율이 나쁜(약 20%)대로 엔진을 상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후양 출구공기를 재연시켜 기체를 올리거나 고속진출시의 추력을 얻으려는 방안도 있으며, 이 형식의 엔진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기체를 들어 올릴 때와 전진시의 추력의 밸런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시의 기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보조엔진을 추진엔진과 같은 형식의 엔진과 병용하면 좋다.

보조엔진은 이착륙시 이외는 Dead weight되기 때문에 가볍고(추력/중량비가 큰) 것을 바라게 되며 이 종류의 엔진으로서 롤스·로이스사의 리프트·제트엔진 RB 192(추력/중량비 16)가 유명하다.

그러나 리프트·제트는 사용 중에 소음이 크므로 민간용으로는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경량의 후양엔진에 의하여 기체를 들어 올릴 리프트·후양엔진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VTOL기는 가까운 장래에 실용화될 것 같지는 않다.

군용, 민간용의 STOL기는 1970년대 중반에 출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로 추진엔진으로 후양엔진, 터브호프엔진의 채용이 예상될 것으로 보조엔진의 형식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출력과 중량의 관계

엔진출력 즉 출력과 중량의 관계는 통상단위중량당의 추력 즉 추력/중량비로 표시된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1960년대에는 추력/중량비의 향상은 특히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돼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주 높은 추력/중량비에 도달해 있다. 예를 들면 엔진의 추력/중량비가 8에서 10으로 향상하여 엔진 중량이 20% 줄었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경우 전 비중량의 2%정도, 수송기의 경우에는 불과 0.8%정도의 중량경감이 실현됨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후의 연구·개발은 추력/중량비의 향상보다도 연료소비율의 저감, 엔진신뢰성의 향상, 정비성의 향상 등에 보다 많은 힘이 기울어 질 것이다.

그러나 공력적(空力的), 구조적 설계기술의 향상, 보다 강성이 높은, 또는 강도가 큰 재료의 개발 등이 계속하여 행해 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력/중량비는 종래의 경향을 계속 연장하는 형식으로 향상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소음

비행장 외의 소음, 즉 Community Noise는 터브 제트(후양)기의 보급 또는 대형화에 따라 특히 인구 밀집지대에서 문제가 돼 있다.

국제적으로도 비행기의 소음규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 ICAO에서 소음규제안을 정리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항공규정(FAF)의 일장(1章)으로서 이발착시의 소음의 허용한계를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정하고 있다.

한 가지로 말해 제트엔진의 소음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성질이 다른 수종의 소음이 합성된 것이다.

우선 제트소음은 고속의 배기가스가 주위의 공기와 혼합할 경우에 허트러진 파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음은 넓은 파장의 범위에 걸쳐 그 크기는 주위의 공기에 대한 배기의 상대속도와 주로 관계된다.

후양(및 압축기) 소음은 엔진 속에서 발생하며, 전방과 후양 후방에 전도된다. 이 소음은 높은 피치의 불연속한 음조와 폭 넓은 소음의 두 가지이다.

불연속한 주파수의 소음은 동익(動翼)과, 전후의 정익(靜翼)의 간섭(1차 및 그 고주파)이다.

폭 넓은 소음은 후양 및 압축기를 흐르는 공기의 허트러지는데 기인한다.

또한 최대 추력시와 같이 고회전으로 운전하고 있으면 후양 동익 외경부(外徑部)의 공기의 흐름이 초음속이 되기 위해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한 소음이 있다.

이 외에 터빈에서도, 후양과 동질성의 소음이 발생한다.

우선 초음속기용 제트엔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트배기의 소음이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이 종류의 소음은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소음법(消音法) 즉 배기를 될 수 있는 한 많은 유관(流管)으로 나누어 배기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것 같으며, 유관의 형상, 수, 면적 비 등을 적당히 하는데 있어서 GE 4의 경우 약 10 PNdb 정도의 소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이 계속되어 따라서 초음속기용 엔진·베카 GE사, FE사, SNECMA사가 소음(消音)에 관하여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잔보와 에어버스용의 대형의 후양엔진 즉 P&W사의 JT 9D, GE사의 CF 6, 롤스·로이스사의 FB 211은 어느 것이나 설계의 당초에서, 당시 규제안이었던 FAA의 소음(騒音) 규정에 합치하게끔 특히 주의시키고 있다.

우선 제트소음에 대해서는 바이바스비를 적정하게 선택함에 따라 후방으로부터의 배기가스의 속도를 늦추고, 소음을 저하시키고 있는 외에 소음재(消音材)를 안에 붙이고 있다.

후양 소음에 대해서는 우선 동익과 정익(靜翼)의 간섭에 기인하는 것은, 입구 안내익이 없는 형식의 후양으로서, 또한 동익과 정익의 축방향거리(軸方向距離)를 익현장(翼弦長)의 2배정도 넓히고, 동익(動翼)의 후류(後流—Wako)가 복수매(複數枚) 동시에 정익에 달하는 일이 없도록 동·정익의 매수(枚數)를 골라, 또한 정익은 전후·좌우에 경사시켜서, 동익 후류가 동시에 정익전고에 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한다.

후양동익 외경부가 초음속으로 작동하여 생기는 충격파에 기인하는 소음의 저감을 위해서는 후양 주축을 종래의 후양엔진보다 얇게 취하고 있다.

또한 엔진입구, 후양출구(出口)에는 흡음재를 속에 붙여서—FAA의 규정 안에 따른 소음조치를 할 계획인 것 같다.

소음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계속 저감을 위해 노력 할 필요가 있고, FAA도 규제를 차차 얇게 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NASA가 Quiet Engine-Program이라고 칭하며, 후양엔진의 소음 저하를 위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NASA에서부터 계약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GE사의 예비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후양의 주축을 얇게 하여 전향각을 크게 취하면 즉 익면부하를 크게 했을 때보다도 주축을 높게 하여 전향각을 적게 한다. 즉 익면부하를 적게 하였을 경우가 후양의 소음은 적다고 한다. 이 소음은 상당히 연구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제트엔진의 새로운 경향>

배 연(排煙)

제트엔진 배기 중, 특히 문제가 되어있는 것은, 탄소(炭素)의 덩어리인 연기이다. 배연의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뉴욕주가 규제하고 있을 정도이며, 현상에서는 특히 큰 문제로는 돼 있지 않으나, 항공기 이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다란 문제가 될 것도 예측되므로 각 엔진의 메이커들이 그 감소에 힘을 기울여 왔다.

현용의 대형 상용기용(商用機用) 엔진의 연소기는 모두 연료분사형이지만, 이 형식의 연소기로서 연기의 발생을 없게하기 위해서는 1차 연소영역에 있어서의 공기과잉률을 높이고, 또한 이 부분에서 공기와 연료가 잘 혼합하게끔 하여 국부적으로도 공기부족의 부분이 없게끔 하면 된다.

대형고(大型高) 바이바스비 후양엔진을 개발 중에 있는 3회사는 어느 것이나 상기의 수법으로 배기 중에서 보이는 Visible Smoke를 추방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단 1차 연소영역을 공기과잉으로 했기 때문에, 고공에 있어서 재착화(再着火) 성능은 나쁜 영향을 받는다.

어느 메이커는 그 영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기동시의 연료의 양을 좀 늘려서 기동시에 공기와 연료의 비가 적당한 치(値)를 갖도록 하였다.

배연의 감소에 유효한 다른 방법은 연료분사형의 대신에 증발관형(蒸發管型)을 채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완전히 증발하지 않아도, 공기와 잘 혼합하여 미립화해서 연소하기 위해 배연은 나오지 않는다.

여하튼 금후의 제트엔진에 있어서는 배기 중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검은 연기는 없다는 것 이 일반화된 상식이다.

신뢰성과 정비성

근년의 제트엔진의 신뢰성, 정비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이는 사실이다.

군용엔진에 대해서는 신뢰성 목표가 계약하는 중에 정해지며, 그 실현, 실증을 위해 개발하는 전 단계를 통하여 시험과 분석이 실시된다. 민간용의 경우도 같으며 이미 설정된 수명, 모듈점검간격(오우버호출을 할 염려가 없어졌으며, 주요모듈마다 정해진 운전시간—예를 들면4,000시간—마다 점검, 정비한다)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개발단계에서 실증하는 것이 통상이다.

정비성에 대해서는 상간 모듈마다에 교환할 수 있는 수법의 확립, 비행기에

탐색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상의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컨디션, 모니터링 방식의 개발, 정비하기 쉬운 구조의 채용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장래는 각 정비기지에 기착할 때마다 운항중의 엔진 작동상황의 기록이 되도록 하며 인젠기는 운항 중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종사에 통보되며, 또한 정비기지에도 필요기재수매의 연락이 되게끔 될 것이다.

엔진 가격

엔진가격의 장래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각각 다르다.

각 요소의 고성능화, 고정밀화(高精密化)와 새로운 제조방법의 도입, 일체구조의 채용, 복합재료 등 새로운 재료의 개발, 채용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은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NASA가 연구 중에 있는 싼 가격의 제트엔진 및 후양엔진에 대하여 소개한다.

1,000Lbs 급의 소형 제트 및 후양엔진으로서 현재 피스톤·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소형기의 제트화를 목적으로 하여, 추력 1Lbs당 1불 이하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철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명언>

- ◇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답되고 성심은 성심으로 보답된다.
상대방의 성심을 원하거든 이쪽에서 먼저 성심을 표시해야 한다.
— 토마스 만 —
- ◇ 사람은 하는 일에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은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기에게 그러한 힘이 있을까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 피 테 —
- ◇ 인생은 짧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길에 따라 하도록 힘쓰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써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 있는 열매이다.
—오우레리아스—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중공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에 번질 파장—

김 병 무

<한국일보 외신부 기자>

병든 「아시아」의 거인 중공이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른바 문화혁명이 중공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가 아물면서 그간 굳게 닫아두었던 병실의 창문을 열고 바깥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줄곧 「제국주의의 말살」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들은 갑자기 어조를 낮추어 「중공은 호전적인 나라가 아니다」는데 악센트를 둔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열심이다. 아직 외모의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최근 중공이 초현대식 여객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계획이라는 미국 ABC방송의 보도만 보아도 중공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차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 그래서 중공 자신이 제 1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미국과 상담이 오고간다면 그것이 비록 엄격히 민간 베이스에 국한된다 치더라도 중대한 사태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위장된 형제국이라고 비난해 온 소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공은 더 이상 수정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소련을 헐뜯고 있지 않다. 2년 전만 해도 국경분쟁 끝에 우수리 강을 사이에 두고 총격을 퍼붓던 중공은 지금 소련대표단을 북경에 불러 들여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결보다는 차분한 대화를 가져보려는 인상이다.

그러나 말만은 여전히 소란하다. 월남군이 라오스에 진격하여 호지명 보급로를 강타하자 중공은 의용군을 라오스에 투입하겠다고 위협했다. 그것 역시 말뿐이었다. 오늘의 중공이 지닌 독특한 단편은 「말은 대인처럼 하고 행동은 소인처럼 신중히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69년 4월에 열린 소위 중국 공산당 제9차 전당대회는 앞으로는 문화혁명의 잔재를 정리하고 밖으로는 고립의 벽을 깨뜨리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비타협과 폐쇄적 자세를 견지해 온 중공은 이때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합리주의적 노선을 쫓는 새로운 중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그 해 9월, 월맹 대통령 호 지명의 사망을 계기로 북경공항에서 이루어진 「코시긴」—주 은래회담이 소련 중공간의 국경회담으로 연결됨으로써 첫 징후를 나타냈다. 문화혁명으로 중공전도가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소위 학습을 위해 소환했던 외교관들도 하나씩 돌씩 귀임시킴으로써 밖으로의 숨통을 터놓았다.

주 모스크바 대사에 부외상으로 있던 유신권을 새로 임명하여 부임시키는가 하면 58년 이후 단절되어 있던 유고슬라비아와도 국교를 재개했다. 66년 이래 악화일로에 있던 북괴와의 관계 역시 개선되었고, 쿠바, 이라크, 네팔 등에 친선사찰단을 보내어 뜸해졌던 유대관계를 재점검했다. 중공의 부산한 움직임은 서방측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중공을 승인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관계가 문화혁명 이전으로 복구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작년 말에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20년형을 복역 중이던 미국인 신부 제임스·윌쉬를 형기보다 8년 앞당겨 석방했다. 그리고 70년 1월에는 4년째 중단되었던 바르샤바의 미·중공회담을 재개했다. 바르샤바에서 그곳 주재 양국대사간에 열리는 이 회담이야말로 두 나라 사이에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지금에 있어서는 워싱턴과 북경이 서로의 의중을 타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다. 그러나 이러한 중공의 자세전환이 중공자신이 어떤 여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즉 중공 스스로가 당면해 본 국제적 현실에서 국력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을 꺾을 수 있을 때까지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모택동의 혁명철학이 곧 중공의 국제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은 5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 극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힘에 의해 소련을 누르고 공산세계의 패자로 군림하려고 기를 썼다. 60년대에 들어서 10차례의 핵실험을 행한 것이나 70년 5월 첫 인공위성을 띄워 모택동 찬가를 지상에 흘려 보낸 데에는 한결같이 그런 야심이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중공이 받은 것은 빈약한 국력과 기술의 후진상에서 비롯된 짙은 좌절감이었다. 69년 중공이 현저히 반소노선을 걷고 있을 때 일어난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운동이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빗자한 소련군의 침공으로 무참히 꺾이는 사실을 중공집권층도 지켜보았다.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체코」사태란 중공의 집권층을 동요시킨 것은 당연했다.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합법화시킨 것이 브레즈네프·독트린이다. 거기에서 중공자신이 제외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본 것이다.

중공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은 운반용 로켓 부문에 현저한 발전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중공이 개발하고 있는 핵력과 함께 관심을 끈다. 중공은 이것으로서 어느 뎬가 중공은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 쏘아 보낼 수 있다는 실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중공이 행한 일련의 중요한 실험이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 여행에서 성공을 거두는 등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던 무렵이나 중공 내에 소요가 들끓는 때를 맞춰 행해 진 점으로 보아 군사적 목표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중점을 둔 시위였다. 중공은 75년경까지는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 하고 70년대 말에는 실전용으로 배치할 계획이나 미국과 소련에 맞설 수 있을 때는 적어도 금세기 내에는 불가능하다.

중공이 유엔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변화의 밑바탕에는 중공 경제의 취약성과 잠재적 시장성 이 무한대 하게 남아 있는 중공을 넘보는 일부 서방국가의 실리적 안목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중공의 문화혁명은 앞서 58년에 시작을 본 대약진 운동이 남긴 모순을 차츰 정리해갈 무렵인 65년에 일어났다. 그런데 문화혁명은 이제 막 안정을 찾으려던 중공경제를 다시 파탄으로 몰고 들어갔다.

문화혁명의 후유증을 제거하고 붕괴된 체제를 정비한 것은 69년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년 1백 달러로서 세계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중공의 실정이다. 낮은 생산성 때문에 식량이 크게 부족되고 있는 중공은 서방국가로부터 막대한 양의 양곡을 수입하고 있다. 70년 11월 중공을 승인하여 세계의 관심을 모은 캐나다 승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호주는 바로 중공시장에 밀을 팔고 있는 나라들이다. 실리는 이데올로기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자는 논의가 유엔은 물론 미국 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 힘입어 중공은 강대국의 하나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금후 중공의 세계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극동의 기압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려 들 것인가. 중공이 설사 고립의 벽을 완전히 깨뜨리고 나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계지배의 야심을 깔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아시아의 주변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른바 인민해방전쟁을 선동하고 침략의 포문을 들이댈 것이다.

중공군참모총장 황영승은 지난해 8월 1일 중공군 창설기념일에서 밝힌 중공의 교정책의 기초로서 대만의 해방과 반제국주의 투쟁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혁명투쟁을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중공이 추구하는 팽창주의의 고정 패런은 중공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인민해방전쟁을 유발시켜 이를 공산화시킨다는 노선으로 굳어져 있다. 중공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인민해방전쟁의 전략은 중공자신이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일이 없이 어느 특정국가내 불만분자를 선동시켜 내란을 일으키게 하여 기존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 인민해방전쟁은 곧 간접침략전쟁이다. 오늘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 전쟁이 그 산 본보기다. 중공의 인민전쟁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전쟁 회피전략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중공의 국력으로 보아 미국과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이상 세력팽창의 한 편법으로 현지주민의 봉기를 부채질한다는 견해다. 65년 2월 첫 월맹 폭격에 이어 그해 3월에 미국이 월남에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중공 내에서는 두 가지 엇갈린 주장이 맞서 있었다. 국방상 입 표가 인민전쟁론을 내세워 월남 공산세력에 대한 측면지원에 국한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당시 참모총장 나서경은 무기제승론(武器制勝論)을 역설, 중공군의 직접 참전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입표의 이론이 압도하여 중공은 인도차이나에 참전을 포기했고 그 여파로 나서경은 숙청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산전략문제 전문가 더클라스·파이크 같은 이는 중공이 침략전쟁에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 이유를 중공이 인접 소련으로부터 받은 위협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다. 이 말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는 관계없이 소·중공 국경에 감도는 위기가 견히지 않았다는 말이 되겠다. 피이크씨 이론대로라면 중공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이 현 북경 정권을 전복하려 덤벼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며 인도차이나 따위야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구실이야 어쨌든 중공의 인민해방전쟁이 북경의 뜻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인도차이나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인민전쟁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사회적 불안의 증대와 국론의 분열일진대 우리가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노력은 곧 공산침투를 막는 지름길로 통하는 것이다.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중공은 세계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지에 공작을 벌이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중점을 둔 인상이다. 그것은 윈조라는 이름의 공작비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중공은 탄자니아와 윈조협정을 맺고 4천명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한편 내륙국가 캄비어 수도 루사카와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 사랏을 잇는 길이 1천 8백킬로의 철도를 부설하고 있다. 중공이 국내의 팽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4억 달러라는 힘에 겨운 부담을 지면서 이런 야심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랍 공화국에 거대한 아스완 댐을 건설해줌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의 발판을 굳힌 소련세력의 팽창을 견제하는 한편 탄자니아를 중공자신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자는 뜻에 뜻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공에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원조는 대부분 농촌진흥과 농업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분야는 막대한 자금의 염출이 가능한 선진국이 착안하지 못했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분야였다. 거기다가 농민을 피부로 맞대어가며 벌이고 있는 중공의 공작은 이른바 모택동의 농민혁명의 조직으로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탄자니아 내에 설치한 4개의 중공 라디오 송신소는 아프리카의 검은 혁명을 지지한다고 선동하고 있으며 로디지아나 모잠비크 밀립 게릴라들에게 모택동전법을 익혀주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지난해 1월 칠레의 중공승인을 계기로 양국간의 국교관계가 개설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 대거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유엔 내에서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해 총회를 거쳐 거의 만조를 띄움에 따라 한층 넓게 퍼질 공산이 크다. 한편 인도차이나에서도 소련을 앞질러 중공이 그곳 공산세력을 주도하려는 야심이 여러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중공은 최근 월맹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으며 소련이 승인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 망명 정부를 전폭 지원하며 기회있을 때마다 인도차이나 전쟁은 아시아인의 전쟁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곳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세력과 아울러 소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있다.

중공의 팽창주의가 결국 우리 한반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날 것인가? 오늘날 미국정부 및 극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도차이나와 같이 한반도에 중공군이 직접 참전하는 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은

<고립의 창문을 연 중공>

안이한 판단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세계전략문제 전문가인 허만 칸 교수(허드슨 전략 연구소장)는 만주가 지닌 산업 및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중공이 병력을 직접 파견하는 위험지역으로 한반도와 푸키엔 성(대만을 마주보는 성)과 시베리아를 차례로 손꼽고 있다. 그런데 중공군이 시베리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는 이상 한반도가 역시 가장 손쉬운 대상지역이라고 남는 것이다. 중공과 북괴는 가장 유효한 수송수단으로서 철도를 갖고 있다. 현재 평양과 북경 사이는 급행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북경에서는 소위 한국전쟁 발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회담이 중공과 북괴 군사고위층 사이에 열렸다. 그 자리에서 중공군 참모총장 황영승은 중공은 북괴를 도와 미국과 일본을 대항에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해 4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중공수상 주은래의 성명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며 중공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는 관심도를 반증했다. 주은래는 평양 방문에서 우선 닉슨·사토 회담에 이은 새로운 미·일 안보체제를 견제하는데 역점을 둔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66년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북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 때 자주노선을 선언했던 북괴를 중공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진력했다. 자의든 타의든 지정학적으로 보아 중공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우리이고 보면 중공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유연정책과 아울러 북괴와의 움직임에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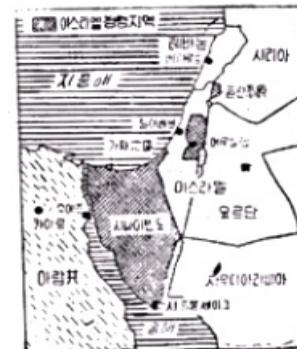
<명언>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을 얻게 된다. 성실해질수록 태도가 안정해진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하늘 땅 앞에 자기가 엄연히 존재해 있다는 관념은 성실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 오 우 레 리 아 스 —

중동분쟁 어디까지 왔나

정 규 응
<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① 잠정적 휴전 그 주변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6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 70년 8월 당사국들이 90일간 휴전에 동의하기까지 3년여 중동전역은 언제 전면전쟁이 벌어질는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8월 8일 발효된 90일간의 중동휴전에 근거가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전에 발표된 로저스 미 국무장관의 중동평화안이지만 실상 로저스 평화안은 6일 전쟁이 일어난 해인 67년 11월 27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평화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화안으로 평가되었다.

내용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평화안과 대동소이한 로저스 평화안이 3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쉽사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적인 상황이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 평화안을 수락하게끔 했다고 볼 수 있다.

나세르 대통령 생존시였던 90일 휴전발효 당시 통일 아랍 공화국의 입장은 로저스 평화안에 꽤 긍정적이었다. 해석상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로저스」평화안이(물론 유엔 안보의 평화안도) 제시한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는 평화안 수락의 기본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외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은 비록 미국으로부터 평화해결 없이는 이스라엘군을 점령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지 않고 중동에서의 힘

<중동전쟁 어디까지 왔나>

의 균형 상태가 이스라엘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시하겠다는 보장은 받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67년과는 훨씬 달라지고 있다는 데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로저스 평화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로저스 평화안이 표면적으로는 중동 전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당사국인 이스라엘이나 통일 아랍 공화국의 속셈은 일단 수락하여 급한 불부터 꺼놓고 보자는데 지나지 않는다. 90일 휴전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스라엘과 통일 아랍 공화국이 다시 90일 연장에 동의했으면서도 또 그 두 번째 90일 휴전만료 직후 다시금 휴전기간 연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양쪽 군대가 스에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언제든지 즉각 전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팽팽히 맞서 있는 현실이 그러한 당사국들의 속셈을 대변해주고 있다.

② 분쟁의 내력 양측의 주장

세계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두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은 5천년이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이권다툼 때문에 줄곧 외세의 압력을 받아 왔다.

숨길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 민족주의자들의 영유권 주장은 꽤 타당한 듯하지만 이스라엘의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서력기원 전 13세기 팔레스타인의 거의 전역을 정복한 12개 부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부족이었다. 서력기원 전 6세기 이들 12개 부족은 아랍 세력에 의해 축출되었으나 불과 반세기만에 되돌아와 서기 135년 로마인에게 쫓겨나가기까지 약 8세기 동안 그 지역의 주인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주장이 정확한 역사와 부합한다 해도 팔레스타인의 영토권에 관한 한 유대민족보다는 아랍민족이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것이 세계의 석학 아놀드·토인비 박사의 견해다. 사실 피차가 역사의 한 귀퉁이를 끼집어내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 논쟁은 결코 끝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토인비 박사 견해의 근거는 1948년까지 1천 3백년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살아 온 민족은 이스라엘 족이 아닌 아랍 민족이었다는데 있다. 통일 아랍 공화국측은 이를 뒷받침으로 하여 1918년 현재 팔레스타인 인구의 90퍼센트는 아랍인이었다고 주장한다.

<중동전쟁 어디까지 왔나>

근대에 이르러 이들 두 민족이 숙명적 대결을 하게 된 것은 실상 따지고 보면 강대국들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17년의 벨포어 선언(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의 모국 재건을 지지한 영국 아더·제임스·벨포어 선언)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 발을 붙일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30년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영국이 조금씩 손을 떼어 버리자 두 민족 사이에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

다시 토인비 박사의 견해를 빌리면 유대인이 독일인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미국·영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팔레스타인에 풀어 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었던 것이다.

③ 강대국의 영향력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아랍의 분쟁에 대한 책임이 거의 강대국들에 있는 것이라면 강대국들은 최소한의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평화가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그 전쟁이나 평화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이란 대체로 아랍 측을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는 소련과 이스라엘의 후견국이 되고 있는 미국으로 집약되지만 아직도 중동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영국·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소련의 속셈을 보면 소련은 중동진출을 통해 첫째, 나토(북대서양동맹 기구)를 견제하고 둘째, 아아(亞阿)에의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셋째, 석유에 대한 장기적 이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 지역의 미국 군사 기지와 시설, 경제 및 기술투자, 그리고 석유자원에 대한 막대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소련의 입장에 비하면 영국 프랑스는 훨씬 융통성 있는 외교정책으로 중동지역에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강대국들의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중동평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이 무기원조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시는 물론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알게 모르게 군사원조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수련의 아랍 공화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괄목한 것이며 소련 스스로의

<중동전쟁 어디까지 왔나>

군사개입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이스라엘이 선선히 평화협상에 응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65년 현재 전함 잠수함이 각각 5척씩에 불과하던 소련 지중해함대는 71년에 이르러 전함 30척 이상 잠수함 10척 이상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미미하던 중동지역 내 소 공군세력이 현재 30개 이상의 공군기지와 5백 여개소의 격납고를 갖추으로써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해 큰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련의 아랍 공화국에 대한 직접무기원조이다.

④ 쌍방의 군사력

사실 67년 6월 전쟁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아랍 공화국보다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스라엘은 거의 중동지역에 걸친 제공권을 장악하여 나세르의 아랍 공화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의도 70년 3월에 이르러 소련의 샘·미사일 배치, 그리고 미그기와 조종사 파견 등으로 갑자기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방위력뿐만 아니라 아랍 공화국 스스로의 공격력도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6일 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탱크가 3백대에서 1천 2백대로, 중포는 4백문에서 약 2천문으로, 전투기는 불과 1백대에서 8백대로 각각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특히 증가된 전투기 가운데는 우수한 소련제 미그 21기가 2백대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소련조종사가 조종하는 미그 21기가 1백대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6일 전쟁보다 현격한 증가 없이 1천여 대의 탱크, 약 4백대의 전투기, 호크·미사일 발사기 1백여 대, 팬텀기 약 1백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군사력에서 아랍 공화국에 뒤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양측의 군사력을 균형 상태로 평가하는 근거는 첫째,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파일럿이 세계최우수인데 비해 이집트·소련의 파일럿들은 미숙하고 수준 미달이며, 둘째, 이집트 내 소련 조종사들이 아직까지는 소련공군의 명령 하에 있는데다가 이스라엘기들이 스에즈서만 55km 지점을 넘어올 경우에만 반격토록 명령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이스라엘이 샘·미사일을 증가할 수 있는 핵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중동전쟁 어디까지 왔나>

⑤ 전쟁에의 길 평화에의 길

양측의 힘의 균형은 즉 상호전제를 의미하며 상호 전제가 되는 한 어느 한 쪽도 선불리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란 어디까지나 객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 평화협상은 무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70년 8월 유엔의 중동평화특사 군나르·야링 주재하의 휴전에비회담을 이스라엘이 보이콧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평화회담 진행 중에도 소련의 아랍 공화국에 대한 원조가 계속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시간을 벌게 해 줄 뿐이리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주장을 시인, 소련과 아랍 공화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무력 균형을 위해 팬텀기, 전자 장비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언질을 주었다. 이것은 두엇을 뜻하는가.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은 다음과 같은 어떤 정치 평론가의 글 속에 집약되어 있다. 즉,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 그 자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평화회담 그 자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이 말은 쌍방이 평화회담에 응하는 것이 피차 자기네들에 유리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협상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은연중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 쌍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쟁시초부터 지금까지 평행선만 치닫고 있음은 평화협상이 아무리 진전된다 해도 그것은 잠정적인 평화가 될 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언제까지도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 아랍 공화국의 주장은 70년 7월 나세르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시 브레즈네프에게 명백히 했듯이 첫째, 이스라엘의 점령지 전면철수 둘째, 팔레스타인 난민의 자유로운 귀향이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첫째, 점령지의 전면철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향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랍 측에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국경은 인정해 줄 것과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할 것

<중동전쟁 어디까지 왔나>

등 역시 아랍 측으로서는 선뜻 응할 수 없는 것들이다.

67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나 70년 6월 미국 로저스 국무장관의 평화안이 이스라엘, 아랍의 주장을 각각 절반쯤 물러나게 한 것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의해서 중동평화가 이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당초부터 크게 기대되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이들 쌍방은 전쟁에 의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가! 사실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빠른 것이다. 이스라엘, 아랍간의 전면전쟁은 곧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의미하며 미국과 소련의 전쟁은 곧 세계 전쟁을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기네 이전문제에서 양보할 뜻을 비치지 않으면서도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군과 아랍군이 스에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아무리 팽팽히 맞서 있어도, 또 2월 5일의 휴전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사다트, 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총력전을 분기시키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였어도 이스라엘이나 아랍 세계 모두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고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어쨌든 평화의 길은 멀다 해도 전면전쟁의 가능성도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이 중동의 현실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아랍 전 쌍방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장기적 휴전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보면 강대국이나 유엔의 중동 평화노력이 그때그때 잠정적이거나 중동평화를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큰 구실을 해 줄 것이 틀림없다.

박 대통령 문언록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 부패와 공산주의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삼대적인 것이다. 빈곤은 생존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인간의 천부적인 개성을 억압하고 정직과 성실과 창조력을 말살하는 것이며 부정, 부패는 인간의 양심과 친화력을 마비 저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는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라오스 진공작전을 중심으로—



한 영 탁
<조선일보사 외신부>

70호의 캄보디아 침공 작전에 이어 지난 2월초 미군의 공중지원을 받은 약 1만 6천 병력의 월남군부대가 라오스 국경을 넘어 진공함으로써 월남전은 이제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지반도(印支半島) 3국에 걸친 인도지나전쟁으로 확대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1970년 미 특수부대회 개입으로부터 기산(起)해도 줄잡아 10년.

월남을 발화점으로 한 인도지나반도의 불길은 이제 72년 말로 예정된 미군의 완전철수를 앞둔 시점에서 연합군과 공산군의 승패를 건 최후의 결전단계로 접어든 느낌이 짙다.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되어 종말 없이 확대 되어온 밀림속의 혈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떻게 매듭지어 질까—.

여기 숨 가쁜 확장(擴張) 하이웨이로 치달리는 인도지나전쟁의 오늘의 현황과 내일의 전망을 살펴본다.

◇비밀속의 대작전

작년 5월 미·월 연합군의 캄보디아의 공산성역(共産聖域) 소탕작전 이후 연합군의 현저하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해 오던 전쟁이 갑자기 격화된 것은 지난 2월초에 실시된 월남군의 라오스 진격작전을 기점으로 해서였다.

랍손 719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그보다 1주일 앞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월남의 DMZ(비무장지대) 바로 남쪽 월남북부지역에서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보도관제 아래 진행된 듀이·캐년 2호 작전과 직결된 작전이었다.

듀이·캐년 2호 작전은 지난 1월 30일 새벽 1시를 기해 사이공 동북쪽 6백 80km지점의 월남해안도시 광트리의 기지를 출발한 60대의 헬리콥터에 분승한 미보병 3개 중대가 2년 전 미 해병대가 철수했던 캐산기지로 재투입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예상외로 그다지 저항을 받지 않고 2년 전 70여일에 걸친 공산군의 포위공격으로 포기했던 캐산기지를 재탈환한 미군은 곧 이 기지의 재건과 황폐된 비행장 활주로의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미제5기계화사단 제1여단은 라오스 국경선에서 2km밖에 떨어진 지 않은 랑베이의 옛날 미군특수부대(그린베레) 기지로 이동, 이 기지에 강력한 화력지원포대(砲隊)를 구축했다.

이로써 라오스 진공작전의 전열은 일단 가다듬어 진 셈이 되었다.

즉 팡트리를 출발한 월남군 침공부대들은 대형 수송기편으로 캐산기지까지 공수되면 여기서 다시 헬리콥터 편으로 라오스작전의 고두보가 될 랑베이로 보내져 집결된 후 라오스로 넘어 들어가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라오스 침공을 위한 이 같은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월 연합군당국은 철저한 보도관제를 단행했다.

모든 취재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월남북부지역에는 보도진의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작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 챈 사이곤의 내외 보도진들은 취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뉴스원(源)에 끈질긴 접근전을 시도했다.

사태가 이쯤되자 미·월 군당국은 기자들에게 비밀히 사태를 브리핑 해 주었다. 그러나 대신 이를 기사화 못하도록 엄중한 보도관제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월남에서 추방하겠다는 정도의 철저한 보도관제였다. 그래서 작전은 엄격한 비밀에 싸인 채 착착 진행되어 갔다.

이 같은 비밀 속에서, 라오스 침공준비 작전이 끝나자 군당국은 2월 4일 오후 보도관제를 해제했으며 티우 월남대통령은 2월 8일 오후 8시 2분을 기해 마침내 월남군에 라오스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토록 명령을 발했다.

랍손 719작전은 이렇게 하여 개시되었다.

티우 대통령의 명령을 신호로 이때까지 라오스 남부국경 인근에 집결해 있던 1만6천명의 월남군은 속속 국경을 넘어 라오스를 쇄도해 들어갔다.

한편 라오스 작전과는 별도로 이와 거의 같은 시간 1만 8천명의 월남군이 캄보디아의 낚시 바늘지역으로 진격 또 다른 대소탕작전을 개시했다.

◇ 호(胡)루트를 부쉬라

월남군의 라오스령(嶺) 침공작전의 목적 은 한마디로 월남 및 캄보디아 전선으로 투입되는 공산군의 보급 및 병력수송 루트인 이른바 호지명통로를 소탕, 이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작년 5월 미·월 연합군의 캄보디아 작전이 있기 전까지의 월맹군의 보급 및 병력수송루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남쪽에 위치한 심해항구(深海港口) 콤포송항(港) (前시아누크빌)을 이용한 해상통로가 그 하나였고, 월남의 비무장지대 바로 위쪽 월맹지역에서 라오스남부의 산악 및 정글, 고원지대를 거쳐 월남북부지역과 캄보디아 동북지방으로 빠져가는 육로가 또 하나의 주요한 보급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이나 중국 혹은 월맹에서 바다로 통해 보내진 공산군의 전략물자는 콤포송항에서 이른바 시아누크·루트로 불려진 보급망을 경유 월남남부의 메콩델타지역에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산재한 이른바 캄보디아의 공산군 성역(聖域)으로 중계되었다.

이 루트는 해상을 통한다는 이점과 월남에 인접해 있다는 조건 때문에 공산군에게는 매우 유리한 주보급 채널이 되어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캄보디아에 쿠데타가 일어나 론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우파세력(右派勢力)이 친공산주의자인 시아누크공을 권좌에서 몰아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월맹군에 콤포송항의 이용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월남국경과 가까운 자기나라 영토에 공산군의 보급, 병력집결지와 월남에서 패주하는 공산군의 은신처를 제공, 캄보디아를 공산군의 성역화했던 시아누크와는 달리 론놀 수상의 새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작년 5월초 미·월 연합군이 캄보디아 내 베트남중양총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낚시바늘, 앵무새부리 등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캄보디아내 공산군의 보급로는 완전히 마비되는 된서리를 맞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콤포송항을 중계지로 하는 해상보급로를 상실한 월맹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수행을 위한 병력 및 보급품수송을 불가피하게 호지명통로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이번 월남군의 랍손 719작전이 개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월남과 캄보디아에 투입되는 월맹군의 병력 및 전략물자의 거의 90%가 이 호지명루트를 거쳐 남하되는 형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호지명통로는 월남전의 월남화작업과 주월미군의 조속한 철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군이나 월남군에 눈에 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온 것을 오히려 당연하고도 남을만한 것이었다.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그래서 주월미군사령부는 태국에 기지를 둔 B52중폭격기와 미해군함재기들을 대량투입 호지명통로를 연일 강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중작전에도 불구하고 호루트를 통한 공산군의 침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해발 1천m가 넘는 험준한 산악과 고원지대를 누비는 1만이 넘는 작은 길이 하늘을 가린 짙은 밀림 속으로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뒤얽혀 있는 호지명루트는 실제로 공중공격만으로는 도저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호지명통로를 통한 공산군의 침투는 지난 한 해 동안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난날로부터 종래에 있던 보급망을 대폭 개선하기 시작하여 최근엔 무기아령(鎗)―사라방 아토펜을 연결하는 지역에 새로운 제2의 보급로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호루트를 분쇄하여 공산군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대두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든지도 모른다. 이런 전략아이디어는 하루, 이틀사이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주월미군 지도자들과 월남군 고위층에 의해 이미 오래전― 적어도 캄보디아 작전 후부터 연구되고 주장되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이 구미당기는 작전을 제때에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캄보디아 침공 작전 이후 군내외의 반전여론(反戰輿論)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회가 미국은 더 이상 월남 이외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미군지상전투 부대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쿠퍼―처지결의안을 채택, 미군 작전의 한계를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었다.

캄보디아 침공전으로 강력한 발전여론에 봉착했던 미국 정부도 월남 이외 인도지나 지역에서의 미공군작전도 공산군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미군의 생명이나 철수계획을 직접 위협받았을 때에만 공격한다는 이른바 보호적 반응에 한정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호루트를 통한 월맹군의 침투가 미군생명과 철군계획을 위협한다는 명분 아래 공중공격을 할 수 있었으나 지상군부대의 투입은 자체 해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끊임없는 공산군의 호루트를 이용한 전략물자 집적과 병력유입을 묵과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는 더구나 72년 말까지 모든 전투임무를 월남군에 이양하고 완전철군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철군 후 월남의 적화(赤化)를 막기 위해서는 호루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공산군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당위(當爲)는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명제이기도 했다.

게다가 72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공산군이 72년 선거와 미군철수에 타이밍을 맞춰 대공세를 취하기 위해 호루트에 대규모적인 병력 및 장비를 증강시키고 있다는 최근의 정보보고들도 또한 호루트에 대한 선제공격(先制攻擊)을 재촉해 주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궁지에 몰린 미군사령부는 하나의 대안(代案)을 안출한 것이 바로 람손 719작이던 것 같다.

그것은 미공군기와 포병, 헬리콥터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미지상군 대신 월남정부군을 대거 라오스로 진격시켜 호지명통로를 때려 부순다는 계획이었다.

미지상군의 직접 투입 없이 호지명루트를 분쇄해 보기 위한 궁여지책적인 편법이었던 것이다.

이 계획이 바로 듀이 캐넌 2호 작전과 람손 719작전으로 연결되는 이번 라오스 침공으로 실행되었던 것이었다.

◇백열적인 공방전

2월 8일 티우 대통령의 작전개시명령을 신호로 미공군 전폭기들과 헬기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월남군 정예부대들은 파죽지세로 라오스로 밀고 들어갔다.

미공군은 월남군의 작전을 돕기 위해 매일 9백 내지 1천회의 출격을 단행, 월남군이 진공 해가는 전진방향 전방에 무수한 폭탄을 퍼부어댔다. 월남전의 어느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군 헬리콥터들의 활약상도 또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전진방향의 전방을 미군전폭기들이 철저히 두들겨대고 나면 대형 헬리콥터들이 월남군의 병력과 전략물자를 투입 재빨리 전진기지나 화력지원기지를 구축하게 했는데 이때 미군의 공격용 코브라 헬리콥터들은 공산군의 접근을 경계했다. 이같이 하여 처음 얼마간 월남군의 작전은 캄보디아 작전 때와 같이 성공적인 것 같았다.

작전개시 1주일 만에 월남군은 거의 공산군의 저항을 받음이 없이 국경에서 32km 지점까지 깊숙이 진격, 작전계획 보다는 약간 늦어졌지만 곧 주요한 공격목표인 체폰을 점령할 듯이 보였다.

체폰은 월남의 북부 동하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 라오스 서남쪽 태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사바나케트에 이르는 옛날 불령인도지나(佛領印支)의 제9번 공로의 한가운데 위치, 호지명루트의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공산군의 보급 집적소로 알려져 있다.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이번 월남군의 라오스진격작전의 최종목표지역이 체폰으로 설정된 것도 체폰이 갖는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체폰과 9번공로(公路)의 점령은 곧 호志明루트의 목을 조르는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체폰지구에 산재한 약 3만5천의 병력과 9번공로 남북에 포진하고 있던 약 2만의 공산군 병력들은 월남군의 진격에 완강한 저항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작년 미·월군의 캄보디아 침공 때는 재빨리 성역을 비우고 철수, 피해를 최소화 줄였던 공산군이지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전략적요충인 호志明루트에서만은 기피보다는 대결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월맹군은 2월 26일엔 소련제 TP-76경 탱크 12대까지 동원한 1천여 명의 병력을 라오스 국경에서 8Km지점에 위치한 31고지를 역습 월남군의 정예 공정사단예하의 1개 대대병력 4백50여 명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다.

공산군은 31고지에서 여세를 몰아 홍하2호기지 및 미군들이 세계적 여배우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소피아(로렌), 리즈(테일러) 고지들에 치열한 공세를 취해왔다.

이에 월남군의 진격작전은 다소 주춤해질 수밖에 없었다.

◇ 캄보디아와는 달랐다

월남군의 이번 라오스 작전은 흔히 작년의 캄보디아 작전과 비교되고 있다. 캄보디아 진격작전 때 월남군을 하루 몇 10Km씩 진격하여 10여 년간 공산군의 온상지가 되어 왔던 성역을 두들겨 부심으로써 월남군의 전투 병력을 재평가 받고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수 있었으며 월남남부 메콩삼각추지역에서의 공산군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었다.

이번 라오스 침공에서도 이와 꼭 같은 성과를 거둬으로써 월남화 계획의 성공을 인상 깊게 과시하고 미군의 명예로운 철군을 촉진하자는 데서 이번 작전이 채택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라오스 작전에서는 달랐다.

첫째 지형적인 조건이 판이했다.

캄보디아는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월남군의 기갑력이 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 남부지역은 험준한 산악과 짙은 밀림이 깔려 있어 진격속도를 늦게 했다. 게다가 전기한 바와 같이 공산군의 반격 또한 치열했다.

그 위에도 설상가상 격으로 33mm포를 포함한 공산군의 치열한 대공 포화에다 악천후가 계속되어 공군기의 출격이 크게 방해받았으며 해발 1천미터에 달하는

<월남전의 새로운 방향>

고원지대엔 언제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포병지원을 위한 관측이 어려웠다. 이런 악조건으로 라오스 진공작전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라오스 작전이 전혀 성과가 없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 첫째 성과는 이 작전으로 공산군의 보급품 남하율을 약 50%가량 줄이고 그들의 전력을 일단 라오스영내에 묶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이 작전으로 한때 연합군에 불리했던 캄보디아 사태가 얼마간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겠다.

물론 라오스 작전기간에도 공산군을 캄보디아의 콤포스항의 정유소와 4번 국도를 유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때 프놈펜까지를 위협하던 공산군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되었던 것이다.

◇ 매듭은 5월까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월남군의 전쟁수행능력의 한계가 밝혀졌다는 것이 되겠다.

캄보디아전의 성공으로 그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던 월남군이 미군의 제한된 지원 아래서는 아직도 모든 전쟁임무를 떠맡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에 입각해서 추진해 온 월남전의 월남화가 아직 하나의 드라마로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주월미군의 철군스케줄도 재고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도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라오스작전에 인상적인 승리를 기록해야 할 당위(當爲)에 쫓기고 있는 미군이나 월남군은 앞으로 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 라오스작전의 마무리에 나설 공산이 짙다.

월남해병 정예부대의 월맹상륙 계획설까지 대두되는 이면도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월남군의 월맹본토침공은 중공의 개입 위험 때문에 거의 현실성이 희박한 것 같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전쟁의 방향은 라오스 남부지역에 새로운 우기(雨期)가 시작되는 5월까지 월남군은 공산군에 가능한 한 큰 타격을 주고 이 작전을 끝낼 계획인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닉슨 미대통령은 새로운 철군계획을 발표, 높아진 발전무드를 냉각시 키고 철군의 계속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근목 · 이 건 명

제1장 서론

올바른 기독교 가정윤리의 형성은 건전한 기독교 사회윤리 형성의 기본단위가 되며, 그 요인이 된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가정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가정은 사회의 온상으로써 사회의 초석이며 관문이 되는 것이다. 가정은 육체와 정신적인 인간의 요구와 다방면의 성공적인 만족을 주는 노력의 결정이기도 하다. 가정은 또한 사회 구성의 최저 기본단위의 집단으로서 가정의 위치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기본 조직으로써 신의 섭리와 경륜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운명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결혼과 새 가정의 창건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실제적 사실들은 허다하게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크나큰 윤리적 병에 걸려 있으며, 이 병의 치료방법은 기독교 윤리의 이념과 실현의 보급에서 가능한 것이다. 한국 가정윤리의 문제점으로서 대체적인 대가족제도와 여기에 수반되는 상하관계의 종적관계와 이러한 가족제도의 형성 근간인 효와 피 그리고 흠의 사상,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결점으로써 혈통편중, 존속편중, 남편편중 등의 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8·15 이후 급격히 밀려들어온 구미 문화의 사조와 고유한 전통적 한국 가족윤리 간에는 부조리한 혼잡을 이루어 갈팡질팡하는 한국적인 제문제점과 현상들을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정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등의 사상을 보급시켜 수습하여 원만한 기독교 가정윤리를 형성시켜 건설적인 민주주의 가정, 더 나아가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한국 가정관을 형성하려는데 본 논문 서술의 동기와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현실적인 위치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가정관을 이해하도록 하여 현 하 한국 가정윤리의 생활과 기독교적인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가정윤리의 생활과의 거리를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려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주지하는 바는 현시대가 분초를 다투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우주시대이기에 이 논문을 쓰는 이 순간에라도 문화의 표준 내지 윤리의 표준이 180도로 전환될지 모르며 이로 인하여 본 논문이 옛 시대에 속하게 되는 맥없는 글이 될까 염려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표준과 척도는 가변적인 성격을 띤 것이므로 본 논문의 절대성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물론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의 근간인 사랑, 평등, 정의의 법은 그 형태는 가변적일 수 있되 항상 그 내용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장에서는 한국 가정의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이에 적응한 사회적인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가족윤리의 대가족관계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보수적 가족제도에서 오는 제문제점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근간인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평등 그리고 정의의 법을 논술하고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을 기술하였고, 4장에서는 2장의 제문제와 8·15 이후 도래한 구미문화와 재래문화 사이의 사이에 생겨난 갈등과 부조리한 문제점을 놓고 3장의 기독교 윤리의 표준에 의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한국 가정윤리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가족제도의 종적관계는 어느 정도 횡적관계로, 효와 순종의 사상은 성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로 또한 예수의 사랑, 평 등, 정의와 정신을 보급시켜 원만한 한국 가정 형성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위하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논술하였다. 끝장인 결론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정 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해결을 위한 Goal형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 가족관계의 형성과 제문제점

제1절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적응

한국의 가족 윤리체계는 역사적으로 불교의 적은 영향과 유교의 다대한 영향을 받아 그 윤리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윤리 안에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암암리에 유교적인 윤리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상하윤리체계에 있어서 효(孝),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충(忠), 이것은 상하계급 의식으로써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백성은 임금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를 생각하여 왔다.

그리하여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유교는 봉건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도구였다. 라고 혹평하였다. 즉 유교의 윤리는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편성되었고 다스림을 받는 아랫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형성되었다. 이 윤리체계는 비생산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여기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서 침체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또한 악의 요소로서의 위신과 형식적 경건주의가 성숙되게 되었다. 자칭 위엄과 권위자로서의 아버지의 특권은 아버지에게는 유리하나 자녀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었으며 이 사상은 전통적인 효의 정신으로서 지탱돼 왔으나 현대 구미문화의 도래로 그 명맥은 끊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간의 대화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의 윤리적 상황도 그 양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유한 한국의 가정윤리의 장점과 도래한 서구적인 새로운 윤리의 장점이 조화를 이루어 기독교적인 윤리 형성이 한국 가정에 있어서 형성되어 기독교윤리의 토착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부자관계 등의 종적인 관계 하에 가족제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횡적 동적 평등의 부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용어에 있어서도 남편은 모신다, 아내는 거느린다란 말이 있다. 그리고 혈연관계를 너무 따져서 촌수 관계에 집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적인 관계는 가능한 한 줄이고 횡적인 것은 늘여야 할 것이다. 폭 넓은 횡적 관계를 못 보고 폭 좁은 종적관계만을 보는 민족은 발전이 뒤늦게 된다. 효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과거 농업시대에 생각하던 형식적인 효의 이념과 이해는 이제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 또한 가족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가족윤리는 유교사상인 상하관계, 종적관계에 수반되는 효의 사상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왔으며, 피와 흙의 관계가 너무 견고하게 대가족제도를 이루어 놓아 밀받침을 하고 있다.

제2절 한국가정의 제 문제점

한국에 있어서 가정의 특색과 위치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찾아보기 어려운 여건들을 무한히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정의 형성 구조와 제반 요소를 등한시 하고는 원만한 연구나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외부적 침략과 내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혼잡 된 와중의 상황 속에서 가정이 불변의 자세를 고수해 온 것은 한편 생각하던 한국의 특수한 가족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 초기에 있어서 애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유한 한국 가족제도와와의 정면충돌에 있었다. 한국 가정의 윤리적인 포인트는 효의 사상이다. 곧 한국의 가정을 유지해온 기본윤리는 효이며, 삼강오륜 역시 가정적인 요소로써 나타났고 3대 덕이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온 유교사상과 한국적인 일부 요소들이 여기에 가미되어 형성된 사상이다. 비교적 불교는 한국가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사회윤리에 관심을 두는 유교는 효를 존중하는 한국가정과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조는 거의 오백여년 간 효의 정신으로 가족 국가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드디어 효의 정신을 극구 찬양하고 마침내는 이상화시키게 되어 조상을 숭배하고 선조들의 업적을 숭양하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라 안에는 혈연적인 분열과 쟁탈전 등으로 마지막을 고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한국 가정은 효가 중심이었고 효는 모든 도덕의 근본적인 요소로써 인식되었다. 한국 가정은 피라미드형의 가족제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자연히 효의 정신이 핵심을 이루어서 여기에 순종이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제도는 장점도 있으나 비인격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다. 또 이 관계는 집단적으로서 상하의 관계만 즉, 종적인 관계만 되어져 있고 도무지 상호관계 즉, 횡적관계는 전혀 무시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집단이란 개념만이 활기를 띠는 것이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이란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정(貞)은 여자에게만 요구되어 왔으며 남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는 거의 도외시되어 온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 시점에서 한국 가정의 전부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가정에 있어서 구미적 민주주의 수입과 함께 많이 개선되어 있으나 보수적인 전통이 암암리에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고 아버지는 폭군으로 불려져서 엄친(嚴親), 엄군(嚴君)이라고 불려왔다. 우리 민족은 원근의 것은 촌수에 표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해오는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란 말이 있으나 이 말은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차명적인 윤리는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피와 흠의 윤리식이라 하겠다. 한국 가정의 문제해결의 초점은 피와 흠의 윤리의식과 종적 관계에 대한 재검토이며, 그리스도의 성숙된 사랑과 평등의 사상의 토착화에 있다고 본다.

제3장 기독교 가족윤리의 위치와 그 관계

제1절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의 가족윤리

구약에 나타난 가족윤리를 먼저 살펴보면 당시의 가족제도는 가장,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대가족제도였으며 전제적인 부권제도로서 아버지가 전권을 행사했고 그에게 온 가족의 종교적 생활의 지도권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생사의 탈취권까지 있었고 다른 가족은 이에 무조건 절대 복종하는 생활이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이를 책망하고 징계하였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초기 이후에 와서 일부일처주의의 가정생활이 영위되었고 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신약에 나타난 가족 윤리를 다음으로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가정에까지 많이 말씀하였고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부모 밑에서 형제들과 같이 33년 동안 가정에서 살으셨다는 것은 인류생애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가정에 대한 애착심을 말하여 준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가정을 참으로 고상하게 생각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전제적인 대가족제도는 무너져가게 되고 소가족제도 형성이 시작하였으며 가족 개개인의 인격을 중요시하는 일부일처로서 이룬 가정을 중히 여기게 되므로 개개인에 대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그리하여 가족의 질서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가족 간의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인정하셨으며 거대한 책임을 말씀하셨고 형제간의 화목을 소중히 여기셨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바울이 가진 가족윤리를 살펴보면 바울은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과 같이 생각하였고 초기에 있어서 바울은 부장 가족제도를 중히 여기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정의 조화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하였다.

바울은 결혼을 중히 여기고 신성한 것으로 보아 가족이 서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바울은 특별히 부부가 상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고 또한 자기 몸같이 여겨야 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여 주께 하듯 하며 남편은 강인하다고 권고하였다.

성서에 나타난 가정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근거의 근간은 사랑, 평등과 책임 의식에 입각한 정의의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가정은 일부일처주의로 성립이 되어야 하며 가족의 구성원 자체는 상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가족제도, 가정윤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제2절 기독교 가족윤리의 중요성과 이해 및 그 실현

기독교 가족윤리는 그 범위가 기독교 사회윤리에 속하는 것으로써 인격적인 윤리인 동시에 다른 모든 윤리와 함께 가족윤리도 사랑의 법 아래서만 이해되며 실현되어 진다. 그러므로 가족이란 당사자 간의 전인격적인 전 생애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창조 목적 중에서 가족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의미 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생활의 시간과 발달과정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인간관계를 진실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윤리적인 합일일 것이다. 예수께서도 인용하신 한 몸의 이념은 육체와 영혼으로서 이루어진 인격들이 똑같은 인격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성적(理性的)인 타자와 결합하는 것이다. 여러 다른 세대 이성 그리고 다른 개성들이 서로 사랑에 의해서 성립된 이 공동체는 역시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며 이 가정은 부름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 이들의 가족은 교회에 봉사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의 가족들은 그들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세상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써 윤리문제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윤리를 논술함에 있어서도 성서에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기록된 도덕적인 법칙이나 윤리적인 계명에 얽매일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전체를 통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랑의 법으로써,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마음 상태와 행위의 동기와 그에 대한 태도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아가페(Agape)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가족 안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가정 속의 가족들과 달리 독특한 동기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마음과 다 같이 구주께 봉헌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의의와 안전성이 있으며 그 체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으로 결합된 가족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큰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윤곽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더 강하고 보람 있게 만든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된 일이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족 간의 윤리적인 생활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체험하게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기독교인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제4장 방향제시와 해결책

제1절 교회가 제시해야 할 방향과 그 과제

한국에 있어서 효와 순종의 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순종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어디까지나 인격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적인 효에 대한 강제성으로써 수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순종의 대상은 핵심으로 보아서 하나님인 것이다. 우리는 가정에 있어서의 제 윤리관을 고려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건전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여야 되며 순종은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야 된다. 또한 이러한 제문제들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근본 핵심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기독교의 윤리적인 기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피라든지 흠의 사상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 가족제도에 있어서 지나친 상하관계는 어느 정도 파괴 및 완화되어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상호관계 즉, 횡적관계가 형성되어 발전해야 한다.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이러한 관점에서 부자 사이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딪친 문제는 사실상 소소한 가정문제인 것이다. 그것도 모세의 제2계명에 부딪친 것이다. 최초 선교사들과 기독교의 선구자들은 한국의 고유한 조상숭배를 부정한 까닭에 한국의 전통주의를 따르고 피와 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심하면 복음까지 잃었던 것이다.

결국 어느 면에서는 기독교 선교사가 기독교의 근본적 핵심과 윤리의 근원인 사랑의 법을 전하기 위하여 애써오고 싸워온 것이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일은 반성과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어느 각도에서 보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대결하였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법으로써 대결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슬픈 역사며 교회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솔직한 실제적 사실들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근본인 사랑의 복음과 관용성 있는 근본적인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한국의 깊은 사회 속에 침투해야 하며 토착화시켜 기독교 윤리를 이 땅위에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제2절 현 지도자들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책

교회는 다방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정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 연구의 시간을 통하여 가정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인 사랑, 성(Sex), 가족관계, 부모의 책임, 자녀교제, 인격성장 등에 관한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와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윤리관을 세우고 사회윤리 문제들을 당시당시 토론하여 저들의 제반문제 해결에 조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와 강의 등을 통하여 가족 제윤리문제, 남녀교제 문제, 인생문제, 배우자 선택문제 등을 비롯한 제문제들을 기독교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줄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행사, 국가적 경축일, 교회적 절기와 주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진보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심방을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가족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기독교 가족윤리 형성과 원만한 기독교 가정의 완성을 위하여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에 중요한 한 과제로서 목회문의(Pastoral Counseling)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목회 문제에 있어서 문의자의 문제가 사무 처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답의자 중심법(Directive Counseling)을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일반적 일상생활에 제반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문의자 중심법(Non-Directive Counseling)을 사용하여 문의자 자신이 통찰력(Insight)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옹계 해결 지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목회문의 를 통하여 원만한 기독교 가정형성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교회와 교회지도자 그리고 목회자는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윤리적 표준 밑 에서 가족제도, 성(性)과 결혼, 부부문제, 산아제한, 이혼문제, 결혼 후의 문제, 자녀 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표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기독교의 가족제도는 개인주의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고 사회적 조류에 건전하게 적응하면서 사는 제도적 가족제도의 장점과 민주주의적 책임과 권리주장의 가능과 행복의 균형을 채택한 우의적가족제도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일부일처주의의 이상적인 가족제도이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한국 가정의 제 문제점과 실정을 열거하고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분석과 비판을 하고 건전한 한국 가정 윤리의 형성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려는데 관점을 두어 논술하였다.

현하 한국 가정윤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수적 가족윤리와 8·15 이후 구미 각국에서 밀려들어 온 급진적인 문화, 윤리와의 사이에 빚어진 부조리와 모순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과거보다는 한국의 가정윤리의 가족제도 등에 큰 개선과 변화가 온 것만은 사실이나 아직도 봉건적사상이 암암리에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문화와 윤리 면에서 이제 우리는 우주시대에 처하여 고유한 한국의 전통만을 고집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구미 문화와 윤리를 받아 답습하여 따를 것도 아니다. 양자 조류를, 상호 장점을 택하고 융화시켜서 건전한 민주주의 문화와 윤리, 더 나아가서 기독교 가정윤리의 형성과 토착화에

<한국 가정윤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검토>

현 교회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가정 형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평등과 정의는 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며 최대의 선물중의 하나이다. 옳고 바른 가정을 지닌 자는 그 자신이 행복해 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웃과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주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그의 구속사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일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때문에 건전한 기독교적인 가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정에 속한 사명 하나를 들고 이 소론을 마치려 한다. 가정은 인간학교로서, 인간의 인식처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훈련장으로서 또 실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사회 세포조직으로서 그 임무와 사명이 지대한 것이다.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관계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입각하여 엄숙한 자세를 지킬 때 전 세계가 요망하는 그리스도의 혁명이 싹터지고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생활은 무시하고 환상과 꿈에만 흘러가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 그 신도들의 윤리적인 경건성과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인 성취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써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에서부터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오직 한분이신 메시 아가 예수시요. 그를 중심으로 한 사랑과 이해와 도움이 없히고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고에 두고, 서로 돕는 신의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가정은 참 낙원의 본보기로서 이에 이러한 가정이 늘어갈수록 인간사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길에 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라 하겠다.

× × × ×

장병복지와 전투력



마 윣
〈전우신문 취재부장〉

장병복지가 군대가정의
근본이다

군대의 강력한 전투력이란 중으로는 지휘관 중심의 일사불란의 지휘 체계와 횡으로는 장병 복지사업이 서로 강력히 엮어짐으로 그 모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날줄과 씨줄이 서로 잘 엮어져 훌륭한 베가 짜여서 나갈 때 비로소 좋은 옷감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전투에 승리하고, 인류사회에 크게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는 군이 항상 요구하는 철저한 교육 훈련을 통한 강력한 전투력을 조성하는데 그 밑바닥이 되는 것이 바로 장병 복지인 것이다.

잘 입고, 잘 먹고, 편히 자며 때로는 부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오락을 즐기며 쉴 수 있고 또 후방 국민들의 뜨거운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군의 최대 사명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투력을 배양하는데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군대의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면 그 전투력이 강하기 마련이다.

또 부대의 복지 시설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장병들은 사기가 왕성하고 전투력도 강하기 마련이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병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무생활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 보자.

<장병복지와 전투력>

또 우리가 병영 생활에서 애국·자주 자립하는 길은 무엇이나를 알아보자.

부대 복지시설 완비는 전투력 강화의 기저

장병복지 하면 우리가 군에 들어와서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그 모든 시설과 행동을 말해 주는 것이리라.

다만 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군 병영 생활의 전부를 통틀어 장병복지에 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장병복지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두가 군의 사명인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바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형적인 복지문제부터 다루어 보기로 하자. 좋은 환경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학생은 역시 공부도 잘 하고 자신의 목표한 바를 향하여 끈끈이 즐기차게 전진을 중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병의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부대, 즉 군대일수록 전투력이 강하다.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오락과 휴식을 취할 줄 아는 군대는 교육, 훈련에 남달리 충실하다 함은 곧 백전백승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혀 그러한 생활환경을 조성시켜 놓지 않고 오직 교육과 훈련만을 강요한다면 그 군대는 표면상은 잘 단결된 듯 보이나 실에 있어서는 오합지중에 다름 없다.

다시 말해서 평소의 화목 단결이나 정신력 배양이 잘 돼 있지 않다면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을 뿐 더러 육체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어렵다.

즉, 장병복지란 장병의 사기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병영 생활 전체가 장병복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나 그 운동에 있어 부하의 사기를 좌우하게 될 때가 있다.

때문에 상급과는 군대 생활 중 내무생활은 문자 그대로 알뜰한 군대가정을 형성하는데 주력하여 부하장병들이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 주어야 하겠다.

교육이나 훈련이 끝나면 샤워장에 가서 몸을 닦고 휴게실에 들려 차 한 잔 들며 장기나 바둑 한판 두고 식사 후에는 내무반에 가서 라디오 또는 TV를 보다가 내일을 위해 푹 쉴 수 있는 내무반.

그 내무반은 우선 환경의 깨끗하고 장병 상하 간엔 서로 신뢰와 우의의 장소가 돼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직장이나 농사일에 나갔던 가족이 서로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장병복지와 전투력>

집에 돌아와 단란하게 하루 저녁을 즐길 수 있는 군대의 안방이어야 하겠다. 그러한 안정된 내무생활은 때때로 부대 안의 휴게실에서 차 한 잔 든다든지 장기나 바둑 또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서를 순화시키는 동시에 내일 싸워야 하겠다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때문에 관심 있는 지휘관은 부대의 복지시설에 각별히 유의하여 장병들의 일상생활에 주의를 깊게 하는 것은 부대의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전투력 개발에 큰 힘이 되는 것 이라는 것을 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교육훈련에 열중한 군대는 아무래도 그 힘이 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제아무리 좋은 부대의 복지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그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기초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장병복지는 시설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복지시설이 못 돼 있는 부대보다 잘 돼 있는 부대의 사기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병 복지란 반드시 시설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군대가정에서 비록 시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휘관, 즉 상급자가 부하를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 정신면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무형의 복지사업이라고나 할까. 때문에 상사는 우선 부하 앞에 나서려면 거동이 엄숙할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언제나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 것이다.

내무반이나 또는 부대 공공시설에서 부하와 함께 있게 되면 이리 통탕 저리 통탕하고 떠들어대어 부하의 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상급자는 앉는 자세부터 또는 걸음걸이까지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 해도 보기 싫은 모양이나 만취한 추악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언제나 상사는 부하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복종이 우러나오게 하려면 그 일거일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때그때 부하들에 대한 건강과 정신 상태를 잘 파악하여 부모가 된 기분으로 부하를 대하는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이 되면 부하들은 상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고

<장병복지와 전투력>

우울해지기 쉬우며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복종심이 상실되는 동기가 된다.

때문에 상급자는 부대 생활에서 부하들을 대할 때 험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사고를 내고 관계기관에 붙잡혀간 부하를 얘기할 때,

“그 새끼 어떻게 할까?”라는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어떻게 하던 좋게 처리해 줘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라고 부하들에게 의논하게 되면 부하들은 상사를 존경하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더욱 복종심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태도로 부하를 대해야 한다.

이러한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관심은 부대생활을 명랑하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상급자의 태도가 무형의 장병 복지사업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즐길 수 있는 것만이 장병복지가 아니라 마음 편하고 상관을 부모처럼 섬 길 줄 안다는 것이 군대가정의 정신적 복지요, 전투력의 저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존경심이요, 복종심이기도 하다.

전우간의 유대강화 서로 돕는 마음씨를

내무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들과 잘 사귀는 일이다.

그것은 부대 안의 복지시설을 이용함에도 마찬가지다. 전우들의 화목 단결 없이는 부대에 마련된 복지시설 운용도 무위에 그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 전우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나치게 알려고 들 필요는 없지만 동료가 있는 오늘의 위치를 모르고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공적으로 그가 맡은 직책에 대한 이해, 개인적으로는 그의 특기, 장점 및 가정의 윤곽 등은 알아두어야 한다.

구태여 가정환경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지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는 것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 하고는 차이가 생긴다.

특히 전우가 하는 일에 관한 화제가 생길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대수로운 것 없다는 듯이

<장병복지와 전투력>

넘겨 버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잘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며 흔히,
“그래그래 좋아.”

라는 식의 사리 없이 찬동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러한 생활은 군대의 내무생활 중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데도 금물이다.

때문에 전우들끼리는 누구 할 것 없이 가리지 말고 친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도 친절한 대접을 받을 것은 물론이요, 사적이나 공적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정도를 지나치지 않을 범위에서 위로를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전우는 일에 바빠서 서두르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신문이나 읽고, 장기나 바둑이나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러한 경우는 부대 안에 모처럼 만들어 놓은 복지시설을 남용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 시설의 운용은 어디까지나 한 가정이 공동으로 다 같이 즐기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안에 마련된 복지 시설은 전우간의 친화와 단결을 이룩하며 장병의 정서를 함양하여 전투력을 증강시키는데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대 내의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병영생활을 명랑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남을 돕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그러한 행위는 동료 간의 신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이 협조를 받을 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혹시 전우에게 대소간의 경사나 굵은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도와 나간다는 것은 전우애를 두텁게 하는데 있어서도 또는 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친절하고 협조하겠다는 태도는 전우간의 에티켓의 기본자세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우의 협력을 받았을 때는 되도록 쉬운 일을 부탁해야 한다.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은 되도록 자기가 하는 것이 예의다.

얼짜 좋다 하고 골치 아픈 일을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은 결코 전우애가 아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을 빌리면 제때에 꼭 반환하여야 한다.

약속을 어기면 친밀한 사이에도 금이 가기 마련이다.

적은 돈을 빌려 쓰고 잊어버리거나 이만한 돈쯤 갚지 않아도 어떠하랴 하는 생각은 스스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장병복지와 전투력>

뿐만 아니라 전우의 비품을 빌려 썼으면 쓴 후에는 반드시 돌려준다든지 월권행위를 삼가 하는 등은 병영 생활에서 전우 간엔 반드시 조심하고 유의할 일이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서 병영은 명랑해지고 부대의 단결이 스스로 이룩되는 것이다.

또 부대 복지시설이 즉 내무생활의 안정과 윤택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 내고 자주와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길러내게 된다.

그럼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병영에서의 애국·자주·자립의 정신함양이란 어떠한 것일까를 알아보자.

애국심 함양으로 전우의 단결촉구

경제건설과 자주국방은 민족중흥의 필수조건이며 우리 국민의 기본과업이다. 이 경제 건설이나 자주국방에 있어서 애국심은 그 무엇보다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제2 경제는 그 애국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하고, 건설을 하고, 수출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대 각성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건설하고 생산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가짐과 정신적인 자세, 이것이 같이 뒤따라야 하겠다. 군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국민 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군인이라고 해서 국민 중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충용된 젊음이 아니라 본 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용감히 군에 뛰어 들어왔다면 그에 뒤따르는 충공·애국·애족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겠다.

공무원들은 자기 직장에 앉아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보다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인은 자기가 맡은 일을 보다 충실히, 그리고 신속히 처리할 줄 아는 데서 군인 된 보람을 찾아야 하겠다. 애국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행동이 애국한다고 표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국은 각자의 정신 상태에 발단되어 자기의 직분을 여하히 처리하고 성실하게 마무리든가 하는데 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보다 충실하게, 완전무결하게 완수해 내는 것이 곧 애국으로 통하는 길이다.

<장병복지와 전투력>

농민은 농촌에서 농업을 근대화하며 생산증대에 힘쓰고, 특히 부업으로 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에서 나라의 흥성을 의지하면서 애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자는 교단에서 민족중흥의 굳센 역군을 길러내고, 가정주부는 알뜰한 살림으로 한 푼이라도 모아서 저축한다는 것 역시 집안 살림을 운택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이다.

나라를 부강케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진 소산이라 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애국은 병영생활을 하면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함으로써 전우의 단결을 촉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내무생활에 있어서 근엄하고 절약이 앞서야 하겠다.

모든 관물은 곧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며 펜이 낙서나 휴지로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버리는 쌀 한 알이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입고 있는 피복이며 내의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다루고 깨끗이 하는 것이 군인생활에서의 신조로 생각해야 하겠다.

애국한다는 정신의 결여는 곧 언동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 즉 확고한 정신자세를 이룩하는게 무엇보다도 긴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이룩하는 이 마당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 중에서 젊은 혈기와 용기, 그리고 국토를 지키겠다는 대 명제 아래 입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위하는 정신, 또 자주성을 확립 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자위정신 배양으로 우리 전투력을 강화

장병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분단된 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간단없는 북괴의 무력적인 도발 행위에 의하여 계속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견지에서도 그 위치가 동으로는 일본이, 서에는 중국이, 북에는 소련이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압박과 수난의 역경을

<장병복지와 전투력>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만약 능동적인 힘을 가지는 자가 나서게 되지만 하면 삼자를 호령할 수 있고 삼자를 이끌 수 있는 중심지요, 호령의 사령탑이요, 지배의 간성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가 내부적인 빈곤과 민족적인 자각과 분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수난의 봄 바구니요, 압박의 골목이요, 피침략의 정원이었다. <중략> 이러한 위치에 서서 수남과 침략을 면하려면 강력하고도 역센 민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민족의 나갈 길」에서>

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고 역센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강철 같은 자위정신으로 무장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강철같이 단결된 민족의 군대는 강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자위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정신은 교육이나 훈련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내무생활의 전우애로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복지시설이 완비된 내무생활은 곧 장병의 화목 단결을 촉진하고 또 그것은 강력한 전투력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괴의 침략행위가 날로 증가하여 준 전시하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앉아서 당하고 받기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침략자에게는 힘으로 응징하고야 만다는 투철한 자주국방의 결의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968년 3월 7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유사에서>

사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국가와 국방력이 튼튼해야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때문에 자위정신이야말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조국애의 구현인 것이다.

우리가 공군에 몸을 담고 하늘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나를 지키는 동시에 부모형제와 내 재산, 나아가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강토를 지키는 길임을 자각할 때 우리의 임무가 중차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고 맡겨진 모든 일을 소홀히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맡은 일을 내 손으로 처리하여 다른 전우에게 폐가 됨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하겠다.

그러한 정신이 곧 자위정신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전투력을 증강하고 국토를 보위하는 길이란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자주정신 계발만이 전우에 발로의 원천

다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주정신은 그 자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며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더욱이 오늘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함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정신인 것이다.

특히 국방을 우리 손으로 해 나가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처럼 과거 여러 세기의 역사를 사대주의 사상이 지배하였던 사회풍토 속에서 의타의 습성이 체질화 되어버린 민족일수록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요구되는 격동하는 시대,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자주정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자주정신이 살아 있는 한 퇴폐한 사회풍조는 자연히 도태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의 생활은 민족중흥이란 새 역사 창조를 위하여 분발하고 쫓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군 생활도 마찬가지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서 나라의 방패임을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군대는 강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해 주려니 생각하는 전우가 있다면 그것은 전우애를 해치는 것이요, 부대의 단결을 파괴하는 일이라 하겠다.

각자의 자주성이 확립되었을 때 그 군대의 단결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전우애는 스스로 옹터 그 단결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인은 그 누구보다 확고한 생활이념을 갖고 자립의 터전을 닦아 나가는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일부에는 뿌듯한 자기의 생활 철학을 갖지 못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몰지각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자기 생활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비건설적이며 비생산적인 허영의 탁류에 휘말려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세를 하루 빨리 올바른 방향 감각에 의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 일부의 이러한 풍조는 자주정신이 결여된데서 온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올바른 생활이념은 우선 자신을 잘 아는 것이다.

분에 넘치는 허영이나 방탕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물론 군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없다고 하나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것이 무척 입한 행동이다.

책임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자주정신이 없다는 이야기다.

같은 내무반에서 지내는 전우끼리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동료 전우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자주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고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군대가정에 있어서의 자주정신 개발은 곧 전우에 발로의 원천이 되고 나아가서는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밑바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내무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써 우리 군의 의연한 모습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명 언

◇ “인생은 일장의 허망한 꿈이며 잠든 영혼은 죽음으로 돌아가며 사물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행여 나에게 슬픈 말투로 그런 말을 지껍이지 마라. 인생은 진실하고 엄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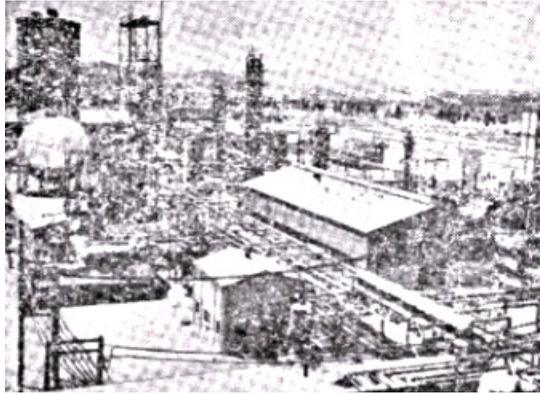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숙명적인 목표나 나그넷길은 아니다.

행동하라! 오늘보다도 높은 내일을 위해서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멘 송아지처럼 쫓기지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되라! 위대한 자의 생애를 돌아보고 인생을 숭고히 하며 생을 떠나는 날 시간의 모래 위에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라!

— 헨리·위즈워즈 롱펠로 —

1970년대의 한국의 안전보장

■ <민족의 등불에서 발췌>편집실 ■



-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 확고한 승...●
- ...공정신과 국가건설의 신념을 가지고 총...●
- ...진군할 때 우리도 70년대에 당면한 안 ...●
- ...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민 ...●
- ...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중흥...●
- ...의 역사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가. 한국의 외교대책

건국 이래 지난 20여년을 통하여 역대 정부가 내세워 온 외교정책에는 비록 그 규모와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국토통일을 이룩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비공산제국과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한다

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띠어왔다.

그리고 한국의 광복, 독립, 북괴 침략의 격퇴와 전후의 국가재건이나 경제부흥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으로서의 안보와 승공통일을 위해 대미일변도 외교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핵무기가 확산되어 핵보유국이 많아지자 전면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중·소의 대립격화에 따른 공상권의 분열, EEC를 통한 서구의 지위향상에 의한 미·불 관계의 소원화(疎遠化) 등 동서양진영 내부에서 분극화가 빚어지고 더욱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과 29개국 이 반동회의를 계기로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196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17개국이 새로이 독립하여 UN에 가입하여 이른바 AA 세력의 국제적 비중이 급증됨으로써 UN에서 한국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이들 신생국들의 지지와 협력 이 필요하게 되어 한국의 대중립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1961년 혁명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의 외교자세는 크게 변화되었으며, 이때부터 UN을 통한 활동은 물론 중립국가와 적극적인 수교활동을 전개하고 재외공관 수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등 다변외교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공의 도발적인 팽창주의의 산물인 월남 전쟁이 곧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판단하고 월남전은 결코 월남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귀추가 자유 아시아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신념 아래 파월 참전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미국의 반 중공·봉쇄정책에 소극적이던 아시아 제국은 월남참전을 통하여 적극적인 동맹체제로서 반 중공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공동 사회적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아시아의 신포를 하고 한국의 주도하에 아스팍이 창설되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월남전의 명예로운 해결을 다짐하면서 조성되었던 기틀은 그 주도역할을 담당해 온 미국이 월남전 수행과정에서 파생된 국내 문제에 부딪혀 아시아 태평양정책을 비롯한 세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에 이르러 아시아 안보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신 아시아 정책은 월남전의 월남화와 나아가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위를 제창하면서 일본의 미국 역할 분담 내지 대행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70년대의 아시아 지역에는 서서히 불안한 세력균형이 재편성될 징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적화통일만을 꿈꾸는 북괴는 주한 미군 감축에 고무 되어

소원했던 중공에 밀착하면서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외교자세는 안보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먼저 미국이 워싱턴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서울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안보의 주축을 이루는 한·미 상호방위 체제에 내재하는 허점을 보완토록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미군의 감축으로 인한 힘의 공백은 반드시 한국에게 유리하도록 메워져야 한다. 그 이상의 감축이 없도록 하고 국군현대화를 위한 교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스팩 체제 등을 강화하여 지역적인 집단방위체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 UN 외교와 대중립국 외교를 강화하여 북괴의 허위선전과 만행을 세계의 여론 앞에 규탄하고 그들을 국제적인 고아로 전락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상 국제정세는 현실에 있어서 북괴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자유중국·태국 등을 위시한 자유제국의 결속과 유대는 ASPAC이나 지역 국가 협력기구의 강화로 점점 더 북괴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괴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객관적 정세는 움직이고 있다.

북괴가 믿고 있는 핵무장한 중공의 힘이 액면 그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작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중공에 대항하는 자유제국의 결속으로 더욱 폐쇄된 지역에 고립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더욱더 널리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통일이 되도록 통일외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주 국방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력은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될 정도로 경제력을 그 바탕으로 한다.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니와 이것의 완수를 위하여서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하다. 외자 도입을 촉진시키고 수출을 진흥하고 국제적인 경제 협력을 활발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순한 경제개선을 위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제외교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향상을 지향한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안으로는 국민적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여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을 통한 자주방위태세의 확립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달성에 매진하면서 밖으로는 안보, 경제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미군의 감군과 국군현대화

대결의 시대에서 협상의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한 닉슨 대통령은 종래의 맥나마라 전략개념에 의하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일반 목적군의 존재가 1960년대 이후의 경험에 비추어 국지적인 무력도발에 뚜렷한 억제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지적 전쟁의 가능성, 그 자체가 대규모 지상군을 상주시킬만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해외기지의 대병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할 것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미 1970 회계년도에 22만 명, 1971년 도에 30만 명을 감축키로 확정한테 이어서 장차 5년에 걸쳐 미군 병력을 340만에서 100만 이상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전략의 수정과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병력 및 국방비의 감축추세로 보아 한국도 닉슨 독트린의 예외 지역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 보장, 후 감축을 요구하는 한국과 선 감축, 후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측의 견해가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1971년 6월말까지 주한미군 2만정도의 감축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대한 안보전략의 변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허점을 차체에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조약문 자체의 보강이 어렵다면 한국 피침 시 미국이 즉각 개입한다는 서면 보장을 통한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국군의 장비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북괴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력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한가를 알 수 있다.

본래 한국군은 한국의 국토방위 뿐 만 아니라 북괴, 중공, 소련 등으로 연결되는 극동 공산세력의 침략위협 하에 있는 극동자유권의 공동 방위라는 전략적 임무를 띠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까지 비 극동 전략의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자력으로 적을 대응 내지 제압할 수 있는 군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군의 중장기 전략판단을 미 국방성의 전략판단 및 군원계획을 감안하여 행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항상 수원국가로서의 수동적인 입장에서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충분한 장비 지원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자주방위체제의 완비는

현실적으로 결코 용의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선견과 예지로서 정세를 판단하여 자주국방을 부르짖고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자주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와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과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배제하는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개발에 역주하고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자주적인 국방적·확립의 첩경임을 재인식하고 자력적 국방력 유지를 갖출 시기를 가능한 한 단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군사외적(軍事外的)인 안보대책

국방은 군사적 요소로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총력전 또는 총동원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표명되듯이 군사외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능력은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조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괴의 적화통일 전략은 정규전보다도 오히려 비정규전에 의한 한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군사능력의 약화를 그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경우 이러한 비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체제 확립은 더 한층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아시아 공산침략의 특징은 중공의 인민해방 전쟁론에 입각한 게릴라전에 있으며, 게릴라전의 승패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얼마만큼 조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월남전이 양측의 군사적 노력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해결이 불가능하였으며, 전쟁승패의 관건이 군사외적 요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한 평정사업에 주력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선 우리는 정치면에서 주한 미군의 감축문제와 국군장비 현대화 문제를 위요한 안보논쟁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대미 불신감과 정치적 불안을 조성케하여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괴의 침략도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한참 대두되고 있는 통일론도 국민 일반의 반공의식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치 판단의 혼동이 없도록 복합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야당이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는 예비군 폐지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사인 만큼 절대로 제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야당은

이 주장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야의 대결로 발전하여 국회 부재현상을 빚어내는 정치인들의 자세도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 불신 내지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이러한 의식은 민주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직결되어 북괴가 노리고 있는 온상이 조성될 위험성이 내포되는 것이다.

치자(治者)나 피치자나, 여당이나, 야당이 일심협력하는 신념을 가지고 과감하고 일사불란하게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경제주체인 경제인들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점에 파고든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청신한 경제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가 북한을 포함한 온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할 때 북괴의 선전은 완전히 무산(霧散)될 것이다.

다음에는 사회적면에서 국민자세가 재정립되고 사회풍토가 더욱 개선되어 북괴의 선전이, 북괴의 침투가 우리사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발전의 저해요소이며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암적 존재인 만큼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하여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하겠다.

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조국의 현실을 망각한 물지각한 일부 국민들의 소비성향 및 사치풍조는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보태세확립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사상적 재무장과 새로운 윤리관의 정점도 범국민적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운동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립되어있고 선과 악에 대한 식별력이 구비되어 있을 때 반공체제는 더욱 다져질 것이며 민족이 운명을 같이한다는 일체의 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폭발적인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승공과 국가건설에 매진

우리는 변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내외정세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안보대책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또한 시련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와 시련은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단결된 역량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하는 한 능히 극복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한편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북괴가 비록 내부적으로는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에 남침을 기도하려고 한 가지만 그들이 바라는 결정적 시기가 좀처럼 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며,

설사 앞으로 어떠한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북괴의 자멸을 초래하는 시기일 뿐이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는 그들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련은 미국과의 협조체제유지를 위하여 북괴가 한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유발함으로써 미·소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중공 역시 핵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북괴의 남침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더욱 우리의 외교활동에 의하여 ASPAC 또는 지역 국가 협력체제로서 자유아시아는 더 강하게 결속됨으로써 북괴는 점점 고립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진데 북괴가 무모하게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아시아를 상대로 단독으로 전쟁을 유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명기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보다 북괴의 전쟁 재발 기도가 북괴로서는 하나의 신앙으로 되어 있는 한 완전한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일성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인물들의 성격이나 질로 보아 국제정세의 추이나 한국의 저 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도를 끝내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김일성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누적된 북한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소의 공존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북괴의 전쟁기도를 가깝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나 한국이 전면 보복을 결정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비정규전을 전개하여 결정적 시기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적인 면은 물론이고 비군사적인 면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 모든 면에서 북괴를 능가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이 북한으로 넘쳐흐르게 하는 것이다.

국민적 노력과 국민적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번영의 역사적 터전 위에서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땀이 나서 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온 겨레가 새로운 정신 자세로서 용기와 지혜와 신념과 영도력을 갖춘 지도자이신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 확고한 승공정신과 국가건설의 신념을 가지고 총 진군 할 때 우리는 70년대에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중령 허 왕

1. 머리말

현행 군 징계법은 5·16혁명 이후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군인·군속 인사법규 안에 징계의 장(章)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군 인사법규가 그동안 여러 번 개정 되었으나 징계 관계규정은 거의 손을 보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군인·군속 이외의 일반직 및 기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법에 비하여 많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법규에는 다소의 미비규정이 있더라도 많은 학자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데다 끊임없이 법원의 판례가 형성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징계는 직업적인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이를 담당처리하고 있으며 학자들도 행정법의 일부로서 징계 관계법규의 간단한 조문해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깊은 연구가 아직 도 미진한데다 구체적인 처벌기분의 설정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하여 평소 느낀 몇 가지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참고에 공하고자 하는 바이다.

물론 어떤 성문법규건 시대의 진전에 따라 그 완벽을 기할 수는 없겠으나 징계가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제재인 점과 그 미비 때문에 실무담당자들이 많은 애로를 느낀다면 조속히 개정,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2. 군 징계의 연혁(沿革)

군 징계에 대한 미비점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군 징계에 대한 그동안의 연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광의)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규율과 기강이 요구되는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군 징계제도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군 징계제도는 구한국말엽에서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비롯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군 징계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군사법 제도와 군 징계제도가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군 형법이 일괄하며 군인의 비행을 다스려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구 한국말엽에 이르러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육군법률을 제정하고 육군법원을 설치하여 군사법제도(軍司法制度)를 정비한 다음 1906년(광무 10년) 10월 16일에 칙령(勅令) 제 61호로써 육군 징벌령을 제정, 공포하여 29종의 비행에 대하여 10, 20, 30일간의 근신, 영창, 금족(禁足), 고역(苦役) 등의 징벌을 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군 징계제도의 효시(嚆矢)인 것이다. 그 뒤 8·15해방 후에 미군정치하에서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어 1948년 7월 5일에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써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제정하여 군사법 제도를 확립하였던 바 그 가운데에 국방경비법 제102조와, 해안경비법 제71조가 지휘관의 징계처분권(해안경비법에는 즉결처분이라고 함)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일종의 군 징계제도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육군 군법(The Articles of War) 및 미 해군 군법(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navy)상의 지휘관 징계처분권(Disciplinary Powers of Commanding Officers)을 모방한 것으로써 징계사범의 한계 및 처벌의 성격에 있어서 형사법 및 형사벌과의 구별이 불명확한 것이었다. 그래서 1948년 정부수립 후에 우리나라의 정규 육군과 해군이 발족하자 1949년 6월 25일부 대통령령 제134호로써 국군 징계령을 제정, 공포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군 징계제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군 징계령은 일개의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인데 이에 의하여 군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파면, 기타 그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벌을 과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에 의문점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5·16군사혁명 이후 구법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군정법령이던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신법으로 정리되어 군사법제도가 정비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종래 각종의 대통령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군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 인사법, 동법 시행령, 군속 인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제정, 공포되어 국군 징계령이 폐지되고(당시는 군인, 군속 모두 국군 징계령이 적용되었다. 동령 제2조, 제43조) 그 결과 군 징계제도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으나 군인, 군속 이외의 일반직이나 별정직 공무원 징계법규가 대부분 개정, 보완되고 있음에 비하여 군 징계법규는 개정 이래 거의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3. 군 징계의 미비점과 입법론

가. 징계 시효(時效) 규정의 미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인, 군속 이외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징계법상 모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징계요구를 할 수 없도록 시효규정을 두고 있으나(공무원 징계령 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2조 제1항, 법관징계법 제 26조, 검사징계법 제25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 제1항 등) 군인, 군속에 대하여만 시효규정이 없음은 타 징계법규에 비하여 군징계법규의 후진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형벌권도 시효소멸규정(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군법회의법 제 284조)이 있음은 감안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과거의 공무원 징계법상에는 징계시효규정이 없어 학자 간에는 징계벌과 형사벌을 구분하는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형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징계권에는 소멸시효가 없이 공무원이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그 뒤 그 부당성에 착안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 공무원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는 징계권에 대한 소멸시효제도가 입법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군인, 군속에 대한 징계법규도 조속히 이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조치시(措置時) 「정지(停止)」규정의 삭제 필요

과거 국군 징계령상으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조치 때 부인권과 감경 및 집행정지권이 부여되었으나(국군징계령 제32조) 현행 군징계법상으로는 부인권은 삭제되고 감경권과 정지권만 규정되고 있는바(군 인사법 시행령 제77조, 제96조, 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80조) 「정지」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많은 설이 대두되어 실무처리상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징계권자가 정지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살펴보면,

① 감살; 정지는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라고 보는 설이다. 즉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되 그 처분의 집행만을 잠시 정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정지조치를 한 이후에는 징계권자는 원결정에 대하여 감경을 할 수 없고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집행만을 일시 정지(유예)하였다가 집행 할 수 없는 사유가 없다면 곧 원결정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9년 1월 9일, 법무부 유권해석 1970년 11월 10일, 국방부 법무과 유권해석).

② **을설**; 정지를 징계권자가 징계결정에 대하여 승인을 보류하는 조치로 보는 설이다. 따라서 이 때는 징계권자의 정지조치는 징계 승인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단 정지 조치 한 뒤에 원징계결정을 그대로 승인하든가 아니면 감경해서 승인하여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1963년 9월 23일, 국방부 법무과 유권해석).

③ **병설**; 정지를 징계처분자체의 정지로 보는 설이다. 즉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되 징계처분으로서의 선고자체를 정지하는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는 징계처분의 성립을 막는 것이므로 대외적인 선고가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1962년 6월 1일, 공군 군법교범, 군 징계법편).

④ **정 설**; 정지를 징계권자가 원징계의결내용을 승인하고 그 집행만을 유예함으로써 징계사안을 종결하여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군법회의 절차상의 집행유예와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일부 소수설) 등으로 그 견해가 구구하였던바 현재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바탕을 둔 1970년 11월 10일의 국방부 법무과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군징계법상의 정지에 관한 해설로는 위 여러 가지 설 중 병설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군인, 군속 이외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기속력을 갖게 되고 징계권자는 다만 이 결정을 그대로 확인,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는 명실공히 의결기관이나 군인, 군속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으로써 바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한 징계처분으로 성립하여 대외적인 집행력이 발생하는바(군 인사법 시행령 제 75조, 군속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징계위원회 결정은 행정관청인 징계권자가 승인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것이며, 군속에 대하여도 군인과 같이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권자의 감경, 정지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군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징계권자는 조치 시 원결정에 대하여 감경,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군 인사법 시행령 제77조, 군속인사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제3항) 군 징계의 특수성과 과거 국군징계령상으로는 법문상, 집행정지로 표현하였던 것 (국군징계령 제32조)을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정지로만 되어 있는 점 및 그 절차가 엄격한 군법회의법상으로도 관할관에게 원판결에 대한 감경뿐만 아니라 집행 면제권(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지는 징계권자가 조치 시 원징계 결정 자체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군 징계법상의 특수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정지를 원결정에 대한 일시적인 집행 정지라고 보는 갑설은 징계위원회가 의결기관임을 강조함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정지가 그 집행의 일시적인 유보를 뜻한다는 원칙론에 치중한 해석은 될지언정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군징계에 대한 특수성은 거의 도외시한 해석이란 느낌이 든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그 해석과 시행에 의문의 여지가 많은 정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경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감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군 작전상으로 보나 징계처벌 목적상으로 볼 때, 일단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한 결정에 대하여는 징계권자는 감경조치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집행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집행 연기규정을 보완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군속 징계인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서의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원칙상 10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하나 군사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집행연기를 인정하고 있으나 (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군인징계인 경우는 징계권자의 집행연기는 인정치 않고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비행자 소속부대장 즉 징계집행권자의 일시적인 집행연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군 인사법 시행령 제78조) 동 조항 중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를 군사상 필요한 경우 정도로 개정하면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 징계권자에 대한 부인권(否認權)과 항고권의 부여필요

일반 공무원 징계법상에는 징계요구를 한 기관장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할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소청절차 규정 제2조 제2항) 군 징계법상으로는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원징계가 무겁다고 생각될 때 징계권자가 이를 감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자 본인이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출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으나 군 징계법에는 일반 공무원 징계법상의 징계요구자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는데다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가볍다고 생각 될 경우에도 현행법 상에는 수수방관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군 징계령상으로는 징계권자에게 부인권이 인정되었으므로(국군 징계령 제32조 전단) 비행자에게 항고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군 인사법 제60조, 군속인사법 제44조) 징계권자에게도 원징계 결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될 시 부인권을 인정하고 이 때는 차상급 부대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고 심사위원회를 일반 공무원법상의 소청 심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징계소추자(懲戒訴追者) 규정의 필요

징계절차도 과벌(科罰) 절차이므로 일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원고, 피고가 대립함과 같이 징계혐의자를 소추하고 이와 대립 투쟁케하는 당사자 주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나 징계, 특히 군 징계절차는 극단적인 직권주의적 규문 절차(科罰節次)를 취하고 있다. 즉 현행 군징계상으로는 징계혐의자 만이 존재 할뿐 징계소추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 일반 공무원 징계법상으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래도 징계요구자라는 것이 있어 동요자의 요구없이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므로 어느 정도 소추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군인 징계법(군 인사법 시행령 제65조)이나 군속 징계법(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74조)에도 징계의 요청이라거나 요구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이는 일반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의 징계요구(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8조)와는 그 개념이 전혀 판이하다. 즉 일반 공무원 징계는 징계 요구권자의 요구가 있어야 비로소 징계절차가 진행되나 군 징계법상의 징계절차는 징계요구나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직권으로 개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군 징계에 있어서도 징계 소추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소추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인 이외 군속이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무담당의 징계간사라는 것이 그래도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군인 징계법에는 이러한 규정마저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일반 공무원법상의 징계요구자 규정을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두도록 하는 것보다 징계소추자로서의 간사규정을 명문화하여 징계권자의 명을 받아 징계조사와 회부건의 및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지휘까지 담당토록 하는 것이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옳다고 본다. 혹설은 징계간사는 단순한 서무종사자인데다 징계심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군 인사법 시행령 제64조)이므로 이러한 자는 당해 징계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하나(1966년 3월 9일, 국방부 법무과 유권해석) 군 인사법 제64조의 징계심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어디까지나 당해 징계사안을 심의 의결할 지위에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소청 절차규정 제9조, 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73조, 교육공무원법 제6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5조, 법관 징계법 제17조, 검사 징계법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7조 등) 따라서 간사에 대한 임무규정만 명문화한다면 징계소추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더라도 하등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군 징계법상의 체계를 같이 하기 위하여 군속 징계법 상의 간사에 대한 현행규정도 위와 같이 소추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 소송절차에서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8조, 군법회의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39조) 철저한 직권주의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 대립하는 징계소추자의 존재가 미미하므로(군징계법상에는 전혀 없다) 징계위원장이나 위원 중 징계혐의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 즉 유리하게—의결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직권으로 이러한 사람을 당해 징계에 참여시키지 않는 한 아무런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간사를 일반 소송절차상의 원고의 지위로까지 끌어올려 간사도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다면 공정한 징계 업무운영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마. 기피(忌避) 신청 절차와 동결정 절차의 미비

군인 징계법상으로도 「징계관 여자의 제한이라고 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제척 사유를 간략하게 규정 하고는 있으나(군 인사법 시행령 제64조) 일반직 공무원 및 군속 징계법상에는 기피신청 절차와 그 결정절차가 소상하게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규정되고 있음에 비추어(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73조) 군인 징계법상에는 이러한 절차규정이 없어 사실상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항고로써 다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보완토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피 신청은 징계혐의자 뿐만 아니라 징계소추자 규정을 명문화하여 간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라. 참조).

바. 형사소추 선행원칙(刑事訴追先行原則) 존치 문제

징계벌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 등을 달리한다. 즉

① 권력적 기초; 형벌은 일반통치권(형벌권)에 그 근거를 두는데 대하여,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내부에서 성립한 특별권력에 그 근거를 둔다. 따라서 형벌은 국민의 지위에서 받는 제재이고, 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에 기하여 받는 제재이다.

② 대상, 목적; 형벌은 반사회적인 법익침해(일반사회 생활상 또는 행정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사회의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인데 대하여, 징계벌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형벌에 있어서는 주로 행위(범죄)가 문제되고 이에 대한 제재의 내용은 신분적 이익의, 박탈에 그치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징계벌에 있어서는 주로 행위자(공무원)의 신분이 문제되고 그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도 신분적 제재, 즉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박탈에 그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併科) 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 군속 이외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형사소추 선행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과거에는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도 형사소추 선행원칙을 채택하였으나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 52조 동법이 1963년 4월 7일, 법률 제1325호로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유독 군인징계에 대하여만 「징계에 붙여야 할 사건이 형사소추 중일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고 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제도상이나 이론적인 면으로 볼 때 존치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사. 해외 장기체재자에 대한 징계규정의 미비

일반 공무원도 해외 출장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나 특히 군인일 경우는 장기간교육, 파견 등의 목적으로 국외로 나가있을 경우가 많은 바(부대단위로 파견될 경우는 일정단위 부대 이상에게는 법상 그 지휘관에게 징계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별달리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런 때에 출국 전의 비행사실이 출국 후에 발견되거나 출국 이후 어떤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징계혐의자가 귀국할 때까지 좌시하든가 아니면 징계혐의자를 소환한 이후에야 징계 처리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징계를 그토록 장기간 방치해 둔다면 그 이후 징계벌을 과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되고 만다. 따라서 해외 파견 등으로 일정기간 내에 출석이 어려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진술토록 기회를 주고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진술치 않을 경우는 징계혐의자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 4항).

아. 기타 보완되어야 할 사항

① 징계 의결기간의 명시

비록 훈시규정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군속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징계법에는 징계요구, 또는 회부된 날로부터 의결해야 할 기간이 명시되고 있으나(군속 인사법 시행령 제76조, 공무원 징계령 제9조) 군인징계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군인징계에 있어서는 회부 시부터 의결 시까지 일정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징계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② 군속징계위원 구성의 문제

군속징계위원회는 군속 인사법 제43조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에는 그 중 2인 이상은 군속 및 일반직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78조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면 되므로 군속이나 일반직 징계위원이 참석치 못하고 군인만으로 3분의 2 이상이 되면 징계 의결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그 해석에 다소 혼란을 빚을 여지가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8조에다 군속이나

<군 징계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의결 당시 참여하여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문의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업무처리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보면 징계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 및 군속으로 하여야하며…」라고 되어있어 군속만으로 2인 이상이거나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2인 이상인 경우는 안 되고 반드시 일반직 공무원과 군속을 함께 합쳐서 2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오해될 염려가 있고 또한 하등 그렇게 해석,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징계위원 중 2인 이상은 군속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명 언

◇ 내 마음 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찾아 올 수는 없다. 사람들은 만족과 위안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들은 결코 그 공백을 메꿔 주지는 못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공허감은 우리의 내부의 생명력의 새로운 발동으로서만 치료되고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의 공허는 내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꿀 수 있을 뿐이다.

— 파 스 칼 —

◇ 세상이란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일신의 영광을 얻는다. 몸을 아끼기 바쁜 사람은 오히려 그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일신을 내던지고 쓰러질 결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를 얻는다.

— 동 양 명 언 —



북괴는 전 한반도를 공산화함으로써 이른바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망상을 앞세워 지난 10여 년간 줄곧 전쟁준비에 골몰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북괴는 61년 5월에 열린 제4차 당 대회에서 이른바 인민경제 7개년계획을 비롯해서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공작의 강화와 김일성 독재체제의 강화를 위한 반당분자의숙청 등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2월 4대 군사노선으로서 전지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군대의 간부화 및 군대의 현대화를 내세워 전쟁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대남 무장공비의 침투를 격화시켜왔다.

또한 64년 10월에 열린 이른바 당 군사대표자회의에서는 민주노선을 내걸고 군사원조를 얻기 위한 실리외교를 택하여 중공으로부터 소련일변도로 넘어가는 한편, 군사비 충당을 위해 7개년 계획을 3년간 연장하였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자는 슬로건을 앞세워 갖은 도발과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그 결과 북괴의 내부적인 경제사정은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무대에서는 고립상태에 이른 것이다.

북괴는 이와 같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절감하고서 69년부터 대남공작을 전환하는가 하면, 평화적인 외교공세를 가장하면서, 붕괴 작전에 이른 김일성 일인독재 체제를 연장하고자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려왔다.

<북괴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결의>

북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는 지난 11월 2월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이른바 당 대회와 사업총화보고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북괴에 있어서 당 대회는 당 정책의 기본과제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북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보기로 한다.

1.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강행과 후계자 문제

북괴가 여는 당 대회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그의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른바 제5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우상화가 극치를 이루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하겠다.

당 규약 상으로는 4년마다 열리기로 되어 있는 당 대회가 이번에는 9년 2개월 만에 개최되었다는 것은 당이 그야말로 김일성의 사당화(私黨化)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괴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 지역에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연장시키는데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을 북한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독재자로 만들기 위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괴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경대를 그의 출생지로 위장하여 이른바 혁명전적지로 정하고 있는가하면,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과 강반석까지도 항일운동의 선구자라고 꾸며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날조해 왔다. 특히 금년부터는 김일성 약력 백편 읽기운동이 니 노동당 투쟁사 도록 암송운동 등을 펼쳐 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김일성 일인 독재를 강행하고 수호하는 이론적 무기는 유일사상이란 것이다. 그동안 김일성은 이를 앞세워 68년 초에 이른바 고급분자들을 숙청하였다고 알려졌다.

이른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자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중공과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제거되는 대신 김일성 대학출신의 젊은 새 얼굴들이 많이 등용되었고 당 중앙정치위원회에 군부 출신이 대거 진출하여 극단적인 군국주의적 독재체제를 이루어 놓았다. 또한 붉은 청년 근위대를 조직해서 노동적위대를 현역군인 수준으로 정예화시키는 한편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굳히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끈 것은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당비서 겸 서기국 조직담당)가 당 서역에 있어서 제12인자의 위치에서

<북괴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결의>

제6인자의 순위로 일약 진출한 사실이다.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등은 모두 60대의 노령층이라는 점에 비추어 김영주가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번 대회는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김일성-김영주 라인을 구축하여 후계자 문제에 부심하였다는 사실이 극히 주목되고 있다.

2. 전쟁준비 완료 호언과 대남공작의 전환

김일성은 동 보고에서 4대 군사노선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업적을 내세우면서 앞으로는 이른바 전인민의 무장화를 비롯해서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대의 간부화 및 장비의 현대화를 떠들어댔다.

북괴는 70년대 초반을 이른바 결정적 시기로 잡고 적화통일이라는 그릇된 망상에 사로잡혀 지난 10년간 줄곧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한편, 무장공비를 대량으로 침투시켜 우리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심을 교란시키고자 안간힘을 써왔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 지역에는 무자비한 공산당 독재가 행해지고 전쟁준비를 위한 전시경제체제의 채택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북괴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발을 외부로 돌려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를 연장하고자 대한민국이 미국의 부채질을 받아 전쟁도발을 일삼고 있다는 그릇된 선전을 하면서 위기의식을 조작해서 전쟁준비에 온갖 힘을 기울여 온 것이다.

북괴는 이제 모든 전쟁준비를 완료했으며 더욱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기의 포착과 전술의 전환에 경주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김일성은 이번에 산악전과 야간전투,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 정규전과 유격전 훈련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에 알맞는 전법을 계획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968년에 전통적인 폭력전술을 바꿔 집중적인 폭력투쟁방법을 사용하여 급진적인 정세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대남공작책 허봉학을 숙청하고 김중린을 기용하여 69년 초부터 정세 변화에 맞춰 대남공작을 전환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관상 평화공세를 내걸고 폭력수단이 소수화, 내면화 된 인상을 주지만 이것은 도발책임을 전가하고 긴장완화를 틈타 새 전술을 이용하려는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일성은 대한민국 내에 평화공세를 위장한 방식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민심을 동요 시키려는 음모를 취하고 있다.

북괴의 대남공작은 우리의 방어태세가 굳건해 질수록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 되어 오는 만큼 철저한 방위태세의 확립만이 긴요한 것이다.

3. 대외정책의 유연성과 중공과의 밀착

북괴는 이른바 당 대회에서 수정주의를 배격하면서 중공과의 유대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북괴는 소련을 직접적으로 단절하지는 않았지만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강경한 자세를 통해 미온적인 대소련 체제의 유지정책이 어느 정도 금을 가게 한 것이 아닌가도 보인다.

북괴는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66년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소련에 접근, 군사, 경제 원조를 받아 전쟁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있어서 중공의 핵개발과 그 영향력이나 이데올로기의 일치 등을 고려하여 다시 중공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70년2월과 3월에 공식 중이던 양측의 이른바 대사를 부임시켜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으며, 4월 9일에는 김일성, 주은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양측 관계의 정상화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중공이 연 한국동란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북괴 외상 박성철은 연회에서 중공의 반미투쟁은 북괴에 큰 고무가 되고 북괴의 귀중한 기지(基地)가 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북괴가 중공에 밀착하여 대남공작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로 이용할 것을 밝힌 것으로 극히 주목을 끌고 있다.

북괴가 처음으로 중공과의 유대 강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중·소·북괴의 3각 관계에 있어서 북괴가 호전적인 중공에 밀착하여 전쟁도발의 불씨를 쪼으려는 책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른바 그들 대회에서 북괴는 중공·월맹·라오스의 공산세력과 반미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북괴는 이러한 통일전선이야 말로 미국을 아시아에서 고립시키고 중공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동 전선을 대남공작에 일환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다.

북괴는 국제무대에서 전화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에 압도되어 고립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밖으로는 허위에 찬 평화공세를 해 왔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8·15선언에 대한 북괴의 태도는 그들의 선전이 기만과 허위에 찬 것임을 폭로하고야 말았다. 여기에 북괴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지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외교공세를 펼치려하고 있다.

4. 7개년계획의 실패와 6개년계획 전망

북괴는 61년 이른바 제4차 당 대회에서 7개년 경제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3년간 연장하여 70년까지 계속했지만, 김일성 자신의 호언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북괴는 70년도 세출 중 군사비가 31%로서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듯이 경제계획의 실패원인을 군사비 지출에 돌려 합리화시키고 있다. 7개년 경제 계획 중 사실상 중공업 부문은 87%, 경공업부문은 40%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김일성도 밝히고 있듯이 군수공업에 치중했지만 그것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분야가 완전히 무시되어 왔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북괴가 이른바 6개년 경제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것은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 교섭에 실패하자 중공과 교섭하여 소련 경제권에서 이탈한다는 조건 아래 중공업 정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여 71~76년간과 일치하도록 세운 것이다. 이 계획도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목표가 연 14%로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뻔한 노릇이다.

북괴는 전쟁준비의 강화를 위해 군수공업체제로 더욱 굳혀 가면서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할 것은 분명하다.

북괴는 강경일변도의 중공에 기울어져 그들의 수탈방식을 본 따오게 되면 분한 주민들의 생활은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될 것이요, 북괴경제는 마침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북괴는 이른바 제5차 당 대회를 계기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극단적인 모험주의적 노선을 견게 될 김일성 일당 독재체제를 굳히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강행하는 한편 ② 호전적인 중공에 기우려져 그들의 부채질을 받아 다방면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킬 가능성이 증대 되었으며 ③ 항상 전쟁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하겠다. 북괴는 이처럼 호전적인 침략태세를 갖추고서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안정과 단결을 바답삼아 북괴보다 우월한 힘을 배양하며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힘이 북한에까지 넘쳐들러 승공동일의 그날도 다가올 것이다.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조 성 직
〈공산주의 문제연구소 소장〉

지난 1월에 북괴는 일본의 일부 용공상사들로부터 각종의 전략물자를 비롯해서 콜레라균을 포함한 세균을 발주해 왔다는 보도에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격분과 경악을 금치 못한 바 있지만 북괴는 8·15해방 이후 줄곧 일본에 있는 한국 공산주의자들을 앞장세워 한반도의 적화를 이룩해 보고자 광분해 왔다. 8·15해방 직후 순진한 재일 교포들은 흥분으로 들떠 이데올로기를 떠난 민족의 단합을 기대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45년 10월 16일 재일 조선인연맹(조련)을 결성하고 지역별로 조직을 완료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광란을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민단계의 활약으로 그들의 폭력행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북괴는 55년에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공(日共)의 그늘에 있던 단체들을 모아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결성, 이를 북괴로 내세워 갖은 만행을 저질러가면서 적화통일이란 망상을 실현해 보고자 발버둥 쳐 온 것이다.

지난 7월 조총련의 거물급 간부들이 민단계에 전향해 옴으로써 조총련의 내분이 다시 한 번 폭로되었지만, 북괴가 그들의 괴뢰인 조총련을 발판으로 일본에서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알아두는 것은 북괴의 정체를 재인식하고 우리의 반공정신을 굳건히 하는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1. 붉은 음모와 만행

북괴가 조총련을 조종해서 이루고자하는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를 적화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하여 북괴는 조총련을 대남공작의 기지로 이용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하면서 그들의 모든 조직과 전략, 전술 및 선전을 여기에 맞추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의 목표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듯이 이른바 3반투쟁(三反鬪爭)이란 구호에 잘 표현되고 있다. 즉 그들은 북괴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1)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지원 아래 한국의 적화를 기하고, (2) 일본에 진주한 미군과 항쟁을 하며, (3) 일본의 적화를 위해 폭력으로 항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58년 2월, 북괴 내각결정에 따라 위장된 평화통일전술을 앞세워 민족의 단합과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그들의 전술이 무력침공인 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조총련의 공작 심장부에는 간부들조차 모르는 북괴의 비밀조직이 망라되고 있어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간첩의 직접침투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조총련 간부들에게 동원에 지장 없게 사생활을 정리해두라는 지령을 내려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강요하고 있다.

초기에 조련은 일공(日共)의 충실한 주구(走狗)로서 일공을 소위 형제당으로 우대하였다. 일본의 공산화는 곧 한국의 공산화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54년 8월 30일 남일(南日)은 북괴와 조직 정비에 관한 지령을 보내 민족전선을 위장, 평화공세 노선으로 바꾸고, 미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일공과 단절할 것을 강요하여 이른바 노선전환투쟁이 일어났다.

드디어 55년 5월 25일 북괴는 조총련을 조직하여 위장된 평화통일공세의 배후에서 한국의 적화를 위한 직접전술로 전환, 일본을 기지로 한 대남공작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이다.

2. 잔악한 게릴라 활동

초기에 조련은 일공의 충실한 행동대로서 지하에서 일공의 그늘 아래 게릴라활동을 전개하였다. 조련은 급기야 폭력단체로서 노출되었고 그 전위기관으로 일공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조선인 생활옹호위원회와 사설경찰인 자치대(보안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 지방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정비한 후 집단적으로 테러, 폭력을 사용하여 일본 사회의 두통거리가 되었다. 일본이 전술을 전환함에 따라 폭력투쟁에서 한걸음 나아가 무장투쟁으로 전술을 바꾸었다. 이를 위한 군사조직이 바로 조국방위대(조방대)라는 살인집단이었다.

48년 5·10 총선 시에 조련의 게릴라 활동은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더욱 격화되었으나 49년 9월 8일 일본 법무성 고시로 방해공작은 무산되었다. 그러던 것이 6·25동란이 일어나자 때를 만났다는 듯이 살인, 방화, 폭파, 테러 등의 만행이 더욱 자행되었다.

구주지방의 조련은 일본 좌익에 응원을 요청하고 북괴에 보낼 자료수집운동에 나섰다. 민단의 방위지원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괴 후퇴 시에는 조련을 게릴라로 투입하고자 9개소에서 전투요원을 훈련시켰으나 그 집결지의 정보가 탄로되어 계획을 변경한 일도 있었다.

조련의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조련계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공작에 있는 조련계 인사들을 추방하였으며, 이들 활동을 불법화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지하로 들어가 일공의 보호와 지원 아래 게릴라 활동을 계속하였고 52년에는 포악한 행동이 절정에 이르렀다.

6·25동란을 계기로 조련계를 후방교란에 이용하려던 음모는 좌절되었고 점차 위장된 평화공세를 통해 간첩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3. 붉은 교육의 실태

조총련은 이른바 민족교육을 위장해서 붉은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조총련계의 학교란 사실상 군사 훈련소에 지나지 않으며 폭력혁명의 보충대로 이용되고 있다.

붉은 교육에 숨어있는 목표는 공산당의 전위로서, 김일성의 충직한 전사로서 인간기개로 전락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두고 있다. 그들은 붉은 사상으로 무장시켜 공산주의의 도구를 만들고자 역사를 개조하고 김일성을 신격화시킨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총 95개에 이르는 조총련계 학교에서는 동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동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케 해서 붉은 이데올로기 의식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김일성의 충복을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각 학교에서는 그룹 활동을 하는 소조와 간부급의 모임인 분단요원회를 통해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당의 주위에 묶어 놓고 있다. 북괴는 이러한 붉은 교육을 위해 교육비 조로 지급까지 약 97억 원(일화)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조총련계의 최고학부로서는 널리 알려진 조선대학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김일성에 충직한 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조총련계의 간부 훈련소에 불과하다. 해외에 대해서는 북괴와의 관계를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은폐시키려하고 있고 영어로는 Korean University라고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도(京都)에 속입수를 써서 새 교육기지를 세우려다가 실패한 일도 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려 문을 닫게 한 일이 있지만 아직도 이들 학교는 붉은 교육의 전당으로, 그리고 북괴 지령의 침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4. 민단에 대한 붉은 만행

조총련은 민단을 파괴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단에 침투하고 이를 파괴하는데 결사적으로 광분하고 있다. 민단은 조총련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데 장애물이요 또한 그 파괴세력이기 때문에 3반투쟁의 대상의 하나로서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귀순자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북한실정을 폭로하기 위한 강연회를 일본 전역에 걸쳐 실시한 바 있었다. 조총련은 이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부녀자 부대를 동원하여 소란을 피우고 호별방문을 하면서 참석을 방해하고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련계 사람도 참석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그들은 특무라는 것을 찍은 통달문(절대적 지령)을 산하 조직에 보내 수단을 가리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진실이 입증될 때 그들의 허위선전은 탄로가 나고 조직은 와해되게 마련이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강연회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의 지지 세력은 북한 실정을 더 모르고 있고 공산주의에도 무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허위선전과 기만술책에 넘어가 드디어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행은 한 민족이 양분되어 있는 비극을 외국에 사는 동포들에게까지 감수하도록 강조하는 인면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5. 북송선과 영주권 신청 방해공작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정상화가 성숙되어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조총련은 큰 타격을 받고 종래의 전술을 바꿔 한일협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였다. 조련 시부터 외국인등록을 반대 하는 폭력투쟁을 벌여 왔지만, 만국박람회 때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들에 대한 납치, 테러 등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영주권 신청 방해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징집영장이 나온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 선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 매수공작을 하고 있다. 특히 민단지부가 재일한국인의 명단을 입수하는 자체부터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재일교포의 북송 실태를 보면 그들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생생하게 찾아 볼 수 있다.

59년 8월 13일 일·북괴 적십자 간에 맺어진 이른바 칼카타협정에 따라 8년간 154회에 걸쳐 무려 8만 8천여 명이 북송되었다. 북괴는 5개년 경제계획수행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 교포들의 재산반입, 기술도입과 이 기회를 이용한 건설재 밀수를 위해 허위선전과 테러를 사용해서 강제로 북송해 간 것이다. 67년 8월 칼카타협정이 종료되었고 그 후 콜롬보회담도 68년 1월 일본이 돌연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북송은 중단되었다.

북송되었다가 탈출한 어느 교포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도착하자 헛웃은 군중을 보고 꿈은 깨어지고 눈물의 호소도 완전히 묵살되었다. 조총련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은 생지옥이었다. 고 악몽 같은 그 날을 회고했다.

6. 붉은 조직의 파국

조총련은 이미 그 시초부터 내분으로 갈등을 보여 왔다. 지난 5월 25일 동경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제9차 전체회의가 개최일 2주일 앞서 아무런 변명도 없이 중지된 때부터 그 분열상은 더욱 노출되었다. 특히 조총련의 돈줄인 신용조합협회에 관계한 성봉조씨 등 거물급 간부 6명이 민단에 전향하면서 그 추악한 권력 투쟁의 모습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뿌리 깊은 내분과 갈등에 겹쳐 더욱 이를 격화시킨 것은 엑스포 공작의 실패와 또한 북괴 상품전의 실패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한 한덕주, 김병식의 주류계에 도전하는 반주류계는 독선에 눈이 어두워 사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조총련은 북괴의 주구로서 모든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그 조직 또한 이를 모방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은 1957년 6월, 조직의 핵으로 학습조와 그 세 포망을 조직하여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북괴지령을 침투시키고 있다. 이 조직은 북괴가 조총련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자료로 삼고 있어 군대식으로 강제 규제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북괴는 외관상 조총련의 명맥유지를

<일본에 발판을 둔 북괴의 암약상>

위해 한덕주를 다시 신임할 것이지만, 반주류계의 거센 반발은 조총련이 분열되든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감행되든가 공산사회의 특유한 비극이 곧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이와 같은 북괴의 전위로서 또는 주구로서 그 지령에 따라 붉은 만행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특히 북괴는 일본을 발판으로 한국의 적화를 이루어 보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조총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일본 정부의 강경한 조치, 그리고 민단의 끈질긴 투쟁으로 북괴의 이러한 음모는 좌절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좌절될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초반을 적화통일의시기로 보고 오늘도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의 현실을 되새겨 볼 때 조총련의 이러한 만행을 우리는 조금도 좌시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반공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힘을 승공전선에 기울여 북괴의 만행을 저지·분쇄해야 하겠다.

명 언

◇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깊이 생각해서 선악을 결정한다는 점이 아니다. 선악의 선택을 그 때의 생각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은 생각에서 온다기보다 습관에서 온다. 생각하지 않고 즉시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 이 습관이 평소에 뒷받침이 되어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칼 힐티>

◇ 대체로 적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생각한 것만큼 그다지 해로운 존재는 아니다. 친구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다지 유익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적도 자연히 수그러질 뿐인 것이다.

<칼 힐티>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 자유중국 공군 순방기 —

대령 박 홍 순

× 월 × 일

분주히 돌아가던 일손을 멈추고 집에 돌아와 여행준비를 하였다.

『군인의 여행』 더구나 윗분을 모시고 가는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많았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부랴부랴 해 놓고 자리에 든 것이 10시.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일찍 쉬기로 하였다.

× 월 × 일

동녘이 터오기도 전에 일어나 밖을 보니 날씨는 좋지 못했지만 무척 포근한 날씨였다.

온 집안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조용한 새벽의 수원 시가지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빠져나갔다. 조급한 마음에 차의 속력을 재촉하면서 한 시간여……

외국여행을 여러 번 하였지만, 이번 여행만은 왠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한강을 옆으로 끼고 김포가두를 달리면서 공장과 건물들로 도시화되어가는 김포가두를 볼 때 발전 한국을 실감하는 듯하였다.

공항에 도착하니 일행, 원장군 314 사단장 등 모두가 와 있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특별기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C54에 탑승, 토드·마스터의 간략한 주의사항을 듣고, 태극마크의 은마는 서서히 바퀴를 굴리며, 이륙하여 기수를 남쪽으로 바로 잡고 구름 속을 날랐다. 여행의 주선을 맡은 필자는 일행에게 스페셜·오더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314사단장은 익살스럽게 조크를 시작 일행을 웃기었다.

밖을 보니 여전히 구름 속, 우리 강산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저 멀리 한반도의 끝, 한라산만이 보일 뿐이다. 이윽고 그것도 지나고 군데군데 뚫린 구름 아래는 퍼런 바다만이 우리 의 비행을 추켜다 보고 있었다.

모두들 피곤한 모양이다.

집에서 준비해 준 케익과 커피를 일행과 승무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애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잠을 청했다.

× × ×

멀리 검푸레한 섬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섬이 가까워지고 복단의 레이들을 내려다보이자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다.

남쪽의 타우안 기지가 보이더니 항공기는 180° 선회하여 기지를 향해 접근 강하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눈 아래보이는 아열대의 검푸른 숲,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모두 붉은 색 기와집들 낮익은 양명산 초산공원을 왼쪽에 두고 비행기는 미끄러지듯 대북 송산기지에 접지하였다.

우리가 송산기지 귀빈대기실 앞 주기장에 세워진 것이 이 곳 시각으로 11시 정각 환영 나온 중국공군 참모차장 등 여러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준비된 7대의 세단에(우리 일행 16명) 올라 이때부터 짜여진 시간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이미 정해진 Empress Hotel(제후반점)을 향해 오면서 느낀 것은 역시 대국적인 기절이었다.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똑바로 넓게 댄 길 웅장한 관공서의 문, 검소하면 서도 통일된 학생들의 복장 모두 붉게 칠한 건축물 등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입고 있던 속 내의를 벗어 땀개치고 짐을 정리, 오후의 중국 공군본부 예방에 대비하였다.

오후 주중 고문단장 Seartos장군이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한 후, 곧장 자유중국 공군본부를 예방하였다.

원장군과 314사단장이 총사령관 쟈이환 중장을 예방하는 동안 우리 일행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기다렸다.

잠시 후 우리 일행 전원과 부사령관 작전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화면 보조화면 백뮤직 을 사용해 가면서 중국 공군 일반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특별히 우리와 다른 것은 편제가 참모차장이 2명이고 참모장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과 정치 작전부라는 특수 부서를 두어 정훈 공작임무를 맡게 한 것이다.

공본 예방은 마치고 우리 일행은 작전사령부로 향했다.

약 20년 전에 구축되었다는 지하 작전지휘소를 구경하였는데 이 작전 지휘소는 마치 함선의 칸막이 방처럼 각 곳에 철타문이 달려있고 공기통의 압력에 의해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우리는 이어 중국본토를 흔히 볼 기대를 안고 T.A.C.C 에 들렀는데 기상이 나쁜 탓인지 전혀 항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유중국은 중국본토와 불과 5~7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다. 그래서인지 경계태세에 있어 3분대기, 5분대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녁 7시 자유중국 공군에서 주최하는 칵테일파티에 초대되었다. 여기에는 중국 공군총사령, 작전사령관 작전서부 서장 등 자유중국 공군 주요보직자 고문단 요원이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참석하였는데 대화는 주로 지난 번 한국방문 때의 이야기로 환담하였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미국부인 및 여대생들이 모델이 된 의상발표회를 구경하였는데 그 값이 40~150불 정도의 고가한 것들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곤한 몸으로 늦게야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중국의 첫 밤을 보냈다.

× 월 × 일

새벽잠에 깨어 커튼을 여니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자유중국 공군 군수사를 시찰하기 위해 다시 모여 송산 비행장으로 달렸다.

자유중국 공군본부 소속 C-47로 약 〇〇분 비행하여 대남에 도착 공용사령부 사령관의 영접을 받으며 공용사령부로 향했다. 공용사령부에서는 영접행사를 마치고 기계화되어 움직이는 공용사령부를 보여주었다.

여기의 모든 계통은 자동화된 기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일선 전투비행단에서 부분품이 없어 텔레타이프를 군수사에 요구하는데 10분, 군수사에서 검토 조치하는데 30분 그것이 창고에 통보되어 수송 의뢰되는데 2시간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이들은 자국보유기 및 미항공기를 창수리하여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운영하며, 수령된 정보를 분류분석 조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3대 현대화 계획을 완성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수동보급기록에서 Computer Operation으로, 둘째 Logstic Date Fransmission 을 Mail Teletytp Network로 끝으로 비중앙통제 자체 관리를 중앙군수통제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우리는 이어 대남기지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느낀 것은 조종사의 훈련과정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야간훈련에 있어서는 이제 개발단계라는 것, 비상대기 근무를 3분, 5분, 15분, 1시간 등으로 나누었고 시동장비, GTC(Gas Turbine Compressuro)를 사용 한번에 4대까지 시동할 수 있게 한 것 등. 특히 좌석에서 대기하는 3분대기는 불과 6~7분 떨어진 이 곳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식사는 2~3명이 한 조가 되어 4~5가지의 요리를 나누어먹고 있었다. 1시 15분 우리 일행은 다시 세단과 버스로 강산의 군관학교로 향하였다.

국도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면서 이곳 농촌을 보았다. 끝없이 넓은 평야에 주로 사탕수수와 고구마가 경작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발가에 세워놓고 일하고 있었다. 특히 수백, 수천 마리의 오리를 키우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도로변의 가옥들은 울타리와 현관이 없는 상가와 거실이 붙은 스타일의 집이 연속되었다. 약 한 시간 반 만에 공군 군관학교에 도착 친항관(志航樓) (학교본부)에 안내되어, 일일입교를 명받고 학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이곳 군관학교는 기초교육과 비행훈련을 기지 내에서 같이하고 있었는데 정규 사관과정은 3,4학년에 비행훈련 입과하여 소정 교육을 끝내면 막바로 중위에 임관되었다. 간부후보생 과정은 비행전수과정 2년 후 비행훈련을 받으며 대학졸업자는 간후 1년과정을 끝내고 비행훈련을 받되 수료하면 소위에 임관되었다.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또한 유년학교제도가 있어 6년을 중,고등 교육과정을 교육시켜 군관학교의 자원을 삼고 있었다.

우리는 중국 공군 박물관에 안내되어 MIG-15, IL-28 등을 구경하고 비행훈련시범을 보기위해 비행장으로 갔다. 날씨가 음산하여 모든 비행훈련이 중지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관, 정비사들이 대기하여 우리를 환영하였다.

훈련기는 T-33, T-28 그리고 PL-1이었다. 조종사 선발 및 초보훈련기로 쓰이는 PL-1은 얼핏 보기에 장난감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그들이 자력생산하고 있다는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T-33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한 중국 공군무관 린·시·웨이 중령의 친형 전·시·수 중령을 만나 비행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참고삼아 적어 본다면, 비행교육기간은 1년 전반기 6개월간에 PL-120시간, T-28 80시간을 비행교육하고 후반기 6개월간 T-33 120시간을 비행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 도태율이 전반기에 30%, 후반기 T-33과정에서 10%로부터 40% 이상이 도태된다니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행은 학교본부로 돌아와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꼬우슝(고음)으로 향했다.

× 월 × 일

아침 일찍 여행준비를 마친 우리 일행은 버스와 세단으로 항구도시 꼬우슝을 구경하고, 바다와 전답이 줄지어 시골길을 빠져 나가 평통기지로 향했다.

평통기지를 향해 달리면서 나는 밖의 풍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두리번(?) 거렸다.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우리나라의 휴과도 전혀 다른 흑연과 같은 검은 흙, 전차궤도와 같은 철로, 자색옥수수대의 사탕수수 옛날 모습의 기와집 등을 보며 한참 만에 문(門)자모양의 평통기지 정문을 들어섰다.

우리 일행은 6연대 장교 제1기지단장 등 고급장교들의 영접을 받으며 장교회관으로 안내되었다. 중국 고유의 차로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다시 조종사 휴게실로 안내되어 6연대와 제1항공창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6연대는 2개전대 제10 및 20공수전대로 구성되어 약90대의 C-119와 9대의 S-2대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참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무려 11,000시간, 항공기의 가동율 72%, 수송기 교육은 14개월에 200시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S2대대는 해군 작전통제 하에서 조종과 운영만을 공군에서 맡고 조작사는 해군 중·소위가 탑승하고, 승무원에 항공기의 비율은 1.25:1, 3개 편대와 1개 정비대로 조종사 25명 조작사 20명이 배속되어 비상대기는 낮에 15분 밤에 30분 대기하며 대잠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곳 비행장은 거의가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곳 역시 한 쪽은 S2가 한쪽은 C-119가 사용하고 있었다. S2지역 풀밭에는 많은 C-46이 그 모습도 초라하게, 어느 것은 한쪽 엔진이 없는 채, 어느 것은 양쪽엔진도 없는 채 줄로 매달아 주기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퇴역 장비의 최후를 그대로 표시하여 주고 있는 듯하여 측은한 마음마저 갖게 하였다.

우리는 다시 제1조창에 들었다.

이곳에서는 제트기 공기의 창수리를 하고 있었으며 정비, 보급창의 역할과 정밀장비 수리 업무를 맡아 55~70년 사이에 F-5 20대, F-86F 818대, F-100 222대 등 총 1,722대를 수리하였고,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금년도에도 120대의 창수리 계획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미 공군의 F-100을 창수리하여 외화획득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상 깊은 것은 정밀장비 실험실이었는데 입구에는 신발의 먼지털이가 설치되어 발을 밟아 넣으면 솔이 전기에 의한 진동에 자동으로 움직여 먼지가 털리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각 실마다 온도, 습도의 조절이 철저히 되어 있고, 대부분의 요원이 공학사를 소지한 장교 및 문관들로 육, 해, 공군의 모든 정밀장비의 시험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은 급양하사관이 준비해 주는 12가지 메뉴로 점심을 대접받고 오후에 다시 C-47로 스이닝(수남)기지항공관리국으로 향했다.

이 항공관리국은 1946년 항공국(BUREAU OF A/C)으로 1954년에는 항공공업기술국(AIE INDUSTRY TECHNICAL BUREAU)로 있다가 1969년 현 기구로 개편됐다고 했다. 여기서는 항공기 및 부속의 설계 제작임무를 수행하면서 항공기 연구개발부(AEL)와 항공기 공장으로서 구성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35대의 PL-1B항공기를 생산계획하여 출고시켰고 73년까지 50대의 UHHH를 공동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 하였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종 부품품 공장을 둘러 보았는데 대부분이 제대한 장사병으로 현역은 얼마 되지 않았다. PL-1의 조립공장은 상당히 큰 건물이나 아직 FLOW System이 아직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CEAN 이동식이 가설 중에 있었고, UHHH 생산을 위한 준비에 또한 분망하였다.

이곳 공장에서는 엔진과 계기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품품을 군산으로 제작하고 있었는데 역시 시설의 미비는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있지만 자체생산이라는데 우리의 매력과 자각을 촉진하여 주었다.

일행은 다시 활주로 건너편 제2 수리창을 시찰하였다. 이곳은 왕복기관의 창정비와 보급, 그리고 산소공급을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기종은 HU-16, C-47, C-119, O-1, S-2A, T-28, H-19, U-17A 등으로 미 공군의 C-47과 월남공군의 U-17A를 계약정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항공관리국과 제2 수리창 시찰을 마치고 CA7로 대북으로 향하였다. 40분간의 비행 끝에 대북에 도착 Imperial Hotel(화국반점)에 다시 짐을 풀며 바른 스케줄에 정리를 못한 짐을 다시 챙기고 피곤한 몸으로 잠깐 자리에 누웠다.

일정이 끝나가니 마음 한구석에 선물걱정이 태산 같다. 그래도 명색에 외국엘 왔다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선물걱정만 하다가 중국 공군참모차장 주최 파티 약속시간이 다되어 부장님을 모시고 중국 공군장교회관으로 향하였다. 이곳은 옛날(1963)에 김신 대사의 초대를 받아왔던 곳으로 낮이 익었다. 문을 들어서니 많은 빈객들이 이미 와있었고 벽에는 한문과 영어로 쓰여진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파티가 무르익자 부장님은 맥주 컵을 청하여 그것으로 우리나라 식 술잔 돌리기를 시작 부장님이 옆의 장대령(부장님 이 공대동창) 뒀까지 2잔, 연거푸 들고 나서 옆으로 건넜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질리는 소리가 나오고 도망을 가고 야단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부장님 일행이 기류엘 간다는데 자리가 없어 기권하고 필자는 윤종근 중령 과 함께 시가의 구경을 나섰다. 대북의 밤거리는, 조용하기만 하였다. 여기저기 많은 금은 보석상이 눈에 띄고,



<「한·중」공군의 유대를 굳히고>

시가지 한복판을 기차가 달리는가 하면, 역시 지하도가 있고 횡단 고가도로가 있었다. 이곳의 기념으로 중국민속음관 2장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 월 × 일

창의 커튼 사이로 밝게 비치는 오랜만의 햇살을 느끼며 대만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서둘러 미군사 고문관에서 장교회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한국 대사관 지정 선물판매점을 찾아 몇 가지 선물을 사서 싸놓고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올 셈으로 차를 몰고 나섰다.

조금만 큰 건물에는 자기들의 국기가 계양되어 있었고 장총통 만세, 근면·저축, 승공통일 의 각종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중국 대중식사 집을 찾아 더위에 지친 몸을 이곳 토산 맥주로 목을 적시다가 시간에 쫓기면서 호텔에 들러 짐을 챙기고 송산기지로 출발하였다. 일행은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공군 정보부장과 마대령 등의 전송을 받으며, 정각 15:00 기지를 떠나 3일간의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이 짧은 여행기간 중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에 소화하는데 불충분하였고 기록하는데 만족스러움을 갖지 못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의 차기 기회에 참고가 되어 졌으면 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군종코너

군인교회의 오순절

<행 2:1-4>

군목
립

구 자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다. 그러므로 교회의 내부적 은혜의 공작도 성령이요, 크리스찬의 별명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골자가 성령이다. 교회의 신앙혁명도 성령이요, 인류의 도덕적 혁명도 성령에 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독교 역사의 골수다. 따라서 옛 사람이 변화 받은 최대의 전환점도 때 묻고 더러워진 심령의 중생하는 비결도 성령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혜사 성령 곧 Parakletos를 약속하셨다.

오순절 곧 Pentecost는 제 50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여기에 오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옛 오순절이 추수절이었던 만큼 신약시대 새 오순절에 약 3,000명의 영혼추수를 가져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왜 그럴까? 성령은 불이기 때문이다. 힘이요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운다. 뒤 집는다. 새로워지게 한다. 때문에 성령은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포와 낙담과 실의와 절망 가운데서 제기 할 수가 있었고 부흥할 수가 있었다. 또 천사의 말을 하기도 했고,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했고,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 앉은뱅이와, 귀머거리와, 소경을 한꺼번에 열리게 하기도 했다. 지금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의 필요는 다급해진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왜 젊은 세대요 군인교회의 오순절은 필요할까? 생각하면 군에서의 군인교회의 이미지가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케 하는 역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군인이요 젊은이들의 모랄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국가와 민족과 이웃에 대하여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냉소적 이고 무관심하다. 젊음의 삶이 싱싱하지를 못하고, 진실성과 영감이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마다의 생활은 불감증에 걸려 있다. 정말 그 생활과 철학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없는 청춘에게는 내일이 없는 법이다.

(군)(종)(코)(너)

누가 오늘의 만신창이의 젊은 가슴에 영감의 꽃이 피는 장미를 꽃아줄 것인가? 아쉬움이 간절하다. 지금 우리의 젊은 가슴에는 전염병처럼 퍼진 광란과 소요와 부정과 허위가 기생하고만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문명과 도시와 20세기가 가르친 죄요 벌이요 수치다. 그리고 멍든 가슴앓이고 짙은 오뇌이며 병신 윤리처럼 나누기는 것발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발돋움 이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요 군인교회에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 일찍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300명의 정병이 있었어야 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도행전이 있었어야 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젊은 세대의 야긴과 보아스요 성령은 젊은 신앙의 알진와 오메가다 하여 우리는 여기에 생명애의 젊은 잔치를 배설해 보기도 하고 젊은 세대의 오순절을 모색 해 보기도 한다.

우리는 잔혹도의 귀가 아니더라도 소라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릴케의 가슴이 아니더라도 피리 부는 과부의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한 사람은 독서, 두 사람은 담화, 세 사람이 모이면 협동과 근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한 사람은 나태, 두 사람은 험담, 세 사람이 모이면 분열이 아니었던가? 일찍이 협동정신의 결여는 우리네 목숨들의 고질적인 암이었으니 말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미래만을 추구하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나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래서 기독교 근본 과업보담 윤리적인 과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즉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으로 사회 개량을 통한 윤리면에 조작적인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효과 있는 결과는 성령을 통한 역사이다. 사과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따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하며 나무를 가꾸지 않고 사과를 따는 것이 무리이다.

오늘의 기독교가 사랑과 봉사, 희생 등으로 열매를 거두려 하나 이는 나무를 잃고 조작적인 열매에 불과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나 개인의 심령 변화, 교회의 부흥, 사회의 혁신은 이 성령을 통한 역사이어야겠다. 이 성령은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머물러 역사하기를 원하나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성령이 말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 구하시느니라」(롬8:26)

Bible을 통한 성령 입재의 역사를 보면

제1화(一話)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애정의 배신을 받아 괴로워하는 한 청년이 있다. 단념하기에는 너무나 강하게 그녀를 사랑해 왔고 또 사랑받아 왔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를 죽이기로... 그리고 자신도 죽어버리기로... 사랑했기에 사랑의 이름으로 죽이고 자살하는 슬픈 일은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노아 홍수시대 방주에 나온 비둘기가 물 때문에 앉을 수 없어 다시 노아 방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다 예루살렘 성전이 좌악스러워 떠났으며 예텐동산에 아담과 함께하시든 성령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좌악스러워 올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하고 깨끗하게 할 때 다시 오셨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급선무는 오순절의 역사이다. 이 오순절의 역사에 앞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부족을 채우며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겠다. 이 일이 있는 곳에 개인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며 국가의 번영이 있을 것이다.

짜르트르의 회곡에서 보면 지옥이란 성경의 표현대로 유향불이 끓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사방이 벽뿐이고 뚫고 나갈 구멍도 없는 작은 방이라고 했다. 정말 이 땅의 지옥의 벽을 누가 뚫을 것인가? 진정 이 벽을 뚫을 줄은 없는가? 생명의 본질은 젊다. 또 생의 황금 나무도 늘 푸른 청춘이다. 그런데 역사하는 힘(성령)이 없으면 개인과 교회와 사회는 시들고 만다.

군인교회의 젊은이들이여! 십자군이여! 이제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의 오순절을 모색해 보자.



- ◇...너희가 사랑가운데서 뿌리가 박...◇
- ◇...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 ◇...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의 높...◇
- ◇...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 ◇...(에베소서 3:18-19)--- ◇

제2화(二話)

고심참담, 여인의 몸으로 노동을 팔아가면서까지 어린자식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있다.

장사라도 하여 자식을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며 푼푼이 저축하여 20만원의 돈을 장만했다. 그러나 과부는 그만 치졸한 사기한테 속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탈한 맨손이 되었다. 마침내 과부는 자살을 결심한다. 그러나 철부지 삼 남매를 그냥 두고는 차마 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고 말았다.

- ◇ -

이상의 얘기는 우리가 신문을 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읽을 수 있는 기사거리다. 사랑이 있어 또한 비극이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왜 이럴까? 사랑이란 지고(至高)한 예술의 언어요 평화의 이미지를 주는 말이 건만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말일까?

그렇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언어는 있어도 참 사랑의 정신, 참 사랑의 행위, 참 사랑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사랑이 있기에 비극이 있는 세상되고 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세상 구조의 밑바탕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서 있는 종교이며 그리스도가 머리요 주인인데 그리스도는 곧 사랑의 주인공이요, 사랑의 핵심체이며, 사랑 자신이며, 사랑의 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며 얼마나 애용되고 있는 말인가! 그러나 막상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 말이며 추한 것으로, 변모되기 쉬운 것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말인가. 오도된 사랑의 개념이, 지식이, 황황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충만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랑을 바로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보자.

(1)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를 알고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도대체 그것은 얼마만한 것일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나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5:45-48)」라고 그리스도는 설교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는 전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같이 사랑의 상대를 선택하시면 조건과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무한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인 것이다. 인간은 부모라도 불효한 자식은 미워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도 절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에 바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다.

(2)

바울 선생은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를 알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길까?
 베드로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며 얼마나 길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그리스도에게 물었을 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대답을 듣고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무한히 긴 사랑이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골백번 맹세를 했어도 조그마한 오해, 조그마한 결점으로 사랑을 버리는 너무도 짧은 사랑을 하고 있다. 십년 가는 우정이 드물고 5년 가는 애정도 귀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하노라, I Love you」 따위의 멋있는 고백 한 번하지 않으셔도 영원불변하는 사랑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3)

바울 선생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를 알라고 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은 고상하고 이지적인 사랑이다. 맹목적이거나 무지한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 동화에서 사냥꾼에게 자기 새끼를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애원한 숲속의 메추라기 얘기는 참 슬픈 느낌을 준다. 모두가 예쁜 새라고는 볼 수 없는 새를 자기 새끼라고 해서 숲속에서 가장 예쁜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다 잡혀죽게 만든 어미 메추라기의 슬픔은 그 사랑이 맹목적이고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윤리적이며 의지적이어야 하고 고상해야 한다. 말쑥 많은 국민학교 자모의 치맛바람 얘기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에 오는 소치인 것이다. 귀하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 하겠다.

(4)

바울 선생은 최후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를 알라고 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이 친히 그 대상의 위치로 내려가 그 대상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겸손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는 신의 위치에서 천한 죄인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에 오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절대적인 깊이를 가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잊으시는 일이 없는 깊은 사랑의 소유자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공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 같아 망각이라는 편리한 습성까지도 사랑을 위해서 버리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구축해야 하겠다.

× ×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성경: 살전 5:16-18)

군 목 이 학 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기쁨을 잃고 슬픔의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있으며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한숨과 한탄 나아가서 재즈와 광란의 리듬의 소리와 살인에 의한 죽음에서 부르짖는 괴성만이 들리며 감사하는 마음보다 저주

와 시기 그리고 모함의 생활이 날로 늘어가는 현 우리 주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벌하고 숨막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달라야 한다.

즉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다. 그러므로 나는 세 가지로 나누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찾아보겠다.

첫째, 기쁨의 생활이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김활란 박사의 유언 중에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일랑 부르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고요히 보내 달라」는 말씀은 기쁨을 잃은 오늘의 우리에게 커다란 감격을 주는 말씀이다. 실로 승리자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 동양의 어진 선생은 「부(富)는 그 집을 윤택케 하고 덕은 그 몸을 윤택케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신앙은 고난을 극복하고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과 수고의 저 너머에는 승리가 있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인생의 슬픈 오솔길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 속에서 힘찬 기쁨의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겹세마네 동산도 좋고 골고다의 피와 땀의 험준한 길도 좋고 죽음의 십자가도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 뒤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에 우리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둘째, 기도의 생활이다. 바울사도는 우리들의 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으로 쉬면 죽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특색으로 생각에서 생활이 나오고 또한 발전하고 오늘까지 계속되며 또 한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 생각이 없이는 발전이 없고 다른 동물과 같지만 생각함으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신비한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인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겹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의 기도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하는 승리의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고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만남에서 모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값없이 냉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

크고 많은 것에 감사가 아니고 적고 보잘 것 없는데서 감사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즉 자기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환란을 당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읍의 생활에서 감사에 대한 깊이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자녀가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신에게 다가올 무서운 병마에도 두려움 없이 「주신이가 다시 가져가셨거늘 내 어찌 그를 원망할까보나」는 말은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인의 대답이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안 속에서 불안에 살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인간에 감사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신의 은총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감사는 조건적 행위가 아니요 무조건적 행위여야 한다. 본문의 감사는 한마디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끝없는 감격이 끝없는 감사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아닌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가르친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는 삶과 죽음의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눈치만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 많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을 던져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생은 바로 이것이다. 괴로운 세상에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신과 단절된 생활을 연결시켜 주는 기도의 생활 그리고 모든 일에 저주와 불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있는 곳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생활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이 시간 아니 지금 많은 나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여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전해야 될 것으로 마지않는 바이다.

× × ×



타버린 우정(友情)

김 병 로

본인에겐 미안한 노릇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덕호 녀석이 익사했던 소식을 듣는 순간 슬프기에 앞서 화부터 났다. 사람이, 그것도 친구가 죽었는데 속으로나마 그래서 쓰겠는가, 하는 자책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로 내 화를 누를 수가 없었다.

암튼 난 그 소식을 듣기 무섭게, 밤새 기차에 시달리느라 피로해진 몸도 아랑곳 않고, 내가 있는 회사의 사장인 장인의 자가용 코로나를 얻어 타고 현장인 뚝섬을 향해 달렸다. 달리는 차에서도 뒷자리에 혼자 앉아 흔들리며 자꾸만 치솟는 화를 입 속에서 질경질경 씹고 있었다.

〈짜아식, 결국 죽는 데서까지 날 앞지르고 말았구나〉



난 신경질스레 담배를 부쳐서 한 모금 깊숙이 빨았다. 뽀뽀하며 이렇게 입 밖에 내어 짜증스레 투덜댔다. 여지껏 여러 가지 일에서 녀석에게 늘 뒤지기만 했던 난 그래도 언젠가는 어떤 일에 있어선 그를 앞지르는 경우도 생기리라 하여 그걸 희망 삼아 살아 왔는데, 이제 그 장본인이 털썩 죽어버렸으니 무엇을 겨뤄 볼 대상마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게 화가 났다.

둘의 사이는 자신들이 생각을 해도 묘했다. 어느 서슬엔 아주 다정한 친구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만 사품엔 상대방을 아작아작 씹어 먹고 싶도록 미움이 생겼다. 그런 사이이면서도 둘은, 일정한 간격을 두긴 했지만,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만나지 않고서는 서로가 배기지 못하는 사이였다. 직접 대면을 못하면 전화로라도 한두 번 집적거리 봐야 하루를 산 것 같고, 직성도 풀렸다.

둘은 만나는 것도 회한했다. 대개의 경우 전화로 사 전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때에 어느 쪽이 먼저 전화를 걸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응해주는 법이 없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둘은 이적비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덕호냐?”

“음. 어서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 끊어. 나 바빠……”

“용건 끝났어. 끊을까?”

“땀대루 해”

“그럼 끊는다.”

“어서 끊어, 웬 잔소리가 많아?”

“넌 왜 아직 수화기 들고 있는 거지?”

“예의상?”
 “예의?”
 “음.”
 “개발에 편차다”
 “아무래도 좋아. 어서 용건 말해”
 “용건 끝났다 하잖았어?”
 “저녁에 만나잔?”
 “시간 없!”
 “그거 내가 하려던 말이다”
 “됐네. 서로 시간 없으니까 만나는 거 그만 두지”
 “굳이 형님 만나고프거든 그리로 나와 여섯시 반까지”
 “시간 없다잖았어?”
 “화낼 건 없어. 싫거든 말아. 전화 끊는다.”
 덕호가 먼저 수화기를 놓는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전화내용은 우습다.

만날 약속을 위해 먼저 전화 건건 난데 약속을 제안한 사람은 되려 덕호이니 말이다. 또 한 가지, 이 전화 내용을 봐선 약속이 성립되지 않을 걸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반재란 점이다. 그렇듯 싱겁게 전화를 끊었지만 둘은 저녁에 어김없이 지정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그것도 거의 시간을 어기는 일 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둘은 다방에 들어서는 것이다.

만나서도 이적비적이다. 출장이다 뭐다로 뜬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에도 둘은 악수느켜녕 인사조의 말 한마디 다정스레 건네는 일 없다. 아니 서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단 표현이 적절할지 모른다.

먼저 온 사람은 신문을 본냈으면 보던 대로, 차를 마신냈으면 그대로 계속 하고, 나중 온 사람은 그대로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레지를 불러 차를 시키든가 한다. 그리곤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 입을 열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키는 대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딴 쪽은 으레 따라 일어선다. 해서 앞장선 사람을 따라 다방을 나간다. 그날 밤은 앞장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다.

리더는 먼저 음식점으로 간다. 저녁 먹으러 간다. 대개의 경우 수수한 한식집에 들러서 수수한 음식을 시켜먹는데, 겨울엔 따끈한 정종이 한 컵, 여름철엔 시원한 생맥주 한컵이 반주 곁들어 지게 된다. 이걸 둘 사이에 거의 불문율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음식점에서는 둘의 입이 열리게 된다. 즉 말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수가 많잖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심드렁스럽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내일 저녁 집에 오지”
 “건 왜?”
 “글쎄……”
 “시간 없어!”
 “뭘 좀 차리는가 봐”
 “차려?”
 약간 긴장해진다.
 “음.”
 “무슨 날이라도 되나?”
 “아, 아니. 암것도 아냐. 자, 어서 밥이나 먹어.”

이건 녀석의 첫딸 첫돌 전날 저녁 무교동의 한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주고받았던 둘의 대화이다.

근데 이 이야기길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다. 그렇다는 건 어처구니없을 만큼 단조하면서도 이 대화 속엔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섞여 있다는 거다. 그실 “뭘 좀 차리는가 봐” 하는 말에 난 잔뜩 호기심을 품었었고, 또 조금만 생각까지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대로



아내에게 내일이 녀석에게 무슨 날이 되겠는가고 다
그쳐 물었던 것이다. 아내는 잠깐 눈알을 굴리다가 곧
녀석의 딸의 첫 돌날이라고 말했다. 해서 우리 부부는
그 첫 돌잔치에 참석했던 것이었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우린 기원 아니면 당구장으로 간
다. 그날의 리더의 마음에 따라 가는 곳이 결정된다.
근데 난 이런 게임에 있어서 항용 그에게 뒤지고 있었
다. 게임 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면에서 그에게 뒤지
고 있다고 느끼는 나이지만, 딱건 쉬 대조가 되지 않아
이력저력 넘어가는데, 이 승부사(勝負事)에서는 이력저
력이 통하지 않아 탈이었다. 물론 승부사에서도 반드
시 사전 조절을 하고, 따라서 비등한 실력으로 대결하
게 되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삼대 칠 정도로 난 늘 그
에게 밀리는 것이었다. 때론 저녁 내내 한 번도 게임에
이겨 보지 못하고 녀석에게 완패 당하는 수가 있었다.

이런 날 난 녀석과 헤어질 적에 견잡을 수 없는 열패
감을 느끼곤 했다. 녀석이 씹어 먹고 싶도록 땀기도 했
다. 해서 차나 한 잔 하고 헤어지자고 뒤따르는 그를
아랑곳 않고 횡글하니 걸음을 빨리해서 내 코스로 빠
지곤 했다. 녀석도 결코 극성스레 따라 붙는 일 없이
곧 제 코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집에로의 버스에 혼자가 되면 난 새삼스레 열패감이
고조됨을 느끼게 된다. 해서 당분간 녀석과 만나지 않
아야 되겠단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 정도로 강경한 태
도를 보여야 내 입장이 선다고 여겨져서 이다. 하지만
이튿날이 되면 난 그런 결의를 밀고 나갈 용기를 잃게
된다. 기껏 버틴단 것이 오전 중까지이고, 오후에 접어
들면 마치 땀손 만난 알콜 중독자처럼 좀이 쑤서서 어
쩔 줄 몰라 하게 된다. 하루의 세 때중 한 때를 걸러
끓은 듯, 어떤 중요한 식순에서



큰 대목 하나를 빼놓은 듯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
긴다. 그렇다고 이쪽에서 호락호락 항복할 생각은 없
다. 먼저 전화를 걸지 않고 녀석 쪽에서 전화가 걸려오
길 기다린다. 오기만 하면 맞받아 나서며 한껏 골려 주
리라 하여 마음속에 시나리오까지 꾸며놓고 기다린다.
한데 녀석한테서 쉬 전화가 오질 않는다. 애가 탈대로
탄다. 참다못해 전화 수화길 들고 다이얼 구멍에 손가
락을 넣는다. 하지만 차마 돌릴 순 없다. 체면을 세워
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수화기를 놓는다.
그 찰나에 찌리링 전화의 벨이 울린다. 흠칫 놀래며 얼
른 수화길 든다. 난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냐고 묻는다.
녀석이 아니다. 확 불쾌해진다. 짜증이 난다. 해서 사업
상 중요한 내용을 지닌 전화이지만 건성으로 어물어물
넘기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밀어버린다.

녀석에게선 내가 지쳐 빠져서 거의 정신적 탈진상태
에 이르렀을 적에야 전화가 걸려온다. 그땐 난 앞뒤
를 가릴 겨를이 없다. 녀석이 이야기 할 틈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이죽대는 것이다. 그러나 녀석은 이런 때
엔 내가 이죽대는 소린 들은 척도 않고 무조건 저녁
에 어제의 장소에서 만나잔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끊
어 버린다.

난 녀석의 말대로 저녁에 또 전날의 장소로 나간다.
안 나갈 생각을 되풀이하다가도 끝내는 그리로 가고
야 마는 것이다. 어떤 마(魔)의 힘에라도 끌리듯…….

만나면 대개의 경우 다시 전날의 코스를 밟는다. 밟다
보면 또 열패감을 맛보게 된다.

난 가끔 게임에 있어서 내가 왜 녀석에게 늘 뒤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 기본기는 녀석이 앞서지만 사
전에 조절해서 비등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왜 내가 늘
지는가— 이 문제 가 나에게 의아스러웠다. 사실 순간
적인 기지에 있어선 내가 녀석보다 낫다고 자부한다.



못한 점이 있다면 녀석보다 내 성깔이 급스러워서 오래 참아내지 못한단 점이랄까.

녀석은 나와 달리 <만만이>형의 성격인데 알아줘야 했다. 당장 벼락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든 눈 하나 까닥 않을 여유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다 심통스러움과 능청기 마저 곁들인 녀석의 성격은 꼬장스러운 내 성격을 위압하고 있었다.

성격도 그렇지만 녀석의 늘 코를 킁킁대는 버릇 또한 난 참기 어렵게 만들곤 했다. 크낙한 등치의 녀석이 묵직히 도사리고 앉아서 말은 않고 눈만 힐끔거리며 코를 킁킁델 적에 난 공연스레 모멸감을 느끼고 짜증스러워졌다. 더구나 게임의 불리한 국면에서 찼찼쩍 적에 계속되는 녀석의 킁킁 소릴 듣잡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받치고, 전신에 죽 땀이 비어져서 게임을 더 계속할 수 없게 되곤 했다. 부득불 게임을 포기한다. 포기하는 순간엔 따귀라도 갈겨주고 싶도록 녀석이 미워진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순 없다.

이런 줄도 모르고 녀석은 내가 게임을 포기하면 당연하다는 듯 유연한 자세로 슬슬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불며 나에게 어서 다시 도전하란 눈짓을 한다. 이쯤 되면 난 더 못 참는다. 후닥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그리고 황급하니 밖으로 나와 집을 향한다.

이렇듯 개 고양이의 사이이지만 둘의 사이가 다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건 둘 사이에 제 삼자가 끼어들었을 경우이다. 그때엔 둘은 철저히 다정해지고 철저히 단결한다.

이런 둘의 관계는 십여 년 전 군에 있을 때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우린 공군 사병 출신이다. 그리고 우린 공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기도 하다.

난 녀석을 신병 교육대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니까 공군에 첫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나와 녀석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녀석은 우리 대에서 키도 제일 크고 몸피도 뚱뚱한 축에 들었다. 난 키는 두 번째였지만 몸은 갈비에 속했다. 키의 탓으로 난 내무반에서 그놈과 바로 옆에 사는 사이가 되었다.

옆에 산다 했지만 낮에야 식사시간에만 만날 정도이고 주로 밤에 붙어서 잠을 자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 난 녀석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군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냈던 극한의식을 안고, 남에게 하듯, 녀석에게도 사이에 건넬 수 없는 단애(斷崖)를 두고 대했다. 한껏 자신을 오므리고, 그리고 그걸 밖에서 두터운 껍데기로 겹겹이 싸고 남과의 사이에 서로 건넬 수 없는 단애를 두어야만 극한상황(난 신병 교육대에 들어올 적에 그런 선입감을 갖고 들어갔었다)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알았었다.

난 철저한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병영생활을 시작했었다. 나 외의 누구를 위해 날 희생한다는 생각 따윈 상상조차 안했었다. 집에서 갖고 온 돈으로 혼자 주보에 가서 야금야금 군것질을 하고, 집에서 면회라도 오게 되면 가져온 음식물을 감춰뒀다가 밤중 이불 속에서 혼자 오물거리며 먹었다. 그렇게 해야 신병 교육을 무난히 마칠 걸로 알았었다.

이런 나의 극한의식을 풀어준 사람이 녀석이었다. 내가 훈련 도중 여름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이었다. 의무실에 갔었지만 입원할 필요는 없고, 약을 먹으며 훈련을 계속해도 무방하겠단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몸이 꽤 괴로웠다.



해서 녀석이 보는 데서 그런 내색을 좀 했었다. 공교롭게도 난 그날 밤 불침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약간한 불평을 털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걸 녀석이 들은 것이다.

난 그날 밤 불침번 설 각오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한데 이튿날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은 기상나팔 소리가 났을 때였다. 눈을 뜨고 그걸 확인했을 적에 난 아차 싶었다. 인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번개쳤다. 동시에 등허리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분명히 내가 말변립 이었는데, 난 나보다 앞서 섰던 사람이 날 깨우는 걸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잔 걸로 알았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반은 아침 두 시간 동안은 무방비상태에 있는 걸로 느껴졌다. 이걸 누가 안다면 보통일이 아니라고 난 생각했다. 대단한 기합을 받을 거라 생각하였다.



기합도 자기 잘못으로 자기 혼자 받는 건 괜찮은데, 혼자서 잘못으로 인해서 단체기합을 받게 되면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은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다. 난 점호 받으러 밖으로 뛰쳐나가면서도 혹시 누가 부르지 않나해서 뚜릿뚜릿 겁나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혼자 이상히 생각했는데, 조반 먹을 때에 나와 불침번 교대하게 되어 있던 친구가 나더러 덕호와 친하느냐 물었다. 지은 죄가 있어서 난 겁먹은 표정을 하고 그렇지도 않다 했다. 그랬더니 의외에도 그는 내 불침번 차례를 덕호가 메꿨다 하였다. 난 놀랐다. 그럴 수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나였기 때문에 그랬다. 극한의식에 잔뜩 사로 잡혀 있었던 난 덕호의 것과 같은 행동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그 이야기길 듣고 난 얼떨떨해졌다. 고맙기도 하고 한대

얼어맞은 듯 어리벙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덕호에게 가서 고맙다 하였다. 했더니 녀석은 덩두런히 앉아서 몸이 아프다기에 불침번 한 번 교대해 준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였다. 그리고 그 때에도 자꾸만 코를 킁킁 울려댔었다.

그 후로 난 차차 내 몸뚱이를 둘러쌌던 두터운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져 나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끝내 남들과의 사이에 파놓았던 단애까지 메꿔짐을 느끼게 되었다. 해서 난 종내 극한의식을 불식해 버릴 수 있었다. 얼핏 대수롭잖게 되던 불침번 문제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해방할 수 있는 선까지 끌고 간 것이었다.

난 덕호를 무척 고맙게 생각했다. 신세스레 생각하기도 했다. 해서 애써 그걸 갚으려 했다. 주보에 같이 가자하고, 면회가 와도 이젠 음식물을 감춰두고 혼자 야금거리는 일을 안했다. 녀석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구대원에게 나눠줘야 속이 후련했다.



그렇듯 열심히 내가 호의를 보이는 데도 녀석은 그걸 별로 대수롭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삶은 건지, 좋은 건지조차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녀석은 덩덤했다. 어떤 땐 내 기분이 확 뒤틀릴 정보로 언짢은 태도를 보이는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난 불침번 교대해 준 생각을 해서 참곤 했다.

군에 들어온 뒤 첫 외출 때가 왔다. 녀석도 나도 갈데가 없었다. 망설망설 하는데 그 지 방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자기 집에 같이 가자했다. 같이 나갔다. 그 집에서 우린 비로소 서로의 신상 이야기도 하고 바둑도 두었다.

녀석이 서울 태생인 줄은 말씨로 알았지만 S대학교 법과대학 삼학년에서 입대했던 사실, 밑에 누이동생들이 있지만 외아들이란 점 등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학교가 다르긴 하지만 법대 삼학년에서 입대했던 사실이, 고향이 서울이란 점 등이 나로 하여금 녀석에게 한층 더 친근감을 갖게 했다.

신병 훈련이 끝났을 적에 둘은 우연하게도 똑 같은 특기를 받았고, 배속도 D시의 같은 부대였다.

부대는 비행단이었는데, 말로만 듣다가 막상 와 보니 어마어마했다. 날만 새면 아니 때론 밤에도 제트기가 잉잉대며 쉴 새 없이 머리 위를 날고. 지상엔 빨간 베이스 깔을 쓴 파일럿들이 기세 좋게 오가고 있었다. 작업복에 기름칠을 하고 열심히 비행기의 엔진을 만지는 정비사들도 보람에 찬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난 그런 걸 보면서 겁이 좀 나긴 했지만, 기왕 공군일 바엔 이런 데에 오길 잘했다 생각했다. 비록 특기는 후방분야이지만, 비행단 근무를 함으로써 공군을 좀 더 알고 나가게 될 것 같았다.

덕호도, 시원하게 말은 않지만, 띄엄띄엄 주어 섬기는 말이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녀석은 특히 공군 동복을 좋아했다. 빛깔이 좋다 하였다. 에어페이스 블루라며 녀석은 그 옷만 입으면 그 굳던 침묵을 약간씩 깨는 수가 있었다. 사실 녀석의 크낙한 등치에 그 옷은 멋있게 어울리기도 했다.

비행단에서 둘의 근무처는 달랐다. 같은 분야이면서 녀석은 사령부에 남고 난 대대에 떨어졌다. 하지만 난 다행히 연락병직을 맡게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녀석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릴 기회가 있었다. 자긴 사령부에 근무한다고 때로 녀석이 식은 소리 하며 날 골렘했지만, 그런대로 난 하루 몇 차례씩 그를 만나야 사는 맛이 났다.

외출 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서 D시에 나가곤 했다. 그곳도 아는 집은 없었지만, 우린 나가서 당구치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하며 즐겁게 쏘다니곤 했다. 때론 낚시도 갔다.

우린 제대하기까지 삼년을 줄곧 그 비행단에서 지냈다. 제대하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에 복귀 했고, 학교를 마친 뒤에 그놈은 지금의 직장에 취직이 되고, 난 여편네 하나 잘 만난 탓으로 장인의 회사에서 전무 노릇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돌아 와서도 우린 줄곧 같이 붙어 다녔다. 남이 보기엔 지겨우리만큼 우린 붙어 다녔다. 이번 녀석이 죽은 낚시질에도 내가 출장만 안 갔더라면 어김없이 같이 갔을 것이었다. 해서 둘 다 죽었던지, 둘 다 살았던지 했을 것이었다.

내가 화를 잔뜩 안고 뚝심 강가에 닿았을 적에 거기엔 경찰관 두 사람을 비롯해서 녀석의 가족이랑 녀석의 처가의 가족들이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난 그들에게로 걸음을 빨리 했다. 그때 녀석의 어머니가 먼저 날 발견하고 달려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날 붙잡고 늘어지며 “인석아 그림자처럼 둘이 붙어 다니더니 우리 덕호는 어떻게구 너만 이렇게 오냐, 인석아……”하고 울부짖었다. 난 어머닐 뿌리치다시피 하며 도대체 녀석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하고 소리 질렀다. 아무도 대답치 않았다. 난 이번엔 나에게 녀석이 익사했다고 직접 전화 건 녀석의 아버지 향해 같은 소릴 외쳤다. 그 때 예야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며 나서서 시체가 없는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심하게 어눌하면서 시체는 없지만 녀석이 익사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날, 그러니까 녀석이 익사한 일요일 날 아침에 덕호는 낚시 차비를 해 갖고 일찍 집을 나가며 뚝심 쪽으로



간다 한 모양이었다. 집사람들은 또 나와 어울려 가는 갑다 추측만하고 누구하고 같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렇게 집을 나간 녀석은 날이 어둡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았다. 집사람들은 나와 어울려 잡은 고기 들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타령인 갑다 생각했다. 하지만 통금시간이 되도록 소식이 없게 되니까 집사람들도 당황하게 되었다.

옆집엘 가서 우리 집에 전할 걸었다. 집에선 내가 지방에 출장 나갔는데 오늘 밤차로 올라올 거라 하였다. 집사람들은 진짜 당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해 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짜고짜 경찰에 알리는 건 경망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딴 데 알아볼 데는 없고 가족들은 생각다 못해 녀석이 술 마시고 늦게 돌아오다 파출소에 걸린 걸로 추측했다. 그랬음 좋겠다고 바라기도 했다.

날이 밝자 어머니 파출소로 가고 아버지 무턱대고 뚝섬으로 나갔다. 근데 아버지가 뚝섬 강가에 도착하니 까 거진 벌써 한 무리 사람들이 모여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가가서 물으니깐 그들은 바로 녀석을 두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트 업자들이었다.

그날 녀석은 혼자 보트를 빌려 타고 강 상류 쪽으로 나갔다 하였다. 103호 보트였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딴 보트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103호 만은 종내 안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보트 주인도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다가 딴 사람들과 어울려 술타령할 거란 추측 땀에 그만 두었다 하였다. 한데 아침 일찍이 강 하류 쪽에서 보트 103호가 얹어진 채 떠 내려와 물가에 있더라 전화가 왔다 하였다. 보트 업자들끼리여서 그렇게 알려진 거라 하였다.

보트업자들은 그렇게 된 이유로 어제 오후에 두 시간 쯤 계속된 심했던 비바람을 들었다.



비바람이 이니까 녀석은 돌아오려고 낮을 올렸을 거라 하였다. 배에 서투른 사람이 어물정대다가 보트가 뒤집혔을 것이고, 일단 물에 빠졌으면 옷을 입고 심한 파도에 건디지 못했을 거라 하였다. 5월의 강물은 아직 차기 땀에 심장마비의 염려도 없잖다 하였다.

보트업자들의 이야길 듣고 난 아버지 녀석이 죽은 걸로 단정하고 사방에 전할 걸었다. 나에게도 걸었다.

아버지의 이야길 듣고서 나도 녀석이 죽은 걸로 단정했다. 주춤했던 화가 다시 속에서 강렬하게 솟구쳤다. 그러나 화만 내고 있을 순 없었다. 기왕 죽은 녀석, 시체라도 빨리 건져 줘야 할 계제였다. 그래서 난 아직도 붙잡고 늘어지는 녀석의 어머니를 뿌리치고 경찰관들에게 갔다. 가서 날 알리고 도와줄 것을 요청 했다.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난 녀석의 직장에도 전할 걸었다. 거기선 곧 현장에 나온다 하였다. 집에도 전할 걸어서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고 차를 보낼테니까 운전수편에 돈을 좀 보내라 했다. 또 장인인 사장에게도 전화 걸어서 며칠 자릴 빈단 사실과 그 사유를 알리고 차를 계속해 쓴다고 말하러 일렀다.

여느 때 같으면 그녀의 성격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지만, 아낸 이번엔 순순히 나의 청에 응했다. 더구나 돈은 내가 요구한 것 이상을 보내왔다. 난 그 돈으로 녀석의 시체 인양 작업을 주동하리라 하였다.

죽은 뒤이긴 하지만 녀석을 위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던 사실이 날 들뜨게 했다. 녀석이 살아있을 적엔 그게 불가능했다. 녀석은 남에게 도움 받는 걸 죽는 것 다음으로 싫어했다. 특히 나에게 대해 더욱 그랬다. 경제형편이 녀석보다 훨씬 좋은 난 이따금 녀석을 조금씩 도울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다.



녀석은 철두철미 나의 그런 호의를 뿌리쳤다. 자기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혼란을 시켜놔서 난 그녀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불가능했다.

도움 뿐 아니라 같이 섞여 다니면서 쓰는 비용도 녀석은 결코 나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거의 반반이 되게 시리 조절했다. 심지어 애들의 돌 때에 교환한 금반지의 중량에까지 녀석은 신경을 썼다. 녀석의 이런 성격이 나로 하여금 둘 사이에 가끔 어떤 거리를 느끼게 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 시적이었다,

어떻든 그렇듯 철저히 내 도움을 뿌리치던 녀석을 죽은 뒤에나마 실컷 돕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야릇하게도 내 마음 한 구석에 부푼 승리감 같은 것이 꿈실랑거렸다.

녀석의 직장에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준비도 철저했다. 십여 명의 동료들이 큰 트럭에 대형 천막과 취사도구와 침구를 싣고 나왔다. 천막을 강가 양버드나무 밑에 치고 바닥엔 가마닐 깔았다. 전공을 불러다 천막 안팎에 전등을 가설했다. 경찰 측과 협의해서 인양작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많은 배와 좋은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강을 뒤지게 했다.

난 어느새 주도권을 녀석의 직장 동료들에게 빼앗기고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난 후회할 생각은 조금도 안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녀석의 시체를 보기 전엔 뚝섬 강가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 마음에 굳은 결의를 하고 있었다.

시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도대체 인양작업이 막연했다. 그 넓고 긴 강을 어떻게 이 잡듯 헤집는단 말인가. 아무래도 시체가 떠오르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물이 찬 탓인지 시체가 쉬 떠오르질 않았다.

난 또 화가 났다. 녀석이 죽어서까지 날 골린다고 생각되어서였다. 녀석이 강바닥 어디에 잔뜩 들어 누워서 찾는다고 애타게 쫓아다니는 날 비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화 낼 일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녀석의 어머니와 아내가 쫓아다니며 울어 제치고 가끔 늑적늑적 까무라쳐대는 것도 화거리였다.

장인은 장인대로 회사가 비어서 안 되겠다고 어서 돌아오란 전갈을 몇 번이고 보내왔다. 인양작업에 필요한 돈이나 듬뿍 대주고 나더러는 어서 돌아오란 장인의 지시를 난 번번이 물리쳤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녀석의 시체를 찾아 처리하기 전엔 강둑에서 떠나지 않을 각오였다. 아마 장인이 내 전무 자릴 빼앗는 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나와 살길 그만둔대도 난 거기서 그냥 후퇴하지는 않을 각오였다.

녀석의 시체는 무려 옛새만어야 물 위에 떠올랐다. 그동안 난 강둑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 지 않고, 낮엔 잠수부들을 쫓아다니고 밤엔 천막 안 가마니 바닥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섶다를 하며 밤을 새웠다. 밥은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막걸리만 마셔대니까 윗 속이 뻗뻗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얼굴엔 수염도 자랐고 닭지 않은 이빨이 뿌드드했다.

녀석의 시체가 떠올랐던 전갈이 왔을 적에 일순 천막 안엔 환성이 오르기까지 했다.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착각을 일으켰던지, 녀석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밝은 빛들을 보였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갈 턱은 없었다. 곧 그들은 절망스런 슬픔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시체 인양작업을 하면서도 가족들은 요행을 바라는 눈치들이었는데,



정작 시체가 나타났다니까, 처음엔 목적을 이뤘다는 생각만 해서 안도의 숨을 쉬었던 가족들이 녀석이 진짜 죽었던 현실을 깨닫고 깊은 설움에 빠져들었다.

근데 난 도무지 슬프지가 않았다. 모두가 울어 제치는 판국인데, 같이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내 감정은 맹승하게 굳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되려 마음구석에서 불끈불끈 화가 치밀었다.

내 화가 결정에 이른 것은 녀석의 시체를 찾은 그날 밤의 일이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이 해질 무렵이었는데, 잠수부들이 나룻배에 시체를 싣고 천막 앞에 왔을 적에 녀석의 아버지 어머니 외엔 시체에 근접하는 자가 없었다. 아버지도 뱃전에서 서성거릴 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어머니만이 툭툭 붓고 검게 거스른 시체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다. 어서 시체를 물에 올려야 하는데 딴 사람들은 두고 쳐다볼 뿐 손 댈 생각들을 안했다. 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널름 뱃속으로 들어가서 흥 없게 된 시체의 머리끝을 안아 들며 소리 질렀다. 악 받친 소리였다.

“어서 시체를 들어내잔 말이요!”

그제야 잠수부들이랑 달려들어서 시체를 들어 물에 올렸다. 시체는 만질 때마다 껍질이 직직 묻어나고 껍질 밑엔 벌써 세충까지 생겨 있었다. 녀석의 아내는 그 자리에 마침 없어서 다행이었다.

시체에 옷 입히는 일을 모두 내가 주동이 되어서 했다. 관도 내가 특제로 사다 입관시켰다. 가뜩이나 등치 큰 놈이 물에 부풀기까지 하니까 관에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서 난 억지로 관 뚜껑을 덮고 거게 길다란 못을 마구 때려 박았다. 입으로 연신 욕지길 퍼부으면서 그렇게 했다.



관을 천막 안 쪽에 놓고 담요로 덮은 다음 앞에 개다리상을 놓고 촛불을 켜 놓으니까 제법 영전(靈前) 같았다.

이렇게 대략 뒤치다꺼리 해놓고 나서 난 녀석의 누이동생들이랑 함께 시내로 장보러 들어갔다. 이튿날 있을 장례식을 위해서였다. 근데 난 이 장보러 갔다 돌아와서 아까 시체를 물에 올릴 때 이상으로 화나는 일을 당했다.

사돈 간에 녀석의 연금을 두고 꽤 심각한 언쟁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난 기가 멀어지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그 흥여운 시체가 죽쳐진 채 아직 천막 한 구석에 놓여 있는데 벌써부터 돈 싸움이라니 나에겐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나에게 녀석의 친족이나 처가의 족속들이 모두 누렇게 돈독이 오른 마귀들로 보여 졌다. 많지도 않을 불과 기십 만원 될 녀석의 연금을 두고 시체 앞에서 아귀다툼들인데, 장례식이라도 끝나면 얼마나 심한 싸움이 벌어질지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난 녀석의 영전에서 쿨적이며 울어대는 가족이랑 처가족속들을 독 섞인 눈초리로 쏘아 보았다. 어머니만을 제외하곤 모두 가식이라 여겨졌다. 아버진 늙었지만 외아들인 녀석이 죽었으므로 후사를 위해 새 장가를 생각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별로 신통하게 울지 않는 갑다 생각되기도 했다.

누이동생들이 우는 건 하나뿐인 오빠가 죽음으로 해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저들에게 넘어 올까하여 그러는 것 같았다.

장모가 눈물을 찔끔거리는 건 딸을 재가시킬 걱정 땀인 것 같았다. 새파랗게 젊은 딸 더러 낳은 딸 하나 보고



수절하랄 순 없고 천상 재가시켜야 하는데 그게 짐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모양이라 생각하였다.

이들에 비하면 어머니의 울음은 진짜였다. 늙었으니 다시 아들 낳겠달 순 없고, 그렇다고 영감이 가만있질 않을 것이고 첩이라도 얻어서 아들보려 할텐데, 다 늦게 씨앗 볼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힐 것이었다. 때문에 아무리 따져도 녀석의 죽음은 어머니에겐 절망이 아닐 수 없을 것이었다.

난 어머니만 빼고, 나머지 친족과 처가 족속들은 녀석에게 나만도 못하단 생각을 했다. 거짓말 안 보태고, 나에겐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었다. 녀석도 역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 뵈었다. 그때 그러니까 신병 교육대에서 나대신 불침번을 썼을 적에, 녀석은 그곳이 적의 척후병이 빈번히 출몰하는 전지의 초소였더라도 능히 그렇게 했을 걸로 난 믿고 있다. 만나기만 하면 시비하고 이적비적 하면서도 우린 은연 중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 밤이 좀 깊었을 적에 어머니 언디에선가 무당을 데려왔다. 해서 시신굿을 벌였다. 부산스레 저금을 울리며 무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푸념을 엮어 나갔다.

녀석에게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 느껴져서 굳이 반대는 않았지만 난 녀석이 무종교이면서 내심 기독교 쪽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걸로 알기 땀에 무당의 푸념이 마음에 거슬렸다. 무당의 푸닥거리가 끝난 다음에 날이 새면 있을 녀석의 장례식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였다. 나도 멤버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난 또 화를 내야 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장의식을 기독교식으로 하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난 기독교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차라리 그걸 바라는 사람이었다. 한테 내가 화가 난 것은 도대체 뒤처리엔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었다. 기독교식이 좋다면 아예 목사를 불러다 기도나 해달라고 청할 일이지, 무당 불러다 시신굿은 다 뭐냐 말이다. 시신굿까지 해놓고 나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한담 녀석의 혼령(있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말이다. 무당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코스를 백팔십도로 돌리자면 녀석이 힘들고 괴로워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났다.

“한 가지루 해요, 한 가지! 이랬다저랬다 해서 덕호를 괴롭히지 말고!”

난 듣다못해 이렇게 버럭 소릴 지르고 퇴장해 버렸다. 천막에서 나온 난 강가에 다가섰다. 외등에 비친 강의 표면에 약간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렇게 파도를 일으키는 강은 어슴푸레 넓은 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녀석을 삼켰다가 토해 놓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흐릿한 하늘 아래 그건 흐릿하게 흐르고 있었다.

난 속에 여러 개로 응어리져 있는 화덩어릴 지질러 버리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다. 지질러우기는 커녕 화덩어린 자꾸만 더 커가는 것 같았다.

내가 천막 안에 돌아왔을 적엔 녀석의 장례식이 기독교식으로 정해져 있었다. 더구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던 시체의 매장이 화장하는 걸로 결정 되기까지 했었다.

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장례식의 형식 때문에도 그랬지만 시체를 화장한다는 데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화장에 대해서 난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다. D시에서 공군에 복무하던 시절 내가 모시고 있던 과장의 어린 딸이 죽었다. 생후 두 달 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였는데



그 시체를 화장한다고 해서 난 D시의 화장터에 갔었다.

화장터엔 화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대표격인 화부가 내 뇌리에 어마어마하니 무섭게 인상 지워졌다. 육십이 넘어 보이는 나이의 노인이었는데 그 인상이 꼭 내가 상상으로 그리던 염라대왕의 그것 같았다. 머리며 턱수염이 하얗게 세고 얼굴이며 몸동아리(여름이어서 옷통을 벗고 있었다)가 별경게 살쥔 있었다. 땅딸막한 키에 배가 고봉으로 튀겨 나온 풍채였는데, 얼굴생김이 여간 험스러운게 아니었다.

우리 사병들이 시체가 든 관을 들고 가니까 예의 화부가 누리끼리한 이를 드러내며 음흉스레 웃어 보이고 나서,

“새끼 고기구나? 관 이리 놓구 어서 술이나 받아 와요!” 하고 소리 질렀다. 그건 소름이 끼치도록 기분 나쁜 음성이었다.

우린 술을 받아다 주고 돈도 얼마를 집어 주며 잘 태워 달라 부탁했다. 그는 알았다 하면서 새끼 고기는 금불이가 없어서 굽는 재미가 없다 하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어쩡쩡해 하는데 딱 화부가 설명을 해줬다. 시체에 금이빨이 있어야 구울 맛이 있다는 뜻이라 하였다. 시체를 구우면서 화부들은 쇠괘지로 시신의 입을 헤집고 금이빨을 빼낸다 하였다. 그게 무시 못 하는 부수입이라 했다.

난 그때 그 말을 듣고 화부들은 시체를 생선 굽듯 하며 금불이를 찾아 마구 헤집는 염라대왕 같은 사람들이라 단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화장은 할 게 못된다고 단정했던 것이다.

이런 나에게 녀석을 화장한다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한껏 화나게 하였다. 그렇다고 막상 화풀이 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난 녀석의 관 앞으로 갔다. 그리고 거게 가마니 위에 두 다리 쪽 뺀고 필작히 앉았다. 앉아서 주정을 시작했다.

“이 새끼야, 너 왜 죽어 가지구 날 속태우는 거야 응? ×같은 새끼, 네가 죽었기 땀에 지금 네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네 혼령을 못살게 굴구, 시체두 태워버리겠다구 야단들인 거야. 태운다는 게 두 번 죽음인데두 그들이 그 짓을 하겠단단 말야!”

이렇게 거칠게 시작해서 난 오만 육지길 다 퍼부으며 부러 주정을 부렸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장례식의 형태와 화장 문제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다.

이튿날은 날씨가 흐렸다. 나부죽이 가라앉은 회색의 구름에선 곧 비를 짙게 떨어질 기세였다.

날씨 탓으로 녀석의 장례식은 서둘러졌다. 녀석의 직장에선 초대안경 낀 목사가 와서 엄숙하고 간소하게 영결식을 집행했다. 녀석의 어머니와 아내가 울다 못해 갑죽갑죽 까무라치는 가운데에 식이 거행되었다. 난 화가 난 채로 식에 참석했다.

식이 끝나자 관은 곧 흰색의 앰블런스에 실려 화장터로 향해 떠났다. 난 내 차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아직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아침보다 더 낮게 가라앉아서 거리의 공간을 한껏 압축시키고 있었다. 압축된 공간 속에 많은 자동차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녀석의 시체를 실은 앰블런스는 그 사이를 굽이굽이 누비고 있었다.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화장터로 움직이고 있었다.

난 그런 앰블런스를 쫓으며 또 한 가지 화나는 일에 부딪혔다. 녀석의 마지막 길에 시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즉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이



마지막 길을 가는데 왜 같은 시민들이 이토록 무관심하느냐였다.

시민으로서 녀석은 훌륭했다고 난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성실했다. 그리고 근면했다. 그 월급에 세계일주 여행을 계획할 만큼 치밀하고 포부가 컸다. 저축도 제법 많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녀석은 술선하여 병역을 마쳤고 최고학부를 나온 인텔리이기도 하다. 이런 훌륭한 한시민이 죽어 가는데 같은 시민끼리 그럴 수 있느냐였다. 앰블런스가 화장터에 닿았을 적에 하늘은 가는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봄비처럼 가늘고 조용한 비였다. 난 화장터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화장에 찬성 않는 사람이기 땀에 화장 수속에는 일체 간섭을 안했다. 간섭안고 옆방 불공(佛拱)실에 들어가 있었다.



거기선 불공이 한창이었다. 앞의 높은 자리에 놓인 누리끼리하니 때 묻은 부처상 앞에 검은 테 돌린 사진이 놓이고 그 양쪽에 유들유들 살찐 두 스님이 서서 염불을 외우고 있었다. 사진액 앞에 현금통과 향로가 나란히 놓였는데 조객들이 나가서 돈을 놓고 분향한 다음 꾸벅꾸벅 절을 하고 있었다. 근데 현금통이 발랑하니 알아서 시춧돈이 환히 보였다. 대부분이 백 원 권이고 더러 오백 원 권이 섞여 있었다. 난 오백 원권이 놓일 때마다 스님들의 염불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불공에 참작하고 있었다.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흠칫, 내가 정신을 차렸을 적에 그들이 녀석의 가족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녀석의 시체가 곧 타게 된다며 어서 불공을 들어야겠다고 떠들썩였다. 난 또 울컥 화가 났다. 방금 기독교식으로 영결식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또 불공을 들이다니— 녀석의 혼령은 어느 길로

가야 한단 말인가, 생각되었다. 하지만 난 간섭 없기로 했다. 맘대로 하라 두었다. 그리고 난 밖으로 나왔다.

밖엔 빗줄기가 제법 굵어져 있었다. 낙수물이 주룩 소릴 낼 정도였다.

난 천천히 화장터의 뜰로 내려갔다. 한복판에 우뚝 선 채 굴뚝을 올려다봤다. 노리끼리한 연기가 곰실곰실 빗속을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노리끼리한 연기를 치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펑 소리 내며 검은 덩어리 같은 연기가 굴뚝 끝에서 위로 치솟았다. 순간 난 새 시체를 태우기 위해 열을 가하는 갑다 생각했다. 그리고 새 시체는 덕호일거라 생각했다.

난 바짝 긴장해서 굴뚝 끝을 응시했다. 검은 연기가 끝나고 다시 노리끼리한 연기가 약하게 빗속을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난 그걸 계속 응시 했다.

내 얼굴엔 빗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난 그걸 아랑곳 않고 장승처럼 선 채 굴뚝 끝만 치어다 보고 있었다. 어느새 내 뺨을 흐르는 빗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액체가 자꾸자꾸 흘렀다. 눈물이었다. 빗발은 아까보다 굵어지고 있었다.



편집후기

◇…… 불을 뿜는 듯한 사자후—유세격전—국내외의 관심사이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속 시원히 그 막을 내렸다. 그동안 선거의 물결에, 다소나마 헤이했었던 마음, 못 다한 일이라도 있지 않았나 돌이켜 본다.

◇…… 그동안 공석이던 자리에 K군이 새로이 들어왔다. 새잡이 치고는 어색함이 없는 험삼……앞날의 지혜와 성의를 기대해 보고 싶다.

◇…… 티 없이 푸르르기만한 5월의 하늘— 오늘도 젊은 보라매들은 조국의 영공을 지켜, 무한한 공간을 찌른다. 공군지를 아껴주시고 있는 필자와 독자에게 여하히 하면 편집자로서 기대에 어김없는 알찬 잡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되짚어 본다 <준>



김동성 대사 공본예방

알젠틴 주재 김동성 한국대사가 3월 22일 귀국인사차, 공본으로 김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김 총장 헌혈

김두만 참모총장은 위급수술환자들을 위해 공군에서 전개하고 있는 헌혈운동에 적극 호응, 지난 3월 5일 항공의료원을 찾아 240cc의 귀한 피를 채혈하였다.

자 주 국 방

자 조 정 신 자 립 경 제

정 병 강 군 —  — 임 전 태 세 확 립



명칭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